hyunbulnews.com

현대불교

17 창간기념

선(禪)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선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제857호 2011년 10월 12일 수요일 (음력 9월 9일 · 불기 2555년 · 주간)



창간 17주년 특집 48면 발행

A 종합 A2~4
'반야심경' 한글로 하세요
태고종 운산 스님 멸빈 확정
범어사 대웅전 뒤로 터널이 웬말


특집 · 인터뷰 A5
불자 탤런트 전원주
어머니 덕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특집 · 출가 A7~9
50세 스님도 '나이 많다'
못하는 현실보다 문제는

B 
한국불교, 프랑스 가다 B1~3
떼제공동체 방문 / 유네스코 만찬
파리 길상사 법회


특집 · 선지식을 찾아서 B12~13
달라이라마
멕시코, 다람살라 법회 현장


지식에서 지혜를 B15
성보박물관에서 불교문화재 즐기기

미녀와 연꽃, 당신 눈에는 무엇이 먼저? '2011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컴피티션 코리아' 참가자들이 10월 4~5일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현조)에서 한국 불교문화 체험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2011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컴피티션 코리아'는 아시아, 유럽, 미주 전 세계 71개국 미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이는 슈퍼탤런트 대회로,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새벽예불을 비롯해 참선, 연등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活發發한 삶 위해 갇힌 틀 깨부숴라

본지 창간 제 17주년에 부치는 글 … 출가와 한국불교 세계화

한 학인스님이 큰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출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큰스님이 답했다.

"그 질문은 오직 자신에게만 할 수 있을 뿐이니, 대답 또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각자의 삶을 대신해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출가(出家)는 산스크리트어로는 'pravrajya'(pra는 '앞으로' vrajya는 '간다'는 뜻)이며, 가정을 떠나는 초출탈리(超出脫離)를 의미한다. 이를 줄여 출리(出離)라고도 하며 미혹한 세계를 여의고(離)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나오는(出) 것을 말한다.

출가는 뜻을 모아서 집을 떠나 고행하고 걸식으로 유행(遊行)하며 마음을 오롯하게 해 사문의 깨끗한 행을 닦는다는 의미가 됐다.

우리는 출가에 관해 많은 말들을 들어왔다. "부처가 되기 위함이다."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樂)을 얻기 위해서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上求菩提 下化衆生)." 등.

무엇보다 부처님 법을 만난 뒤 잠시잠깐이라도 출가자의 삶을 꿈꿔보지 않은 이가 있던가. 출가의 꿈을 꾼 이가 자신이듯 출가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를 했든, 큰스님의 모습 · 선지식의 삶에 감화 받아 출가를 했든 그 길을 택한 것은 우리 자신일 수 밖에 없다. 내 인생의 전부가 그러하듯 남의 말을 따른다고 해도 그 결과는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듯이 말이다.

〈경덕전등록〉에는 "너는 몸(身)이 집에서 나왔는가? 마음(心)이 집에서 나왔는가?"라는 물음에 "내(我)가 집에서 나왔지 몸과 마음이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 이어서 "몸과 마음이 아니라면 누가 출가했는가"라고 묻는다.

〈화엄경〉에는 "있던 집을 버릴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출가해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지이다"라는 원(願)이 있다. 몸은 집을 떠나 출가했다고 할지라도 몸만이 집을 떠난 것은 진정한 출가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거꾸로 헤아리건데, 비록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모든 주위 환경의 유혹을 여의고 그것들로부터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이뤄진 진정한 출가라는 것이다. 이른바 마음으로부터의 출가(心出家)이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보리심을 내는 것도 불 · 보살의 삶을 닮아간다는 점에서 출가이다. 나누고 봉사하는 삶, 밝게 웃어주는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등.

이러한 언행은 모두 귀명(歸命)에서 비롯된다.

원효 스님은 "귀(歸)는 공손히 따르는 것이며,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귀의 본래 뜻"이라고 말했다. "명(命)은 목숨의 뿌리이며, 모든 근(根)을 통제함으로 하나뿐인 몸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주인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세상 만물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 하나뿐인 목숨으로 위없는 존귀한 이를 받드는 것이 바로 귀명이다.

마음으로서 온전한 귀명을 이루면 보현보살의 원행(願行)이 저절로 이뤄진다.

〈증일아함경〉에서는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라고 했다. 악을 경계함이 곧 선을 행함이요, 선을 행함이 곧 악을 경계하는 것이 된다.

출가는 철저한 자기해체를 통한 지혜의 발현이요, 정법의 실천이다. 탐욕의 폭풍우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숲을 이룬 것이 승가이다. 때문에 승가공동체는 개인의 수행과 하나가 되며, 나와 승가는 둘이 아니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프랑스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불교가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식 포교를 했다"고 자평했다.

스님의 발언은 1700년간 갇혔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형적으로는 한반도를, 정서적으로는 한민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탄식에 다름 아니다.

조계종이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뒤 세계로 '출가'하고 있다.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은 떼제공동체의 한 벽에 걸린 "qui suis-je?(나는 누구인가)"를 보며 다르지만 같은[即非] 논리가 처처에 증명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틀을 부숴야 나올 수 있다. 깨어야 산다. 지금이 바로 결심할 그 때이다. 가라(去).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 향 갤 러 리
침향목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제1회 2011남도문화대축전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저절로 생협'이 '우리것, 좋은것'을 널리 알리고자 제1회 2011 남도문화 대축전을 펼칩니다.
지역별 '전통문화 명품전시장'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예술 문화 공연' 등 지역 최대 최고 축제의 장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절로생협 대표전화 : 1544-9955, 062-655-7577
후원계좌 : 농협 302-0450-1729-61 저절로생협
홈페이지 : www.ndfestival.co.kr
확! 펼쳐라~
2011.10.28(금) ~ 10.31(월)
광주염주종합체육관
남도전통문화 · 명품 박람회 10.28~10.31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장터 10.28~10.31
유네스코 지정 평화예술단 공연 10.28~10.29
10월의 선물 '세대공감' 콘서트(무료) 10.30
침 ·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 선생 초청 10.31
주최 | 사)광주전남불교신도회 주관 | 저절로생협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KBC

뜻 모르고 외던 '반야심경' 한글로 하세요

운허 스님본 저본… 현대적 이해 중점 두고 한글화 해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반야심경〉의 현대적 이해를 위한 한글본을 공포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한글본은 제187회 중앙종회에서 가결돼 종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종단은 앞으로 한글 〈반야심경〉 대중화를 위해 각 부서별로 교육 및 행정업무를 펼칠 예정이다.

의례의식의 한글화는 종단의 숙원으로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핵심과제로 선정한 사업이다. 종단은 그동안 의례위원회 등에서 〈반야심경〉의 한글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한문 〈반야심경〉을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사찰마다 각기 다른 한글본으로 독송을 하고 있어 표준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례의식 한글화 종단 숙원
현 집행부의 핵심과제기도
사찰마다 다른 한글본 통일
사찰 · 기관의 협조가 과제

이번에 공포된 한글 〈반야심경〉은 운허 스님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표준 한글본은 독송시간 단축을 위해 운허 스님본에서 글자 수를 줄이고 계속되는 반복구는 생략했다. 진언 번역은 한문 음사를 따랐다. '아뇻다라삼먁삼보리'를 '최상의 깨달음'으로 번역하는 등 문자 위주의 번역보다는 의미 번역을 통한 현대적 이해를 높였다.

종단은 앞으로 한글반야심경 독송을 녹음해 각 사찰 및 기관에 배포하는 등 한글반야심경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주력한다.

총무부는 전국 본 · 말사에 한글 〈반야심경〉 시행을 통보하고 종회와 종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무 사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각 종단 교육기관과 행자교육원의 교육을 안내하고, 포교원은 각 포교 및 신도단체, 신도전문 교육기관, 전법중심도량별로 미디어 자료를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다.

의례위원회 위원장 인묵 스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중요한 작업을 마쳤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칠정례 등의 표준한글화도 논의 중이다. 한글 〈반야심경〉을 북측에 제안해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종단은 10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한글 〈반야심경〉 봉정 및 조계사 회주 무진장 스님의 특별 법문을 개최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한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전문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3번)



조계종 숙원이던 승려복지 시작

조계종이 10월 1일 승려노후복지제도를 시작한데 이어, 4일 승려노후복지제도를 관장하는 승려복지회(회장 영담)를 출범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부 입구에서 개최된 현판식에서 "승려노후복지가 시행착오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야 시행하게 됐다. 종단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고, 출가수행자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종상·정휴 스님 재심호계위원 반대

"일반사회라면 탈락됐을 것" 교단자정센터, 성명 발표

"종상 · 정휴 스님의 재심호계위원 선출은 자성과 쇄신을 통한 5대 결사에 반하는 처사이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재심호계위원에 선출된 종상 · 정휴 스님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10월 4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만인의 사표가 돼야 하는데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이 호계위원이 됐다"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종상 스님이 사찰 내 골프연습장 건설, 폭력, 횡령 등 과거 수차례 실정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정휴 스님은 현재 학원법인의 이사로 비리 의혹에 계류 중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종상 · 정휴 스님에게는 '종무원법' 제21조, '호계원법' 제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품위와 공명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종단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위축돼 종단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반사회에서라면 청문회를 통해 탈락될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종단에서는 버젓이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심판관 자리에 앉아있다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그 결정에 수긍하겠냐"며 정휴 스님과 종상 스님의 용퇴(勇退)와 인사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종무원법' 제21조는 "종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호계원법' 제9조 제1항은 "호계위원은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 멸빈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멸빈이 확정됐다.

태고종 호법원(원장 운곡)은 10월 4일 회의를 열고, 해종행위 등 종헌종법 위반 혐의가 있는 운산 스님을 호법위원 7인 만장일치로 초심원 멸빈 판결을 확정했다.

호법원은 운산 스님의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운산 스님이 사회법을 들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나, 종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해종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내세우나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다. 특히 반성과 참회가 없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불경죄 물어야"

도천 스님 입적 1주일 만에 새 주지 임명에 견책 요구

조계종 원로회의가 도천 스님의 입적 1주일 만에 태고사로 재산관리인을 파견한 마곡사 주지에 원로에 불경한 죄를 물어 경책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0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차 회의를 열었다.

원로의원들은 임기만료된 전계대화상에 고산 스님의 연임을 동의 · 추천했다.

원로의원인 월탄 · 인환 · 정관 · 암도 · 근일 스님의 대종사 법계 심의를 통과시켰다. 또, 화쟁위원회가 준비 중인 아쇼카선언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도천 스님 입적 1주일만인 4일 재산관리인을 파견해 노스님 짐을 챙겨나가라고 통보해 물의를 빚어 왔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원로회의가 열린 6일 오전 원로의장 종산 스님과 도천 스님 상좌인 명선 스님(원로의원)을 찾아 참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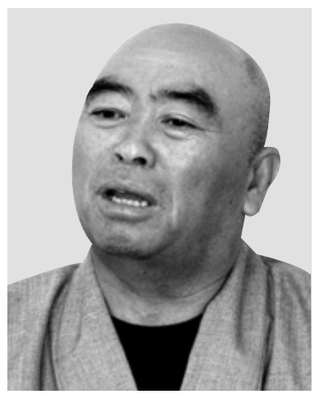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바로잡습니다

본지 856호(10월 5일 발행)에 보도된 "스님, 저희를 두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기사 중 '화계사 조실 도천 스님'은 '화엄사 조실 도천 스님'의 오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종법 무시해 사회법으로 간다"

또 다시 중앙종회의원 후보자격 박탈된 법일 스님



"30여 년 비구로서, 조계종도로 살아 온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

법일 스님(사진)은 10월 6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종단의 사법기구 판결과 규정에 의하면 총무부장의 전결 행위는 종법위반이다. 소납이 비구라는 것은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데 총무부장과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는 위법적인 행정과 판결을 또 다시 자행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5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로부터 '후보자 자격 없음' 판정을 받았다. 선관위의 결정은 총무부로부터 '구족계 수계 자료가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였다.

이날 스님은 서울중앙지법에 10일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선거중지 및 선거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법일 스님은 "종법(법규위원회법, 호계원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종단사법기구에 제소할 길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회법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격 박탈과 불법적인 승적기록 삭제와 종단 사법기구 판결을 무시한 총무부장과 총무원 집행부의 초법적인 작태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단체에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인 음모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일 스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단 집행부가 중앙종회의원 자리를 놓고 사퇴를 종용하고 밀실에서 야합하며 힘없는 종도 개인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것이 과연 '자성과 쇄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책특보 모 스님을 비롯해 자신을 회유한 인사들을 실명으로 직접 언급했다.

법일 스님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종단을 세울 수 있도록 소납의 외롭고 힘든 싸움에 조계종도와 사부대중의 동참과 격려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민족의 영산 금정산을 그대로 두라 !!!

- 금정산 관통 금정터널 공사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도로공사와 부산광역시는 민족의 영산 금정산과 범어사 경내지를 무려 7.42km나 통과하는 폭 50m의 4차선 양방향 쌍굴 장대터널 공사를 착공하려 한다. 금정산에는 천년 고찰 범어사와 14군데의 약수터, 2,300여 종의 수목과 600여 마리의 포유동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부산지역 생태계의 보고이다. 금정산을 관통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금정산의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가치와 역사유적들,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범어사의 수행환경이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에겐 자연과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금정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터널로 관통하지 말고 노선을 금정산 북쪽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 및 도로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통행도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금정산은 개발의 광풍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KTX금정터널, 고압선철탑, 각종 유흥시설들로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여기에 다시 금정산을 장장 20여리나 관통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여 한국불교의 중심 범어사를 능멸하자는 의도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하여 대안노선을 강구하고 현 금정산관통 노선을 폐기해야 한다.

역사 • 전통문화 • 생태계를 파괴하는 금정터널 계획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1. 민족의 영산 금정산 파괴 자체의 문제 - 국민정신문화 파괴
- 민족영산 금정산을 장장 20여리, 전체 잠식 폭 50여m의 터널이 관통한다.
- 총 142만8천입방미터의 화강암이 금정산 내부로부터 적출 된다.

2. 대안노선 노력의 부재 - 교통해소 및 경제성 의문 교통영향평가 다시 해야
- 금정산을 터널로 관통하는 이 도로의 개통년도 2016년도의 통행량은 목표 추정치 59,890대에서 12,036대가 줄어든 47,854대다. 감소 이유는 2017년 함양 - 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덕 - 센텀 지하 도시고속화도로'가 건설되어 대폭적인 통행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3. 불교를 무시하는 공사 - 조계종과 범어사, 부산 및 경상권 및 전 불자를 무시하는 공사
- 터널공사 자체가 이미 한국불교 및 조계종의 대표 선찰이자 호국 대도량인 범어사의 유•무형 가치를 훼손하고 불교의 위상을 추락시킨다.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 절차상 하자 / 이 조항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산터널과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된 조항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제3항의 위반(도로 건설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조항), 범어사의 토지가 연장 512m / 11,377㎡가 들어간다. 범어사대웅전과 1천2백여미터, 내원암, 청련암과는 불과 8백여미터 상거한 범어사 소유의 지반 밑으로 통과하기 때문이다.

5. '금정터널' 터널공사와 관통 후 예상 부작용들
(1)노선이 통과하는 금정산 및 산 주변의 총체적인 생태계 파괴와 훼손 (2)지하수위의 하강, 각종 진동에 의한 산사태, 바위 흘러내림 현상발생 (3)발파진동, 오염수, 분진, 공사 소음 등의 피해 (4)금정산 터널 갱구 등 일대의 상시적 대기오염 집중 (5)주변식생대의 훼손 (6)보호습지의 파괴 '금샘(장군)습지'와 '범어늪' 통과에 따른 문제 (7)장장 2십여리의 장대터널로 화재와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화 우려 (8)장거리 터널 운행 시 운전자의 집중해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 (9)사갱 등 보조 갱으로 인한 2차, 3차 산지파괴 (10)터널공사 시 발파 및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에 의한 항구적 피해 등이 예상된다.

6.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 금정산은 2곳의 보호 늪과 14군데의 약수터, 수목 2,300여종과 600여마리의 포유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금정산 관통 터널은 자연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

민족의 영산, 부산과 경상권 시민의 귀의처 금정산관통 노선을 철회하라 !

불기2555(2011)년 10월 5일

민족영산 금정산관통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반대 범어사 대책위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 051)508-3122

범어사 대응전 뒤로 광폭 터널이 웬말?!

범어사대책위, 부산시 · 도로공사에 금정산 관통노선 철회 촉구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시가 범어사 경내지를 7.42km를 관통하는 폭50m 4차선 터널을 공사키로하자 부산 범어사가 대책위를 만들고 수행환경 지키기에 나섰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과는 1200m, 내원암 · 청련암과는 불과 800m 거리의 지하로 차량이 지나 수행환경 침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족영산 금정산관통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반대 범어사 대책위원회'(간사장 범산, 이하 대책위)는 10월 6일 수송동 모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책위는 "금정산을 관통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금정산의 수많은 유 · 무형의 문화가치와 문화유적들,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범어사의 수행환경도 직 ·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예상하고 있는 금정터널 공사로 인한 부작용은 ▷노선 통과 인근 산지 생태계 파괴 ▷지하수위 하강, 진동에 의한 산사태 우려 ▷발파진동, 오염수, 분진, 공사소음 피해 ▷터널 갱구 등의 상시적 대기오염 ▷금샘습지 등 자연습지 파괴 등이다.

대책위는 "금정터널 개통년도 통행량 목표치 5만9000여 대에서 1만2000대가 줄어 4만7000여 대이다. 교통해소 및 경제성도의문인 터널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 등은 2017년 함양-울산 간고속도로 개통을 준비 중이다. 부산시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만덕-센텀지하도시고속화도로까지 개통되면 금정터널의 대폭적인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대책위는 "터널로 관통하지 말고 노선을 금정산 북쪽 외곽으로 우회한다면 IC 신설 등으로 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다"라며 "도로공사 등이 대안노선을 두고 터널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 무관 스님(중앙종회의원)은 "민족영산 금정산과 천년고찰 범어사는 국민의 자산이며 조계종의 중심본사이다. 대안이 명확한데도 금정산을 20여 리나 관통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금정산과 범어사를 어쩌자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금정터널 공사로부터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금정터널 반대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를 준비 중이다. 홍보 책자 3000부는 정부기관 및 시민 환경단체 등에 보내져 금정터널 공사의 부당성을 알리게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무관 스님이 금정산 관통노선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있다.

총무원과 불교환경위원회에도 종단적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범어사 및 부산지역 불자들과 함께 부산시장과 도로공사 사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고, 10월 중 환경법회를 봉행해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무관 스님은 "대책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월 금정터널 공사가 강행된다면 금정산 및 범어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내준 사부대중과 공사현장을 방문해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범어사운영위원인 상운 스님(조계종 호법부장)은 "과거 KTX터널과 고압선 철탑 등이 범어사 인근에 들어서 지금도 수행환경이 상당부분 침해받았다. 금정터널까지 뚫린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토목공사보다는 환경을 보존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지혜에 눈뜨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포교 전략만으로 수도권 불교 활성화 불능

"수도권 불교 활성화는 포교 전략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종단 교구제도의 점검과 직할교구 강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갈수록 위축되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해 교구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포교연구실과 불교사회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조계종 수도권불교활성화 TF팀은 10월 5일 '수도권 불교 활성화 공개토론회'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과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교구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거점 사찰 지정과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법안 스님은 "수도권 불자수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현행 교구제도의

교구제도 전반적 정비가 필수
7국 · 7직 및 사무처 직원 확충

문제와 유명무실한 직할교구제도, 그로인한 포교 공동화 현상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님은 현재 교구제도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불교 영향력 확대 및 신도증가 방안 모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할교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님은 직할교구 강화를 위해서도 교구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스님은 "교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직할교구 위상과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총무원이 직할교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7국의 설립과 7직 스님의 상설화, 담당 사무처 직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할교구 사무기능을 총무원으로부터 독립시켜 각 종교의 각축장인 수도권 내에서의 민첩하게 대응하고, 입체적인 포교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교구로 편성해, 인천 지역의 포교, 수행, 교구행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강화 전등사를 지역종무분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 스님은 "지역거점 사찰의 지정을 통해 교구와 말사의 가교 역할 및 지역현안에 대한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스님의 지적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석심 교육원 차장은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이 차장은 "교구본사 소임 강화를 위해 7직 스님들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7직에 대한 임명과 임기 보장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직할교구 사무처는 총무부 관리 체계에서 독립하더라도 직할교구 주지인 총무원장 스님의 직접 통리를 받는 것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범 스님은 현실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볼 때, 교구본사의 총무, 교무, 재무의 3직의 겸직 금지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교구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교구정비에는 동의하나 한 번에 실행하기는 어렵다. 서울 중심은 조계사, 북부는 도선사, 강남은 봉은사 주지, 강서는 목동선센터 주지를 교구장 대리로 임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은 불교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수도권 포교환경조사'와 200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따르면 57.6%가 불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불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윤승용 소장은 "기복 불교나 관념 불교가 아닌 생활불교와 생활법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또 "불교는 전문직 중간층이 두텁지 않다. 이런 현상이 고착되면 수도권 포교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중상층 포교 전력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빛이 되어 다시 돌아오시길

10월 3일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에서는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 스님의 영결식이 거행됐다. 정무 스님은 1971~1982년 용주사 주지를 지내면서 퇴락했던 용주사를 재건했다. 영결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원로의원 진제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2일 구례 화엄사에서는 종단 주요인사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도천 대종사의 다비식이 엄수됐다. 도천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의원으로 백장청규의 정신과 수월사상을 평생의 덕목으로 삼아 묵묵히 수행 정진한 큰 스승이었다.

박기범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몽골 내 한국 개신교 선교 위험 수준

양산 영축사 각문 스님 몽골스님 메시지 전해

"몽골에 들어온 한국 개신교인들로 인해 몽골 불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9월 17일 몽골의 나다크 소재 샤인너몽(sainnomuun) 사원 개원식 법회에 참석한 양산 영축사 주지 각문 스님은 몽골의 대사찰인 강당사원 주지 처이잠즈(choijamts) 스님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스님은 "처이잠즈 스님 등 몽골스님들의 한국 개신교인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개신교인들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폄하하는 말과 행동으로 무리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문 스님은 "몽골 사원 지원 등을 위해 몽골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방문 때마다 시골 외진 곳까지 교회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님은 "처이잠스 스님은 강당사원에


몽골 샤인너몽 사원 개원식 법회 모습

고아원을 세워 포교활동에 전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몽골 불교를 지키기 위해 한국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각문 스님은 몽골의 온두라 그룹 회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샤인너몽 사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샤인너몽 사원을 도와왔다. 그동안 각문 스님 등 영축사 대중들은 몽골에 셔틀버스와 옷 등 을 기증한 바 있다. 스님은 17일 행사에서 샤인너몽 사원을 지원해 준데 대한 공로로 주지 네르굴(Nergul)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東大 정각원, 대장경 천년기념법회

13일 오후 5시, 누구나 참가 박상국 원장 초청 특강 열려

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해 조계종립 동국대 정각원에서 특별법회가 열린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10월 13일 오후 5시 '고려대장경 천년의 진실'을 주제로 동국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행사에서는 고려대장경 관련 권위자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강연한다. (02)2260-3744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역경원장 :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사서실장 : 대산 혜산법종 중앙선원장 : 도일 혜정, 일봉

■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종 회 의 장 : 백공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정대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선거대책총무부장: 현덕
총무국장: 천산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남산
교육원장: 원광
교육부원장: 광덕
의식원장: 보운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규정국장: 영암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국장: 수산
감찰1국장: 무아
감찰2국장: 인산
감찰3국장: 봉산
비구니부장: 지성
총무: 묘현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향인
교무: 현타,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보현
포교: 보명, 흥산
강원: 덕산, 원산
복지: 정해, 보현
감찰: 본각, 련성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영산, 지해, 수옥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정산
서울서부종무원장: 종산
서울남부종무원장: 보덕
서울북부종무원장: 선행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동부종무원장: 법성
경기서부종무원장: 덕산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남종무원장: 혜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대구종무원장: 원명
경남종무원장: 도홍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원광
부산중부종무원장: 정오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종무원장: 도명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오
울산종무원장: 혜능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일봉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손정일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삼화불교
홍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인권식 박국서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일 주 문



불국사 신라불교 영산대재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8일 불국사에서 신라불교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동화사 일요특별초청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16일 경내 대웅전에서 김홍신 소설가 초청 특별 일요법회를 개최한다. (053)985-4405



월정사성보박물관 2011초대전
월정사성보박물관 관장 원행 스님은 10월 13~30일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붓다 미소'를 주제로 오채현 작가 2011초대전을 개최한다. (033)332-6915



제13회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10월 13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전계대화상 녹원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054)436-6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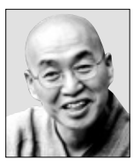
고운사 라디엔티어링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0월 16일 안동MBC라디오와 함께 '고운사 천년 숲길을 걷다' 라디엔티어링 행사를 진행한다. (054)834-6935



2011 가을 한마당 축제
조계종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은 10월 29일 서울 양천공원에서 양천지역 14개 단체와 전국 각지의 농업인들이 참석하는 가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동련 제7회 언어예술제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동국대학교 등과 함께 10월 23일 동국대 백상관에서 '제7회 동련언어예술제'를 개최한다



법륜 스님 100회 즉문즉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진주청소년수련원에서 11월 4일 전국100회 연속강연 기념 즉문즉설을 진행한다.



태고종 현안수습위 정무특보
순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10월 4일 태고종 현안 수습대책위원회 정무특보직을 위촉받고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문화체육정책자문위원 위촉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는 10월 7일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불교계 수익사업 성공사례 나온다

조계종 재무부장 도문 스님



"종단 수익사업의 성공 사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업의 확장보다는 생수와 상조에 주력해 모든 종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조계종이 수익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생수가 10월 1일부터 전국 2400개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재무부장 도문 스님(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만큼 생수 판매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불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브랜드명도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에서 부르기 쉬운 '감로수'로 변경했다. 디자인도 삼보륜과 육바라밀을 물방울을 통해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도문 스님은 "5개월에 걸쳐 하나로마트와 협의를 통해 입점을 결정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해 승려 노후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매진했다"고 말했다.

생수와 상조 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분담금에만 상당부분 의존하는 재정 구조로는 원활한 승려 노후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문 스님은 불자들이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감로수를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구나 사찰이 아닌 일반 유통점에 입점한 만큼 소비자들이 자주 찾아야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스님은 "종단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불자들이 종단 생수를 구입해주기 바란다. 좋은 물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비의 마음과 환희심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불교사회연구소는 9월 12일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종단 재정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종단 수익사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문 스님은 종단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포교'와 '재정확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 쪽에 치중할 경우 문제가 생기며 포교와 재정확충의 균형이 맞아야 수익사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수익사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당분간은 새로운 상품 개발 없이 현재의 생수와 상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역량의 분산을 초래해 성공사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종단 수익사업의 성공 사례가 나와야 앞으로 종도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신뢰가 수익사업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생수와 상조사업에 주력해 종단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승려노후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기범 기자

내 관심은 오로지 복지와 포교

이웃과 함께 나눔행사 개최한 미타사 보명 스님



"미타사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보문동 미타사 주지 보명 스님(사진)이 10월 4일 주지 취임식을 대신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만발공양'을 개최했다. 보명 스님은 이날 직접 보문동 지역의 독거어르신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찾아다니며 쌀과 떡 음료 등을 전달했다.

보명 스님은 "주지 취임을 어떻게 뜻 깊게 보낼까 생각하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 계기를 통해 미타사가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20년 전부터 불교 포교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남모르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많은 기부를 실천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스님은 자비로 모든 행사를 진행했다.

보명 스님은 "미타사가 전통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문종 보문사와 인접해 있어 미타사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미타사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기복신앙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 불자들에게 올바른 부처님의 불법을 전해 대중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보명 스님은 한국불교연화꽃꽂이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며, '꽃 예술전'을 통해 많은 문화 활동도 지속해 왔다.

스님은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전통사찰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불교식 상조로 승려복지 구현할 터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 창립한 포천 불무사 현오 스님

"불교식 비영리 상조를 통해 노인불자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고령의 스님들을 비롯해 불자 노인들의 노후복지를 담당하는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9월 30일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중앙회를 창립한 초대회장 현오 스님(포천 불무사 주지 · 사진)은 "불교식 상조를 비롯해 노후 관련 사업을 진행해 수익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는 크게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진행한다. 복지사업으로 승보공양단(무의탁 스님 돕기 봉사단) 활동, 불자노인 복지기금 조성, 불자노인 상담소 설치 운영, 불자노인요양원 시범운영, 불자노인의집 운영이 전개된다. 또 수익사업으로 복지용구 및 생활용품 판매, 장례서비스 및 장의용품 판매, 납골당 및 수목장, 자연장, 안치단을 판매한다.

현오 스님은 상조서비스에 대해 "현재 일반 상조의 경우 서비스 부실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특히 회원불자님들이 당연히 불교 장례의식을 치러줄 것으로 기대하나 업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는 상조서비스에 시다림(장례전 의식)에 스님 3명, 불교합창단 3명 이상, 자원봉사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조단을 운영하며 경전이 새겨진 수의 사용 등 불교식 장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오 스님은 "종교계 상조의 경우 이웃종교계 상조업체가 90%에 이르는 상황으로 불교계가 노년층 불자들을 전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 원적

4일 숙환으로 별세… 7일 장례 엄수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이 10월 4일 오전 1시 숙환으로 입적했다. 향년 79세.

고인의 법명은 성암(惺庵). 1932년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해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석 · 박사를 마쳤다. 前 동국대 · 서경대 총장 등을 지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불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다녀갔다. 고인은 7일 발인해 경기 여주 남한강공원묘원에 안장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선사(禪師)적 삶 영원할 것

조계종, 스티브 잡스 사망에 애도문



조계종 대변인 정만 스님(기획실장)은 10월 7일 "스티브 잡스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생태적 세계관 등 그의 선사적 삶은 우리 안에 소중한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선불교의 '직관'과 '단순함'을 모토로 IT 산업의 새 지평을 열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계종은 "스티브 잡스가 '시공을 초월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소통의 신문명을 인류에게 선물했다"고 호평했다. 조동섭 기자

부산영산재 작법무 초연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작법무 연수원은 10월 3일 부산시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시연회 및 호국영령 위령(지전) 봉행제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영산재 작법무 보유자인 경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산 영산재 작법무의 시연을 통해 불교전통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포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영천 은해사 개산대재 봉행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2일 120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개산대재는 조사전낙성식 및, 개산법요식, 보살계수계식, 만등불사 점등식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개산대재에서 2000여 불자들이 보살계를 수계했으며 수계법사로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혜인 스님(동곡 일타 문도 대표),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나섰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동종
미 륵 암
신 도 일 동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지 사 장 청운 합장
신문구독, 기사제보, 광고 접수
신문 구독 불자님께 달마도를 증정 합니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70-8838-3776 / FAX 055)867-2880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태아영가참회도량
대한불교 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 운
신 도 일 동

제9회 약천사 -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입재 : 2011년 10월 16일(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전화 02)3391-8523 핸드폰 011-9002-8523

“‘거울도 안보냐’던 어머니 덕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인기만발 불자 탤런트 전원주 씨

150cm의 작은 키에 아담한 체구를 가진 탤런트 전원주(73) 씨는 외모와는 상반되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제2, 제3의 전성기를 맞으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KBS홀에 자리한 한 커피숍에서 아침 방송을 마치고 나온 그녀를 만났다. 신문을 보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왔다.

노년의 연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깐깐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커피 드실래요?”라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은 영락없이 손자를 챙겨주는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시끌벅적한 커피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또랑또랑하게 들렸다. 나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자, 전원주 씨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라고 한 숨을 푹 내쉰다.

“내 나이가 올해 73세에요. 다행히 아직까진 특별히 아프거나 그러질 않아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죠.”

특별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냐고 묻자, “잠 잘 자고, 소식하고, 채식을 많이 한다. 또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며 기분 나쁜 건 빨리 잊는 편이다. 가장 중요한 건 바쁘게 움직이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도 아침 방송 때문에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남편 아침 차려주고 화장하고 집에서 6시 30분쯤에 나왔지요. 아침에 운전을 하고 방송국을 향하면서 항상 기도를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바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바르고 좋은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꼭 말해요. 그게 저의 하루 중 첫 일과 입니다.”

전원주 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 없이 직접 운전을 하며 활동하고 있다. 노배우가 매니저 없이 활동하는 게 불편할 법도 하지만 그는 혼자서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지방 행사는 거의 KTX를 이용하고, 가끔 강의를 나갈 때에는 주최 측에서 차량을 보내주기도 해요. 서울 근교는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고, 시내에 일이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대표 ‘짠순이’로도 알려진 그는 택시를 타려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젠 제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써버릇하지 않아서인지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그냥 기계에다가 카드만 한 번 찍으면 되는데, 남들 다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저라고 못 탈 이유도 없죠.”

방송을 마친 전원주 씨는 오후에 연극 연습실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극 ‘모정의 세월’에 출연 중인 전원주 씨는 용산 완도 목포 안성 포천까지 전국 15~16개 도시의 순회공연을 계획 중이다. 이번 연극에서 시어머니 역을 맡은 전원주 씨는 “나는 매 번 역할을 해도 꼭 못된 시어머니 역할만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지만, 연극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눈빛은 180도 달라졌다. 어릴 적부터 연기자가 꿈이었다는 그녀는 어린 시절 매일 혼자 거울을 보며 울고, 웃고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커서 뭐가 될 지 걱정이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끼를 주체하질 못했어요. 특히 혼날 때에 고개를 숙이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혼나야 되는데, 화났을 때의 어머니 표정을 보느라 항상 얼굴을 치켜들고 있어서 어머니한테 더 맞았죠. 사람들이 화났을 때, 기쁠 때, 슬플 때의 표정을 보고 ‘저 표정은 어디다 써먹을까’하고 고민했거든요. 매일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했죠.”

전원주 씨의 모친이 그를 교사로 만들려고 했던 일화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을 정도로 유명하다. 전원주 씨는 6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첫 딸이 잘 풀려야 집안이 잘 풀린다고 생각해,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전원주 씨를 대학까지 모두 마치게 했다.

불자 어머니 덕에 부처님과 인연 맺어
“오로지 연기 만이 최대의 관심사”일 뿐

“처음 연기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반대는 말도 못했어요. 당시에 연기자는 ‘딴따라’라고 해서 천한 직업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으니 간판이라도 좋아야 한다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느닷없이 연기자가 되겠다고 하니 어땠겠어요. 그땐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어릴 적에도 제가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있으면 ‘주제파악 좀 해라. 7층에서 떨어진 것 같이 생겨갖고, 거울 좀 보고 살라’며 구박만 하셨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맞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는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기자가 됐지만, 연기자가 되고 나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어머니를 뵐 면목이 더 없었다고 했다. 정식 연기자 수업을 받아본 적 없이, 오직 꿈을 향해 달려온 그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매일 눈물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연기 생활을 하며 힘들어 할 때, 가장 위로를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전원주 씨의 전성기를 지켜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개성 분이셨어요. 무일푼으로 처음 서울에 내려와 노점상에서부터 안 해 본 일이 없으세요. 그러다 동대문에서 조그만 가게를 여셨고, 나중에는 큰 상점을 운영하셨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셨는데, 노점상을 하시면서도 매일 같이 절에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때 저에게 ‘원주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올거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은 꼭 절에 가고 〈천수경〉을 항상 외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불신했죠. ‘좋은 일이 안 생기는 데 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냐’고 어머니한테 대든 적도 있어요. 그땐 제 마음이 약했을 때에요.”

그의 불교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매일 새벽이 되면 그의 어머니는 어린 전원주를 손을 잡고 절에 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천수경〉을 외우게 했다. 전원주 씨는 “지금도 〈반야심경〉은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 중간에 얼버무린다. 하지만 어머니 덕에 〈천수경〉은 제대로 외우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어머니가 청룡사 신도회장을 하셨어요. 절에 불사도 많이 하셨죠. 우물뿐이던 청룡사에 수도도 놔드리고, 지금 파주 낙원 공원도 어머니가 거의 일구신 거세요. 어머니를 지금 그 곳에 모셨는데, 돌이켜 보니 어머니가 정말 큰일을 많이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공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원주 씨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불자로 만들어서 ‘참고 기다리면 복이온다’고 가르쳐준 어머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했다.

전원주 씨는 점차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알게 됐다고 했다. 전원주 씨는 친한 동료인 선우용녀와 故 여운계 씨와도 불교인연을 맺고 남다른 우정을 과시해 왔다.

“그 친구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도 나보다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이 베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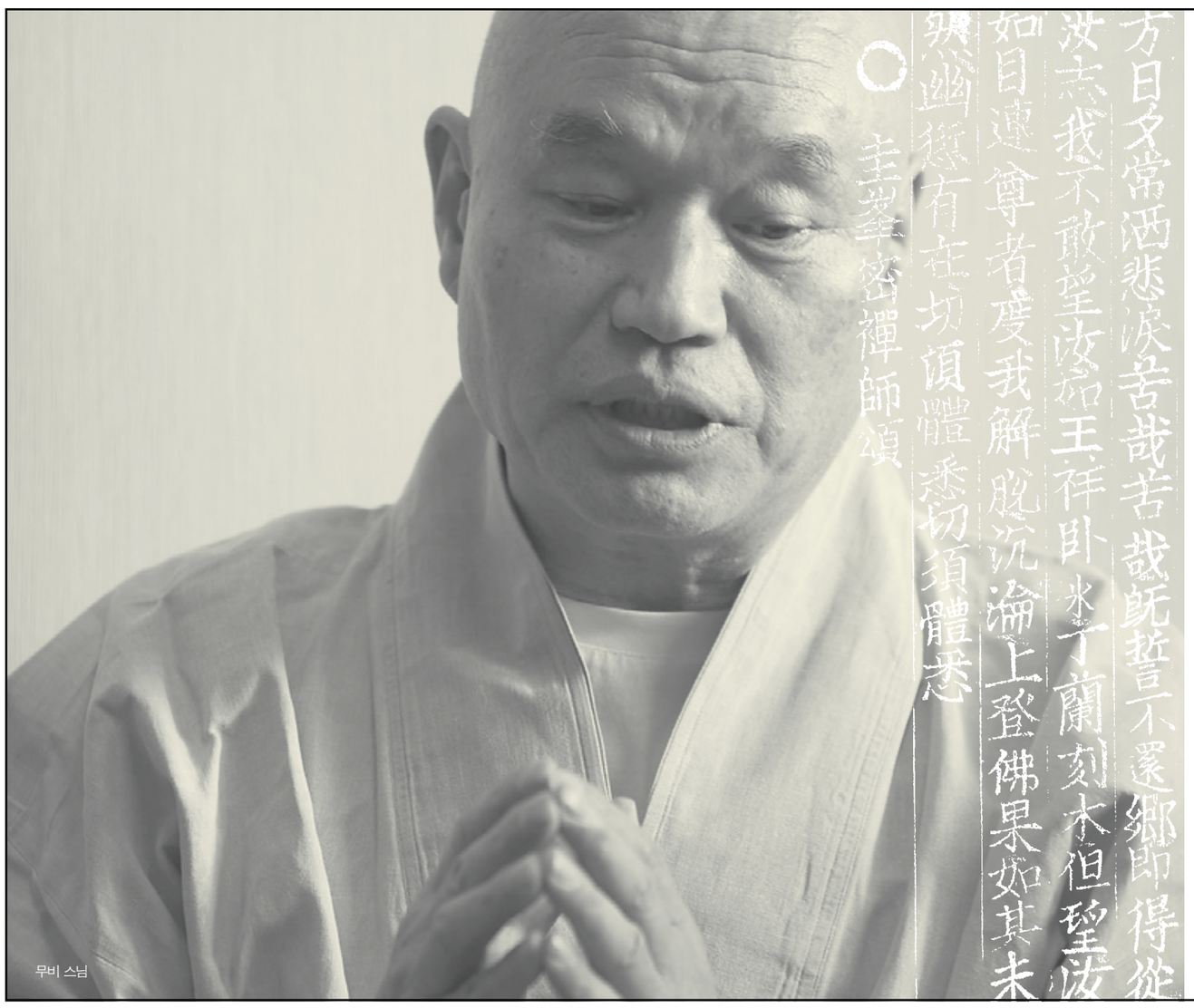
항상 유쾌한 웃음으로 시청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전원주 씨는 아직까지도 연기자 본연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다. 지금도 자신이 돌아갈 곳, 해야 할 일은 단연 ‘연기’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돈 쓰는 것도, 다른 취미 생활도 전혀 없다는 그녀는 오로지 ‘연기’만이 자신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아직도 무대에 서는 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하단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세간의 풍문에 대해서도 “정치엔 전혀 관심 없다. 내가 할 일은 연기뿐이다”고 해명했다.

“남편이 이제 나이도 많으니 마지막 생을 자신과 함께 여행하면서 보내자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제게 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기회는 두 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해요. 지금도 연기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오로지 연기로 풀거든요. 사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 고정된 이미지 때문에 드라마 섭외가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람 핀 남편이 나중에 본처를 생각하듯, 결국 제가 돌아갈 곳은 드라마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부처님 법으로 마음 비우고,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고 밝힌 불자 탤런트 전원주



무비 스님 직지 강설 출판기념회

일시 2011. 10. 28(금). 14:00. | 장소 부산 금정산 범어사 설법전 | 주최 무비 스님 제자 모임
(Tel. 051-508-3122)

直指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 「직지直指」

“팔만대장경과 모든 조사 어록의 요점만을 집약한 만고의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인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이상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에 문화유산의 가치보다도 천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류의 정신을 구제할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부족하나마 강설을 시도해 보았다.” - 무비 스님 머리말 중에서

『직지』의 원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백운 화상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바로 가리켜 준 마음을 깨닫는 중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음’이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책은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이다. 무비 스님은 직지 강설을 통해 선불교禪佛敎의 핵심을 꿰뚫어 보여준다. 무비 스님이 늘 강조하는 인불사상人佛思想,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이 곧 선불교의 핵심임을 천명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대로 깨달은 존재, 사람이 부처님임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무비 스님 책들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 숫타니파타 –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종 정 **최혜초**

승 정 원 장 **유남파**
총 무 원 장 **박인공**
중앙종회의장 **윤영우**
원로회의의장 **김일우**
중앙호법원장 **박운곡**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며
불교정보화 세상을 앞당기는 신문,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리드해 가는 신문으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전화 (02) 739-3450~4 www.taego.kr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원효종

종 정 벽 송

총 무 원 장 **향 운**
원 로 원 장 **창 해**
중앙종회의장 **원 봉**

전 임원진 . 종도 일동

■ 총 무 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601호 / 02)735-0501
■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 / 052)262-6857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전 종도의 이름으로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팩스 292-4586
■ 총본산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팩스 883-7796

화쟁평화중앙교원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현 대 불 교 조 계 종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하며
불교계 모두의 변화, 정보의 사회적 역할과 불교사상을 공부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종 정 **덕현벽운**
부종정 **성주회천**

원로원장 **효덕** 규정원장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성**

◇ **총무원 임원, 각교구장, 종회의원**

법성 성문 법진 연담 법인 지밀 천봉 도선 금산 고암 성광 혜원 시광 정철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덕행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혜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성수 진광 현공 진산 해인 이착 일덕 성일 현광 법연 고암 여의주 보현행
보리심 덕행 천모성월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보광사 / 총무원장 · 주지 동화 전화 042)283-8596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김정각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상임이사 **혜광**
이 사 **화엄** **도기** **일명** **경담** **자명** **혜운**
감 사 **혜천**

원로의장 **지공**
원로부의장 **명종**
원로의원 **무찰** **청송** **수암** **원각** **금봉** **도기**
간 사 **법운**

종회의장 **경원**
사무처장 **삼주**
종회의원 **덕봉** **재성 정일 자명** **경담 도정 만성** **혜일 자견 지연** **대각 도허 경담** **법경 일운 대성** **제법 현암**

호계원장 **용암**
포교원장 **용운**
기획처장 **상원**
호계부원장 **지우**

총무부장 **광은**
교무부장 **보월**
재무부장 **지운**
규정부장 **석경**
포교부장 **지현**
홍보부장 **동청**
교무국장 **법광**
포교국장 **동해**
자비나눔실천회장 **광명심**

서울교구 **직할** 부산교구 **삼주**
대전교구 **현담** 대구교구 **고봉**
울산교구 **지운** 인천교구 **용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일성** 경기북부 **지성**
경남교구 **승원**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지현**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상원** 제주교구 **경운**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 (02)998-8161~ 2 / 전송 (02)998-8384 www.ilbung.org

50세 스님도 '나이 많다' 못하는 현실보다 더 문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 고뇌하였고, 결국 당시 인도 청년들이 최고의 이상으로 삼던 두 가지 길, 천하를 다스리는 전륜성왕과 정신세계의 왕인 출가수행자 중 수행자의 길을 택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어야 하는 현실적 한계와 고통, 그것을 자각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추구한 청년 석가모니 부처의 길을 따르는 젊은이들의 발심이 줄고 있다.

조계종은 2002년 '고령 출가자 증가와 승가교육의 질'을 이유로 출가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2005년 출가연령은 다시 50세 미만으로 환원됐다. 발심 출가의 권리란 원칙 고려와 함께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세로 인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조계종 소속 승려는 1만 3860여 명. 기초 승려교육을 마친 연간 출가자 수는 10년 전인 1999년 532명에서 2009년 259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2005~2010년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05년 326명, 2006년 334명, 2007년 336명, 2008년 287명, 2009년 259명, 2010년 284명으로 감소 이후 유지 상태다.

하지만 출가자의 절대적인 수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출가자의 연령은 20대 20%, 30대 30%, 40대 40%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출가연령 상한선을 40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조정한 이후 40대 이상 출가자의 수가 늘었다. 상한선을 50세로 늘린 것이 출가자 감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출가자 확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은 2009년 말 20대를 대상으로 출가를 권유하는 글을 공모한데 이어 2010년에는 출가안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중적인 스님들의 출가권유 글이 실렸으며 행자과정 등을 담은 동영상, 출가안내 Q&A 코너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출가를 권장하고 있다.

젊은 층 확보가 고령화 대안인가?

사회적으로 사회인구의 고령화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승가에서도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 대두됐다. 하지만 젊은 스님들에 대한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불교계에서는 출가자 수 감소가 문제,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양보다 실질적으로 포교, 역경 등 불교계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원력을 가진 활동 인구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요청 하에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는 말사 주지의 세랍 45세 이상 조건을 삭제했다. 포교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출가종책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정범 스님은 "50세 이상의 발심자를 위해 승단의 문호 개방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출가에 대한 교계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금강 스님도 "젊은이들의 출가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며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등 연령별 출가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스님은 "아무래도 젊은 스님들이 활동적이고 젊은 세대를 이끄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일선 사찰에서는 50세면 한창 일할 나이로, '나이 많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나이와 별개로 활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 확보와 함께 고령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출가학교 출가 인식 재고 기여

월정사, 마곡사, 정토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단기출가는 청소년출가제도 마련과 함께 출가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단기출가 학교는 단순한 수행체험을 넘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월정사와 정토회 만 해도 단기출가에 동참한 인원이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단기출가에서 출가발심한 사람들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일상 생활에서 삶의 전환이란 계기를 제공해 출가로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기출가 학교가 단기출가를 출가에 앞선 행자생활로 명시하고 있다.

월정사의 경우에는 '휴양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입산하시려는 분은 참가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장 정념 스님은 "단기출가를 통해 세상에 대한 회피나 탈출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출가에 대한 시선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꾼다는 출가의 진정한 의미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웃종교계도 역량 향상이 화두

한국 가톨릭의 경우에는 예부터 독실한 신도들 사이에서 자식 중 한 명은 성소자(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가 돼야한다는 분위기로 수도자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이 추세가 꺾였다. 서울대교구 사제 수품자는 1990년대 초 매년 40~50명 수준에서 2008년 19명, 2009년 27명으로 줄어들었다.

유럽과 북미의 경우 수도원에도 대부분이 노수녀들이 차지하고 있다. 수녀원 실무를 맡고 있는 이들도 유럽 출신 수녀들이 아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 출신의 젊은 수녀들인 실정이다. 수녀가 되려는 젊은 여성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자 급기야 캐나다의 가톨릭계는 2009년 라디오 광고로 수녀를 모집하기도 했다. 온타리오 수 생 마리의 세인트 조셉 수녀회의 라이오 광고에서는 '수녀들이 지켜야하는 청빈과 육체적 순결, 순종의 서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또 남성 독신수도자들의 감소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가톨릭 일각에서는 신부 혼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가톨릭계 내부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질적 향상이 아닌 무분별한 양적 확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가톨릭계는 신자들에게 배포되는 주보를 통해 '성소자 모집' 광고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신심 다지기에도 나서고 있다. 가톨릭계는 수도원 별 성소자 모임을 가지며 청소년 신자들의 '성소자' 인식을 재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 과정에도 나서고 있다.

무분별한 양적 확대에 의한 문제는 개신교의 경우에서 드러난다. 개신교는 반대로 너무 많은 성직자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회는 33만 8000여 곳이지만 목사는 60만 명에 이르러 실업난이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성장주의 하에 개교회 난립과 신학생의 과다 배출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다. 무분별한 양적인 팽창으로 함량 미달인 성직자로 인한 전체 개신교계의 인식이 저하되고 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는 가톨릭의 소수 정예 시스템을 참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참고로 2009년 개신교 성직자 수는 약 10만 명에 교회는 5만여 개, 가톨릭 교구소속 신부는 3500여 명에 본당과 공소는 2500개 수준이다.

한 전문가는 "출가자의 수적 감소의 대안뿐 아니라 질적 제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되고 있는 승단과 사회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찰 최초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청암사 승가대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춘 예로 평가된다. 사찰 승가대학 최초로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아이패드를 활용한 교육을 선보인 청암사 승가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는 전자수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화 시대에 불교계 중흥을 위해서는 직할교구 및 직영 사찰 주지 임용에서부터 주지 고과 도입 등 이미 시작된 불교계 내부의 변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숫자보다 역량 중요한 시대
'소수 정예화'가 시대의 비전
시대에 맞는 재교육기관 필요
단기출가 통해 출가인식 개선

종교계, 성직자 고령화대책 부심

성직자들의 고령화 문제는 불교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다른 각 종교의 성직자들의 평균 연령도 자연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종교계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는 노후복지대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와 함께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조계종은 3월 승려복지법을 통해 노후복지에 대한 법적 근간을 만들고 승려복지회를 발족했다. 승려복지회는 무소득 · 무소임 노스님들에게 의료비와 요양비를 지원하며 의료복지 등을 관리한다. 신임 주지 스님들과 수계와 법계를 받는 스님들은 의무적으로 '입적 뒤 개인재산은 사찰(혹은 종단)에 귀속시킨다'는 유언장을 쓴다.

귀속된 재산은 전액 다른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쓰인다. 조계종에서는 그동안 종단 · 사찰 차원의 체계적인 노후복지대책 부재로 노후를 위한 개인 재산을 두고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많았다. 승려노후복지대책 마련은 청정승풍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선운사를 비롯한 지역 교구본사는 '노후 수행마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선운사가 조성 중인 노후수행마을은 2014년까지 7~8동의 한옥, 황토집, 초가집 등을 지어 총 20명 안팎의 노스님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주사 등에서도 이미 노후 수행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사제 노후를 책임진다. 은퇴 전 급여에 사제연금을 더한 금액(200만원 안팎)이 매달 지급된다. 가톨릭병원에서 진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사제관이란 주거 공간도 제공된다.

개신교는 은퇴목회자의 경우 각 교단 · 교회 별로 대응하고 있다. 특정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은퇴시 노후 주거공간 및 퇴직금과 같은 전별금을 지급한다.

개신교는 연금재단을 운영
가톨릭 · 원불교 교단서 보장

교단 별 차이가 큰 가운데 개신교계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연금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1960년 설립한 이 연금재단 규모는 2770억원에 등록 목사 1만5000여 명(2009년 말) 수준으로 알려졌다.

원불교는 전체 2000여 명 성직자 중 320여 명이 68세 이상은 퇴자에 속한다. 이 중 200여 명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중앙수도원 등 요양시설에 살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교당 · 기관 등에서 살아간다. 매달 51만원 수준의 돈이 은퇴성직자들에게 지급된다.



가톨릭 사제 · 부제 서품식 모습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교 무 정 수
학 장 덕 민 재 무 종 천
선원장 종 우 사 회 종 민
총 무 종 천 포 교 성 요
기 획 정 문 호 법 각 천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큰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부모 반대에 호적까지 파고 출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출가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자가용이 없다. 버스를 타거나 걸어다니며 가람 불사와 포교 불사를 하고 있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청주 보살사 사찰 보살들도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 장을 본다. 한국불교계의 어른으로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종산 스님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청주 용암동에 위치한 보타산 보살사는 신라 567년 의신 조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보살사는 고려시대를 거쳐 숭유억불의 조선시대를 지나면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절을 자주가지 않던 사람이라도 보살사 극락보전에서 108배를 올리면 힘들지 않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그 기운이 더해져서일까. 종산 스님은 지금도 하루 한끼만 먹으며 아침, 저녁 예불을 비롯해 가람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한다. 86세의 세납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종산 스님은 1924년 생으로 일제 강점기에 의과대학을 다녔다. 가까운 친구의 죽음 앞에서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의 길에 한계를 느꼈다. 마음의 방황을 겪으며 친구의 49재에 참석했던 스님은 목탁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결심했다.

부모의 반대가 심했다. "출가를 하려면 호적을 파라"는 말에 스님은 망설임 없이 호적을 파고 출가를 단행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효의 길이 아니었다. 현생의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보다 만인을 깨우침으로 이끄는 스승이 되려는 큰 분발심이었다.

출가 이후 스님은 대흥사, 만덕사, 보광사, 해인사, 범어사, 천축사 무문관 등 전국선원에서 수행정진했다. 대강백인 용봉 스님에게 경전을 공부했고, 근대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전강 스님으로 선(禪)을 배왔다. 동산 경봉 춘성 금봉 청담 혜암 스님등 당대 최고 선지식과 함께 수행했다.

스님이 범어사에서 한 '대못 수행' 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하면서까지 스님이 이루려 했던 치열한 깨달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스님은 동산 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주석할 때, 세 명의 도반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눕지도 않으며 용맹정진했다. 널빤지 앞에 못을 박아 앞에 세워 두고 잠시라도 졸면 이마에 못이 찔리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수행이었다. 스무 여일이 지나 도반들의 이마에는 피가 나고 긁히고 심지어 얼굴 군데군데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스님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터였지만 도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게 됐다.

"기가 막힌 모습이었어요. 한편으로 그 치열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 모든 스님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공부를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마음 어딘가 깔려있던, 대학공부까지 했다는 자만심이 일순간 사라지고, 대분심, 대의정, 대발심이 일어났어요."

몇 번을 거쳐 용맹정진한 스님은 문없는 방의 벽을 걷어차고 세상으로 나왔다. 스님은 종법으로 보면 최고 수행자로 추앙받는 종정 다음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전국 유명한 선원을 두루 다니며 40여 년간 수



행을 했지만 종단의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었다.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가지 않았다. 호텔에서 잠을 청하지도 않고 원로회의 때도 대중교통으로 서울에 온다. 공양은 보살사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부처님이 설하신 청빈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4대 독자였지만…"스님 해봐라" 말에 스님 됐지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출가담

밀운 스님은 1934년 황해도 연백에서 4대 독자로 출생했다. 4대 독자가 출가한다는 것은 보통 집안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스님의 부모님들이 불심이 깊었기에 출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스님의 부모님은 집 근처 망해사에서 기도 끝에 스님을 낳았다.

밀운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남달랐다"면서 "어릴적 방학이면 망해사 스님에게 한문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때였다. 스님은 1·4 후퇴 이후 고향 황해를 떠나 피난을 왔다. 친척을 따라 서울 노량진에서 살던 밀운 스님은 은사 대오 스님을 만났다. 대오 스님이 "스님이나 한번 해봐라"는 말에 출가를 결심했다. 법명은 부림(部林). 스님 나이 19세였다.

경북 영주 초암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다. 은사 스님은 행자였던 밀운 스님에게 밥상까지 손수 들어다 주며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실 정도였다.

은사 대오 스님은 검소함을 강조한 선방 수좌였다. 밀운 스님은 "은사 스님은 늘 참선과 욕심없는 삶을 강조했다"며 "입적 당시 가위, 돋보기, 실타래, 손톱깎기가 전부였을 정도로 올 곧은 수행자였다"고 회고했다.

이후 스님은 봉선사 운허 스님에게 건당했다. 건당은 계를 준 은사가 아닌 다른 스님의 제자로 입적하는 것이다. 운허 스님은 일생을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에 매진한 근현대 대강백이다. 현재 봉선사 조실인 사형 월운 스님이 스승에게 밀운 스님을 추천하며 건당제자가 됐다. 운허 스님이 지어 준 밀운(密雲)이란 법명도 평소 스님의 남모르는 수행정진 때문이었다.

1954년 스님은 군에 입대했다. 의무병인 스님은 군에서도 계를 지켰다. 저녁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선을 했다. 은사 스님과 후일 총무원장을 지낸 동암 스님이 면회를 왔다. 포천 동화사 법당에서 동암 스님이 "부처님이 시원찮아"라는 말을 했다.

스님은 '부처 중에도 시원찮은 부처가 따로 있나' 는 의문이 들었다. 의문을 붙잡고 정진했다. 그리고 한 생각을 얻었다. '부처행을 하면 모두 부처' 였다. 이후 밀운 스님은 "스님이면 계를 지키며 살아야 스님이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 스님은 지금도 부목을 자처한다. 스님이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했



을때는 칭송보다 '흉물 떤다' 는 손가락질이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밀리에 수행정진하는 행은 그칠 줄 몰랐으며, 매일 108배 울력 참선을 빠트리지 않고 있다.

출가를 꿈꾸는이에게



자유를 향한 자유로운 날개짓, 출가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출가를 권하는 글

친구여, 요즘 사는 것이 어떠한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활기차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친구여. 만일 그대가 길을 찾지 못해 고뇌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쩌면 내가 살고 싶고 나에게 맞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친구여. 여전히 지구는 넓고 길도 천갈래만갈래이네. 어쩌면 사람 수 만큼 길은 있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길은 곳곳에 열려있네. 다만 사람들이 엄연한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네. 정말 주체적으로 자기 개성을 살리고 본인이 꼭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다면 그 길은 어디엔가 반드시 열려있네. 따라서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못찾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는 이야기네. 또는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활짝열고 주체적으로 개성있는 자기 길을 찾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네.

나는 지독하게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네.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네. 열여덟살 때 금산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네. 지금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멍청한 짓 같기도 하지만 참 다행이다 싶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이 길 만큼 좋은 길이 또 있을까 싶네.

이유를 설명해 보겠네.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일이 없네. 부양가족 문제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네. 전국의 사찰이 모두 내집이네. 지금은 전세계로 무대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네. 21세기 인류 사회가 주목할 정도로 불교의 사상과 정신이 탁월하네. 인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네. 나쁜 마음먹고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이상과 가치인 인류의 공동선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네. 얼마나 대단한 조건이며 얼마나 신나는 길인가. 스스로 게으르고 나약하지만 않는다면 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조건이요,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네.

친구여. 나는 그 안에서 내 마음껏 살아왔네. 처음에는 의무교육기관인 강원에서 경전 공부를 했네. 선원 생활 풍토에 대한 회의가 들었네. 그 때 선원생활을 정리하고 나왔네. 인류가 낳은 최고의 사상 세계라고 평가하는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학림을 열었네.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중간에 중단했네. 친구들과 선우도량을 만들어 21세기 승가상 확립과 승풍진작 운동을 했네. 실상사에 본부를 둔 이후 지리산 살리기 운동, 21세기 사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생태 자립마을 공동체 운동, 대안교육 운동, 생명평화 운동을 했네. 그리고 지금은 지리산 사찰들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사찰이 되도록, 지리산 마을과 사회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마을과 사회가 되도록하는 지리산 성지화 운동을 하고 있네.

내가 장황한 설명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본의는 단순 명료하네. 내 역량과 노력이 부족해서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네. 하지만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았네. 내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 마음껏 살아왔네. 자질구레한 일들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보다 더 좋은 조건, 이보다 더 훌륭한 길은 매우 드물다고 보네.

친구여. 생각해보게나. 이만하면 한번 마음 내볼만 하지 않은가? 한바탕 멋지게 춤을 추어볼만한 멋진 무대가 출가 수행자의 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기꺼이 아무 망설임도 없이 이 길을 권할 것이네. 단 한가지 조건이 있네. 편안하게, 쉽게, 적당하게 살겠다고 하는 옹졸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마음 내서는 안되네. 적어도 인생을 참되게, 멋지게, 의미있게, 그리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땀흘리겠다는 마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게나. 우리시대, 우리사회가 그런 멋진 수행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참된 수행자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네.

기다리겠네. 언젠가 어디에선가 이 길에서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겠네. 잘 있게나.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 국내 범종의 1만관 시대 개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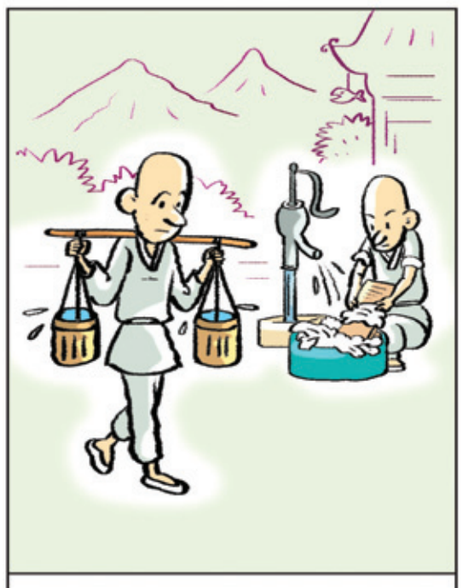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조되었습니다.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 설치되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활용되는
세계평화의 종은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주조된 국내 최대의 종으로
한국 범종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

집안에 스님이 한 명 있으면 삼대의 공덕을 짓는다

만화로 보는 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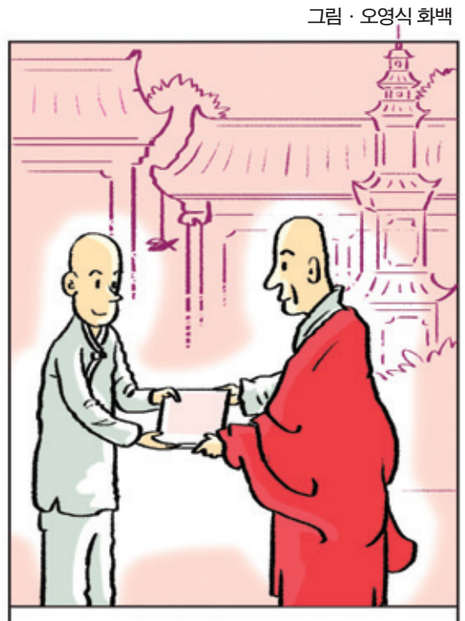
그림 · 오영식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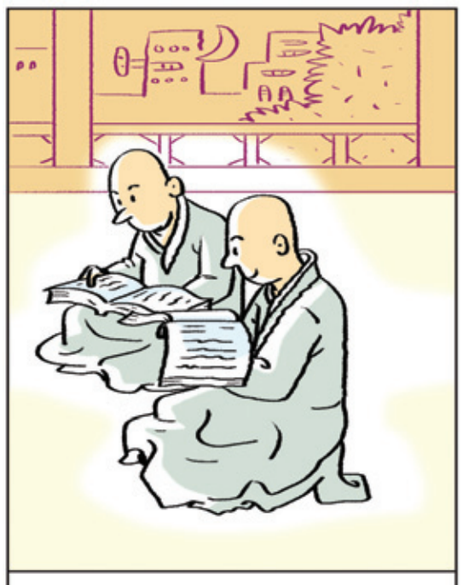
출가를 결심하고 사미계 · 사미니계를 받을 때까지를 행자라고 한다. 행자로서의 수행기간이 바로 스님이 되는 입문과정이다. 행자는 밥 짓는 이과 나무하는 일, 그 밖의 온갖 허드렛일도 기꺼이 도맡아 하며 사찰 소임을 경험하며, 출가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점검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행자 기간은 자신이 평생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은사스님 밑에서 초심자로서의 여러 계행을 배우며 동시에 사찰에서 필요한 기본의식을 익힌다. 조계종을 예로 들면 조석예불, 조석송주, 불공의식, 시식을 익혀야 하고 계정의, 좌선의 참회정진 등 모든 습의를 익혀야 한다. 또 사미율의와 〈초발심자경문〉 등의 공부를 마쳐야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자수련을 거쳤다고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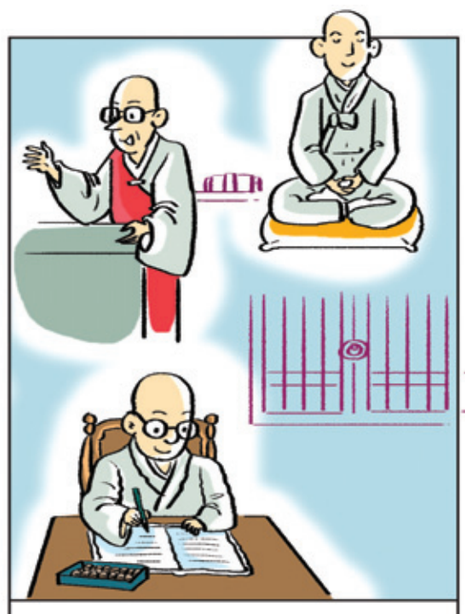
행자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되면 출가 입문자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는다. 사미 · 사미니는 18세 이상으로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소정의 행자생활을 마치면 종단이 마련한 단일계단인 수계산림에 모여 최종 교육을 마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계를 받는다. 사미, 사미니가 받는 계를 사미 10계라고 한다.



사미 · 사미니가 조계종 승려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8안거) 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한 후 연수를 마치면 비구계를 받게 된다. 조계종 승려기본교육기관은 전통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 그리고 동국대 불교대학, 기초선원이다.



마지막으로 종단 수계산림에서 5박 6일동안 마지막 교육을 받고 승려 자격을 심사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촛물을 먹인 삼베실에 불을 붙여 팔목에 올려놓고 진언을 외우며 계행(비구250계, 비구니348계)을 지킬 것을 서원하는 연비(聯臂)의식을 거친다.



비구계를 받은 스님들은 사찰에서 소임을 보며 사판승(행정승)으로서 나서거나 선방에서 안거와 만행을 하며 수행정진에 나선다. 또는 학림과 대학원 등에서 불교 연구를 진행해 학자의 길을 걷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종단별 출가정보

각 종단 출가 특색 있어, 교육원 등 상시 상담

1. 조계종 승려가 되는 길

① 기초교육

조계종 출가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출가는 크게 세 가지다. 인연이 있는 은사 스님을 만나 출가하는 경우, 은사 스님을 정하지 않고 사찰을 찾아 출가 하며 행자 생활을 하며 본사에서 근기에 맞게 은사 스님을 정해주는 경우, 마지막은 행자 생활을 하며 귀감이 되는 스님을 선택해 은사 스님이 되어달라고 청하는 경우다.

그러나 ㉠ 문신자 및 자해자 ㉡ 간질 및 정신질환자 ㉢ 입산 이전 수족을 자른 자 ㉣ 결가부좌가 안 되는 자 ㉤ 연령이 15세 미만이거나 50세를 초과한자 ㉥ 이혼일이 행자교육원 입교일 기준 6개월 미만이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각 사찰 주지 스님이나 교무 스님의 허락을 얻은 후 행자생활 시작할 수 있다.

행자로서의 교육기간은 6개월인데 행자들은 5개월 동안 개별사찰, 교구본사에서 의식과 위의, 운력(運力)과 소임을 비롯한 교육과 수행생활을 거친 뒤 1개월간 행자교육원에서 공동으로 집체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끝나면 행자들은 5급 승가고시를 거쳐 사미계(沙彌戒) ·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는다. 사미계를 받은 스님들은 4년 동안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4급 승가고시를 거쳐 비구계,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조계종 스님으로 활동한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은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기본선원이다.

2. 태고종 승려가 되는 길

태고종은 출가는 조계종 출가와 다르지 않다. 다만 태고종은 출가에 나이제한이 없다. 일반 사찰에서 3~6개월 이상 수행한 행자는 종단 지정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에서 사미, 사미니계를 받는다. 사미승은 기본교육기관인 선암사 전통강원과 동방불교대학에서 4년 과정 이수 후 구족계를 받는다. 태고종은 비구니가 되기 위해 2년 동안 수련을 받는 사미니를 부르는 식차마나니가 없다.

3. 천태종 승려가 되는 길

천태종 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은사 스님이 종정 스님이란 점과 모두 총본산 구인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점이다. 천태종 승려로서의 서원이 세워지면 먼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내에 있는 총무원 인사국에서 입산상담을 하여야 한다. 입산을 하기 위해서는 ㉠ 독신의 신분 ㉡ 만 13세 ~ 40세 ㉢ 채무사항이 없는 자 ㉣ 범죄사항이 없는 자 ㉤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입산대기자로 등록이 되며 본격적으로 구인사에서 수행을 한다.

입산대기과정 동안 배식부(配食部) 혹은 농장(農場)에서 천태종 종정 스님의 입산허가(入山許可)가 날 때까지 대기를 하며 수행을 하게 된다. 입산허가가 내려지면 비로소 행자생활이 시작되는데 행자생활은 3년이 원칙이다. 낮에는 주로 대중식당의 공양준비, 경내청소, 농장생활 등의 수행을 하고 밤에는 염불의식 및 강원교육을 이수한다. 3년간의 행자생활을 마치면 천태종 종정 스님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출가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3 · 7일간의 수계교육을 받은 후, 수계식과 함께 은사인 천태종 종정 스님으로부터 법명(法名)과 도첩(度牒)과 계첩(戒牒) 그리고 가사와 법모를 받게 된다.



조계종 사미스님들이 승가고시를 보는 모습.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글 · 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

간경 입문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살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글 · 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3450 (예금주: 윤재승)

시(詩) 속에 소통·평화가 … 시 좀 읽으세요

동국 프라이드 지성 콘서트 세 번째 강연 – 신경림 시인

시(詩)로서 농민의 애환을 노래해 온 신경림 시인이 10월 4일 동국대 강단에 섰다. 동국대 프라이드 지성 콘서트 세 번째 강연으로 '동국과 문학인의 삶'을 주제로 마련된 강연에서 신경림 시인은 동국대 재학 시절 서정주 시인과 조지훈 시인과의 일화, 50년 넘은 시에 대한 철학과 젊은이들의 문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문학은 강연으로 나오지 않는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가장 듣고 싶은 강의가 서정주 시인과 조지훈 시인의 강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주 시인과 조지훈 시인은 1년에 2~3번 밖에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두 분은 항상 '문학은 강연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지훈 선생님은 강연보다 술을 마시며 제자들과 대화하기를 즐겼습니다. 문학은 선배가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속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문학은 폭력과 증오심을 없애

요즘 세상에는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시인대회에서의 일화입니다. 콜롬비아는 마약 문제, 내전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야외에서 시인들이 모임을 가지면 3000~4000명씩 군중이 모였습니다.

원래 세계시인대회가 열린 메데진 시는 거의 매일 밤 살인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폭력 사태 등은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인들이 모여 생명과 평화의 도시로 만들자는 대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매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시인대회를 열자 도시의 범죄율이 현격히 줄어 든 것입니다.

세 번째부터 대회는 콜롬비아 국가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브라질과 칠레 등 남미 차원으로 확대 개최됐습니다. 범죄율은 메들린시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전체에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이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미 전체에서 하나의 축제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 그리고 문학은 눈에 보일듯 보이지 않을 듯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은 시를 많이 읽습니까? 저는 몇 일 전 미당문학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심에서 올라온 작품 중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도 예선 통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다른 화법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통과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시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긴 설명이 아닌 짧은 말로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정주 '동천'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즈믄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 옮기어 심어 놨더니
동지 섣달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늉하며 비끼어 가네

짧은 시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무엇인가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통은 말로서만이 아닌 보이는 것, 느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자들, 평론가들은 입만 열면 '요즘 시집이 안팔린다, 문학의 위기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시집이 많이 팔리던 것은 아닙니다.

시인 백석은 시집을 300부 밖에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 서정주의 〈화사〉도 500부 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제 시집을 얘기하면 1973년 처음 시집을 냈는데 내준다는 출판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집을 내고 싶어 할 수 없이 자기 돈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500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평론 해주는 사람도 없고 신문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출판사 근무할 때 다른 시인들에게 보내면 시집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집을 많이 읽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상업 출판으로 시집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서정주 김광석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을 포함한 몇 몇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상황이 좋은 것입니다. 창조나, 민음사 같은 대형출판사에서 시집을 상업출판을 하고 몇 만부씩 나가는 시집이 십수종은 되니 안팔린다고 아우성 칠 것은 아닙니다.

시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예전처럼 시를 재밌게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시에서 소통을 더 중시한다면 시가 더 많이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설명이 아니다. 피부로 읽는다.

시를 읽으면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시는 설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면 시의 재미를 놓치고 맙니다. 시는 보여준다는 것, 산문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요즘 저는 시인들이 자꾸 설명을 하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이런말을 빼도 되는데 넣느냐'고 지적하면 대부분은 '독자들이 잘 모를까봐서'라고 답합니다.

모르는대로 맛이 있습니다.

다시 조지훈 시인의 강연으로 돌아가봅시다. 조지훈 시인은 항상 대학 강단에서 문학은 책읽는 습관만 붙이면 되는 것이지 교수가 많은 지식을 줄려고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을 통해 문학을 공부해서는 규모가 작은 시인 밖에 배출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그 길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의 힘을 기르기 위해

저는 학교 다닐 때 '갈대'라는 시를 통해 문단에 등장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등단하니 우쭐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시인으로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글 쓰는 것이 하잘 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는 6·25전쟁 직후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판국에 시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나라에서 젊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사회에서 국민들이 고통스런 삶을 사는데 그와 관계없는 시를 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는 회의감이 들었고 시를 쓰기가 싫어졌습니다.

그 무렵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봉암 사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통일하면 무력통일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청계천 고서점을 전전하며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이 당시 많이 체포됐습니다. 그 때 저는 '서울에 있으면 안되겠구나' 싶었습니다.

1956년에는 아침 점심 굶는 사람들이 허다 했습니다. 신문에 어디 어디서 굶어 죽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 할 수도 없었습니다.



북쪽은 여인이 팔려간 나라라는 시도 있습니다. 당시 딸을 낳아 시집을 잘보내는 것은 잘사는 집의 얘기였습니다. 왠만한 집은 '딸을 팔아서 굶어 죽지 않겠구나' 했습니다. 조 몇가마니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딸이 팔려서라도 가서 잘사는 집에 가야 굶어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시를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를 다시 쓴다면 처한 현실을 시 속에 담에서 무엇인가 우리 감정을 형상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시가 바로 '농무'입니다. 그 이후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시를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는 낭만을 주어야 한다.

조봉암 사건에서 1심을 담당한 유병진 법관의 얘기입니다. 이 법관은 당시 상황에서도 평화통일이 어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가 하며 조봉암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유 법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계엄법에서는 판결은 무죄, 15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4가지로만 됐을 정도입니다.

저는 시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죄악시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서 꿈을 주는 낙관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제 시대 시인들 재평가 되야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당시, 아니 그 전대의 시인들에 대한 평가도 새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진 법관은 6·25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총과 칼로 위협당해 일을 해도 무기징역을 받던 시기입니다. 당시를 살지 않고, 당시 삶을 모르고 그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미당 시인학교 교장을 맡았고 미당 문학상도 심사했습니다. 어떤 후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까지 이러시면 어떻합니까.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 일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고 말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친일시를 쓴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친일분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친일 행위 때문에 미당의 시까지 폐기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라는 것을 흑백논리로 본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다른 의미들을 음미하는데서 맛이 나옵니다. 당시 시인들에 대한 평가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경림 시인은…

신경림 시인은 1936년 4월 6일 충북 중원에서 태어났다. 1960년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재학 중이던 1955~1956년 〈문학예술〉에 이한직의 추천을 받아 시 '낮달' '갈대' '석상'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섰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으며 다시 서울로 올라와 현대문학사, 희문출판사, 동화출판사 등에서 편집일을 맡았다. 한때 절필하기도 했으나 1965년부터 다시 시를 창작했다. '원격지'(〈동국시집〉,1970), '산읍기행'(〈월간다리〉, 1972), '시제(詩祭)'(〈월간중앙〉, 1972) 등을 발표했다.

점차 초기 시에서 두드러진 관념적인 세계를 벗어나 막연하고 정체된 농촌이 아니라 핍박받는 농민들의 애환을 노래했다. 신경림 시인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공감대를 이루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1973년 제1회 만해문학상, 1981년 제8회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시집에는 〈새재〉(1979), 〈달넘세〉(1985), 〈남한강〉(1987), 〈우리들의 북〉(1988), 〈길〉(1990)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농촌현실과 농민문학〉(1972),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2), 〈역사와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1984), 〈민요기행〉(1985), 〈우리 시의 이해〉(1986) 등이 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안전과 사고예방 축원불공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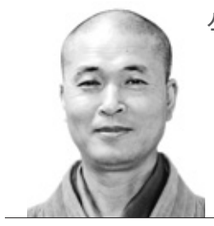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호신불

험한세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고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네모도 둥글음도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동쪽 벽에 표주박을 걸어놓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

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東壁上掛葫蘆多少時也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하려고 했던 뜻을 말한다. 즉, 선불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다. 예부터 선객들이 선사들에게 자주 묻던 방식이다. 선사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선의 뜻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선사의 대답은 화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이 질문 자체가 화두가 되기도 한다. 즉, 선객들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일까?" 하고 궁리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들고 정진하는 선객들이 간혹 선사를 방문하여 선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한다. 그때 답변하는 선사의 말끝에 마음이 화통하게 트이면 비로소 도(道)의 세계에 대해 전후좌우 훤하게 타통하게 되는 것이다.

"동쪽 벽에 표주박을 걸어놓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 라고 되묻는 말뜻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담겨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 납자가 평을 하자면, "뱀의 머리가 꼬리를 먹어들어 가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머리도 먹어버릴 날이 온다"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네모진 것도 둥근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다."
학승이 물었다.
"그럴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모이고, 둥글음이다."

問 方圓不就時如何 師云 不方不圓 云 與麼時如何 師云 是方是圓

여기 일직선이 하나 있다. 직선으로 있을 때는 네모진 것도 둥근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선이 조금만 휘어지면 둥근 것도 네모도 될 수 있다. 탁 펼치면 일직선이지만 휘면 네모이고 둥근 것이다.

만물도 마찬가지이다. 텅 빈 공에서 만물이 나오고 만물은 공으로 돌아간다. 우주는 빔과 만물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곧 빔이고, 빔이 곧 만물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근원'이라고 한다.

선(禪)은 언제나 근원을 가리킨다. 근원, 그것은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다. 마치 허공과 같이 텅 비어 고요하다. 만물, 만물은 길고 짧은 것이 있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으며, 부귀빈천이 있고, 늘어나고 줄어듦이 있다.

만물은 곧 공이다. 네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는 것은 곧 네모이고 둥근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같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마음은 언제나 평온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도인이 상견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칠그릇을 내놓는다."

問 道人相見時如何 師云 呈漆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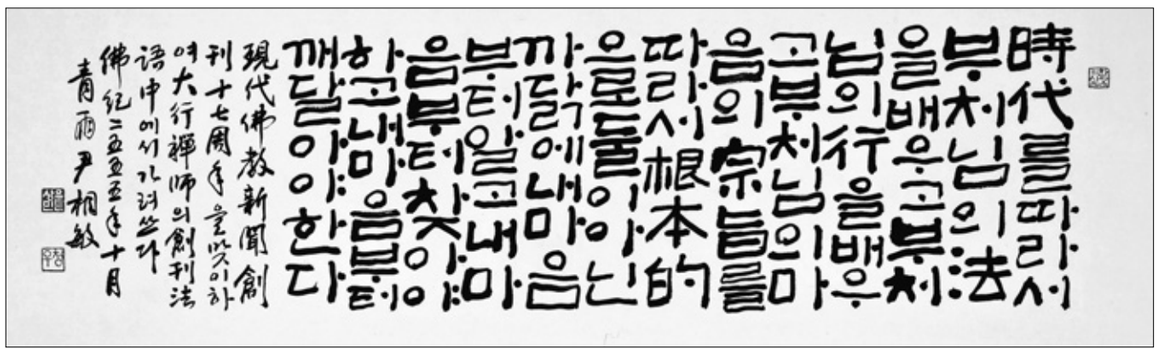
누가 도인(道人)인가? 부처의 길을 가는 자이다. 선(禪)은 사람이 곧 부처임을 철저히 자각시킨다. 선은 사람은 이미 부처라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조 마조 황벽 조주 임제 원오 대혜 스님 등은 누가 성불(成佛)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도인(道人)은 한번 깨닫고 바로 부처의 길을 가는 자이다.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고 곧 부처의 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이런 자를 조주 선사는 참 귀하게 여겼고, 이런 자는 대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도인에게는 마땅히 칠그릇은 내놓을 만하다고 했다. 옻칠한 그릇은 예나 지금이나 고귀한 그릇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걸출한 도인은 흔하지 않다. 대다수는 부처가 되려고 헛되이 기를 쓰고 있을 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대행 스님 법어



본 글은 대행 스님이 1994년 10월 2일 법형제회에서 설한 법문을 추린 글이다.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한국의 불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현대불교 신문을 출범시킨 뜻을 밝혔다.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시대를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마음의 종지(宗旨)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부터 알고 내 마음부터 찾아야하고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제17주년을 맞이하여 대행선사의 창간법어중에서 가려쓰다 불기이오오년 10월 청우 윤상민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해심밀경(解深密經)

퇴굴심 일 때는 자기 마음을 더 연마해야

유가유식에서는 전오식 곧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제육 의식, 제칠 말나식, 제팔 아뢰야식 곧 집착된 자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유가수행으로서 점차오입(漸次悟入)을 내세운다. 점차로 유식에 오입한다는 것은 제보살의 경우 식의 상(相)과 성(性)에 대하여 자량위의 계위에서는 깊이 신해하고, 가행위에서는 점차 소취와 능취를 없애고 진견(眞見)을 발생하며, 통달위에서는 여실하게 통달하고, 수습위에서는 소견(所見)의 도리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습하여 나머지 장애를 없애며, 구경위에서는 장애를 벗어나 원명하게 미래제가 다하도록 유정류를 제도하여 유정들을 다시 유식의 상과 성에 오입토록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자량위(資糧位)는 대승의 순해탈분(順解脫分)을 닦는 것인데 곧 지전의 주 · 행 · 회향의 30심에서 불도의 자량을 쌓아가는 지위이다. 여기에서 유정을 위하여 해탈을 추구하므로 순해탈분이라 말한다. 자량이란 보시바라밀로부터 선정바라밀에 이르는 복덕 및 반야바라밀에 이르는 지혜의 선근을 가리킨다. 때문에 자량위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닦아 지혜를 성(性)으로 삼는 것을 지(智)라 하고, 그 밖의 경우를 복(福)이라 한다.

유식에서는 제팔아뢰야식 등으로 자기 설정
유식에 오입육은 식의 상(相)·성(性)에 계합
'자량' 은 육바라밀 관통한 지혜의 선근 지칭

이 경우 물리쳐야 하는 잠재적인 번뇌 가운데 번뇌장은 변계소집을 실아로 집착하는 살가야견(薩迦耶見)을 무엇보다 최고의 것으로 삼는다. 곧 128의 근본번뇌와 그로부터 유추되는 모든 수번뇌(隨煩惱)인데, 이것은 모두 유정의 몸과 마음을 장애하여 열반을 장애하기 때문에 번뇌장이라 한다. 또한 소지장은 변계소집을 실법으로 집착하는 살가야견을 무엇보다 최고의 것으로 삼는다. 곧 견(見) · 의(疑) · 무명(無明) · 애(愛) · 에(恚) · 만(慢) 등인데, 이것은 소지(所知)의 경(境)과 무전도(無顚倒)의 성(性)을 뒤덮어 보리를 장애하기 때문에 소지장이라 한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삼종의 퇴굴심을 극복하는 수행을 한다.

곧 첫째는 무상정등보리는 광대하고 심원하다는 말을 듣고 곧 퇴굴심이 일어날 때는 이미 대보리를 터득한 사람을 찾아가 自心을 연마하고 용맹심으로 퇴굴하지 않는다.

둘째는 보시 등의 바라밀다 수행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퇴굴심이 일어날 때는 자기의 마음에 보시 등의 바라밀을 닦는 즐거움을 생각하여 自心을 연마하고 용맹심으로 퇴굴하지 않는다.

셋째는 제불의 원만한 전의(轉依)는 증득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퇴굴심이 일어날 때는 자기 마음을 더 연마하고 자심(自心)을 연마하고 용맹심으로 퇴굴하지 않는다.

가행위(加行位)는 대승의 순결택분(順決擇分)을 닦는 것인데 곧 30심의 끝에서 견도(見道)에 들어난(煖) · 정(頂) · 인(忍) · 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방편을 가행하는 지위이다. 여기에서 네 가지 심 · 사(尋 · 思) 및 네 가지 여실지(如實智)를 순결택분이라 하는데 결택분이란 깨친다는 뜻이다. 곧 진실한 결택분을 수순해 나아가서 견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행위라 말한다. 그리고 난 · 정 · 인 · 세제일법은 네 가지 심 · 사 및 네 가지 여실지에서 각각 초위와 후위에 위치한다. 네 가지 심 · 사는 명(名) · 의(義) · 자심(自心) · 차별(差別)로서 가(假)로는 있지만 실(實)로는 없다고 심 · 사하는 것이다. 바로 이 네 가지조차도 식(識)을 여의고 또 식도 유가 아닌 줄 아는 것을 여실지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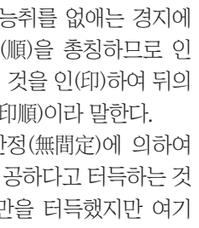
이 경우 사선근방편 곧 사정(四定)에서 난위(煖位)는 명득정(明得定)에 의하여 심 · 사를 내어 소취(所取)가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정위(頂位)는 명증정(明增定)에 의하여 심 · 사를 내어 소취가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인위(忍位)는 인순정(印順定)에 의하여 여실지를 내어 소취를 없애는 경지에서는 결정적으로 인지(印持)하고 또 능취를 없애는 경지에서는 인(忍)하여 인(印)과 순(順)을 총칭하므로 인(忍)이라 말한다. 이 경우 앞의 것을 인(印)하여 뒤의 것을 순(順)하기 때문에 인순(印順)이라 말한다.

세제일법(世第一法)은 무간정(無間定)에 의하여 여실지를 내어 능취와 소취가 공하다고 터득하는 것이다. 인위에서는 능취의 공만을 터득했지만 여기 세제일법에서는 이공을 모두 터득하여 반드시 찰나에 견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간이라 말한다.

통달위(通達位)는 제보살의 주처인 견도로서 십지의 각 지마다 입(入)과 주(住)와 출(出)의 3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초지의 입심에서 이공무아의 도리를 통달하는 지위 곧 견도이다. 통달위는 이론적으로 깨침에 통달한다는 뜻으로 근본무분별지의 세 가지 뜻을 아는 경지이다.

수습위(修習位)는 제보살의 주처인 수도(修道)인데 초지의 주심부터 제십지의 출심 곧 등각(等覺) 사이에서 거듭 묘관을 수습하여 나머지 장애를 끊는 지위 곧 수도이다. 수습위는 몸으로 깨침을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십지의 십승행을 터득하는데, 이 경우 십지는 모든 유위와 무위의 공덕을 섭수하여 자성으로 삼아서 수행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의지처가 되고 모든 것을 생장시키기 때문에 지(地)라고 말한다. 또한 십바라밀을 성취한다.

경위(究竟位)는 무상정등보리에 주하는 것으로 곧 구경에 단흑증리(斷惑證理)하는 지위로서 무학도(無學道)이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성취의 옷



침향은 향중의 향, 부처님의 향으로 알려지며, 한의학적으로도 유명하고
중생제도로서 탁월한 수행자의 하늘이 내린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기를 발해 몸 속의 나쁜 기를 내려주고 막힌 곳을 뚫어준다.
또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며,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학업자, 사업자, 참선과 수행으로 성불할 수 있다.

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 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스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 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소원 성취 하십시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에 쓰여집니다.

성불하십시오.

우 능 사 031)898-5698 / 010-2589-7280

대학입시 수능시험합격 발원 *보시금 : 95,000원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 우능사] / 부처님 전에 축원하여 발송합니다.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네이버,다음 에서 '초록원웰빙'을 검색하세요.

오보일기五步一記,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적곤 하셨어요

"지난 해 봄, YTN자막에 법정 스님께서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자막이 흐르더군요. 어이쿠, 스님께서 위중하시구나 싶어 알아보니까 건강하시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백련불교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일성이었다.

법정 스님은 따르던 문학소녀나 불자 여학생들이 출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내면 성철 스님 따님인 불필스님에게 보냈다. 그 인연으로 출가한 불필스님 상좌 가운데 한 분이 때마침 연락이 왔다. 법정 스님 병환이 깊으신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님은 문병을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원택 스님은 그렇지 않아도 병문안을 가겠다고 하니까 곧 퇴원하신다면서 오지 말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그 스님이 당시 길상사 주지 덕현스님에게 다리를 놓아 병문안을 드렸다. 원택 스님이네. 오랜만이라고 말씀을 꺼낸 법정 스님, 불필스님에게 내가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아픈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간 비구니스님에게 불필스님을 잘 모시라고 일렀다. "그날따라 말씀이 또렷또렷하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마음 같아선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다 나오고 싶었지만, 노쇠한 모습이 역력하셔서 인사만 드리고 십여 분이 채 못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법정은 펜대를 꼿꼿이 세우는 사람

법정 스님이 해인사에 강주로 계실 때,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방장이 되시고 나서, 3000배를 시켰다. 한여름, 대학생 몇 백 명이 법당에서 절을 하느라 흘린 땀으로 남·여학생들 옷이 몸에 달라붙어 보기 민망스러웠다. 법정 스님은 예배(禮拜)란 간절함이 우러나와 공손하고 진중해야 하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게 하는 절을 비판하고, 진정한 참회와 예배가 지닌 뜻을 되새기는 글을 '굴신운동'이란 제목으로 1968년 불교신문에 실었다. 성철 스님은 그 글을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내색도 없으셨고, 주지스님도 별말씀 없었는데, 혈기 넘치는 젊은 스님들이 법정 스님이 바깥나들이가신 뒤 스님 방에 있던 물건을 치워버렸다. 두말없이 해인사를 떠난 법정 스님. 뒷날 봉은사에서 만난 성철 스님 상좌인 원정스님을 흔연히 대해 주며, 잘못도 감싸주었다. 성철 스님 역시 법정 스님을 일러 "법정은 펜대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다.

성철 스님이 떠나시고 오랜 세월 스승 뜻을 잇는 일에 동분서주하던 원택 스님은 몇 해 전,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해 오래도록 병원살이를 했다. 병석을 털고 일어나면서 문득, 오래 전 큰스님 심부름으로 〈본지풍광〉과 〈선문정로〉 원고 윤문을 부탁하러 불일암으로 법정 스님을 찾아갔던 인연이 지금까지 삶을 이끌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큰스님 유지를 받드는 일을 한다며 스님 그늘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모든 바탕이, 그날 불일암 심부름에서 결정되어 버렸다는 생각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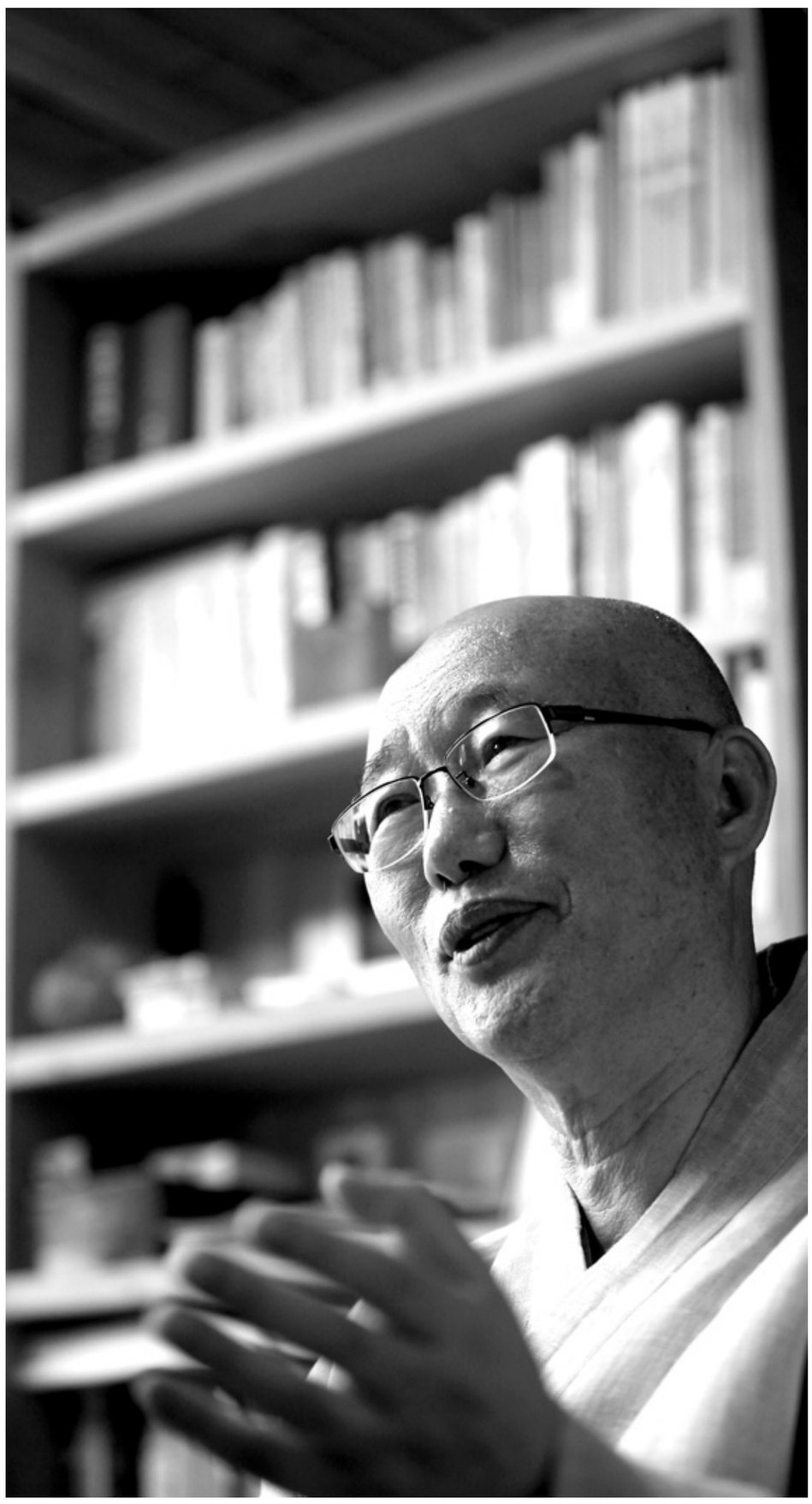
성철 스님은 원택 스님에게 우리나라에서 한글은 법정 스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윤문(潤文) 좀 씨 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법정 스님 뜻을 받들라고 일렀다. "법정 스님께서 원고를 보시더니만 '스님께서 소중한 당신 책을 내게 보라고 보내셨으니까, 어른을 모시는 뜻에서 살펴보마. 어미하나까지도 어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내 글처럼 쉽사리 고치지는 않겠다.' 면서 같이 원고를 보자고 하셨어요." 한 열흘쯤 걸려서 초벌 읽기를 끝내고 나서 법정 스님이 이래선 안 되겠다고 말씀했다. 2~30분 간격으로 찾아오는 불자들 때문에 집중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 그래서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법정 스님을 모시고 두어 달 만에 원고 검토를 끝냈다. 집중해서 며칠, 눈이 빠지게 글을 들여다보던 법정 스님은 바람이나 좀 쐬자며 가끔 바깥나들이를 했다. "스님을 모시고 나가면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주머니에서 메모지와 연필을 꺼내서 뭘 적고, 말씀하시다가도 또 적곤 하셨어요. 마치 삼보일배(三步一拜)하듯이 오보일기(五步一記)를 하셨죠. 방안에서 글을 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다니시면 어김없이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적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한글과 한자를 섞은 퓨전 사자성어가 '적자生存'이다.

운문하기를 삼보일배하듯 경건한 법정 스님
큰스님 빨간펜에 '오자도 활자'라며 웃음

조계종 체면 세워준다 늘 말씀
성철 큰스님도 글하면 '법정'

책을 돈 받고 팔아?
책은 법공양이야. 이놈아!

윤문을 마치고 출간을 준비하면서 법정 스님은 우리 불교 출판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까닭은 법공양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 책이라도 정가를 붙여서 시중에 내지 않고 법공양만 하고 마니까, 책이 나와도 절 안에서만 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성철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법공양을 하지 마시고 시중서점에 내 놓도록 하라고 일렀다. "스님 책을 정가 붙여 서점에 내놔야 만이 다른 스님들도 용기를 내어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역정을 내시더라도 불교계 앞날을 위해 원택 스님이 꼭 성취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철 스님은 법정 스님 걱정대로 "책을 돈 받고 팔아? 책은 법공양이야. 이놈아! 우리 절집 전통을 무시해? 책은 내 돈으로 찍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이놈아! 그런데 내 책에다가 정가를 붙여? 이 나쁜 놈!"하고 퍼부어댔다. 그렇게 한참 꾸지람을 듣고 나서 법정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다. 다 듣고 난 법정 스님은 법공양이 가장 좋긴 한데, 책 낼 때마다 누군가는 돈을 내서 찍어야 한다. 그런데 정가를 붙여서 서점에 내보내서 안 팔리면 절판이지만, 잘 팔리면 십년이고 백년이고 팔리는 날까지 그 책이 살아있지 않느냐. 독자들이 자꾸 찾으면 무한재생산이 된다며 다시 잘 말씀드려보라고 했다. 고지식한 원택 스님은 "법정 스님 말씀이 법공양을 하면 그때 반짝하고 사라질 뿐이지만, 가격붙인 책이 잘 나가면 영원히 물이 샘솟는 샘물처럼 된답니다."고 말씀드렸다. 처음엔 '시끄러워 이놈아!' 하시더니, 해거름에 '법정이 진짜 그라더나?' 하고 물으셨다. "큰스님께서는 법정 스님이 우리 조계종 체면을 세워주고 산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 믿음이 계셨기에 당신 뜻을 꺾고 허락하셨지요.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도 스님 글이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볕씨 한 톨이 땅에 떨어져 썩는 일이 되풀이되면 수없이 늘어나지만, 그대로 있으면 한 톨로 머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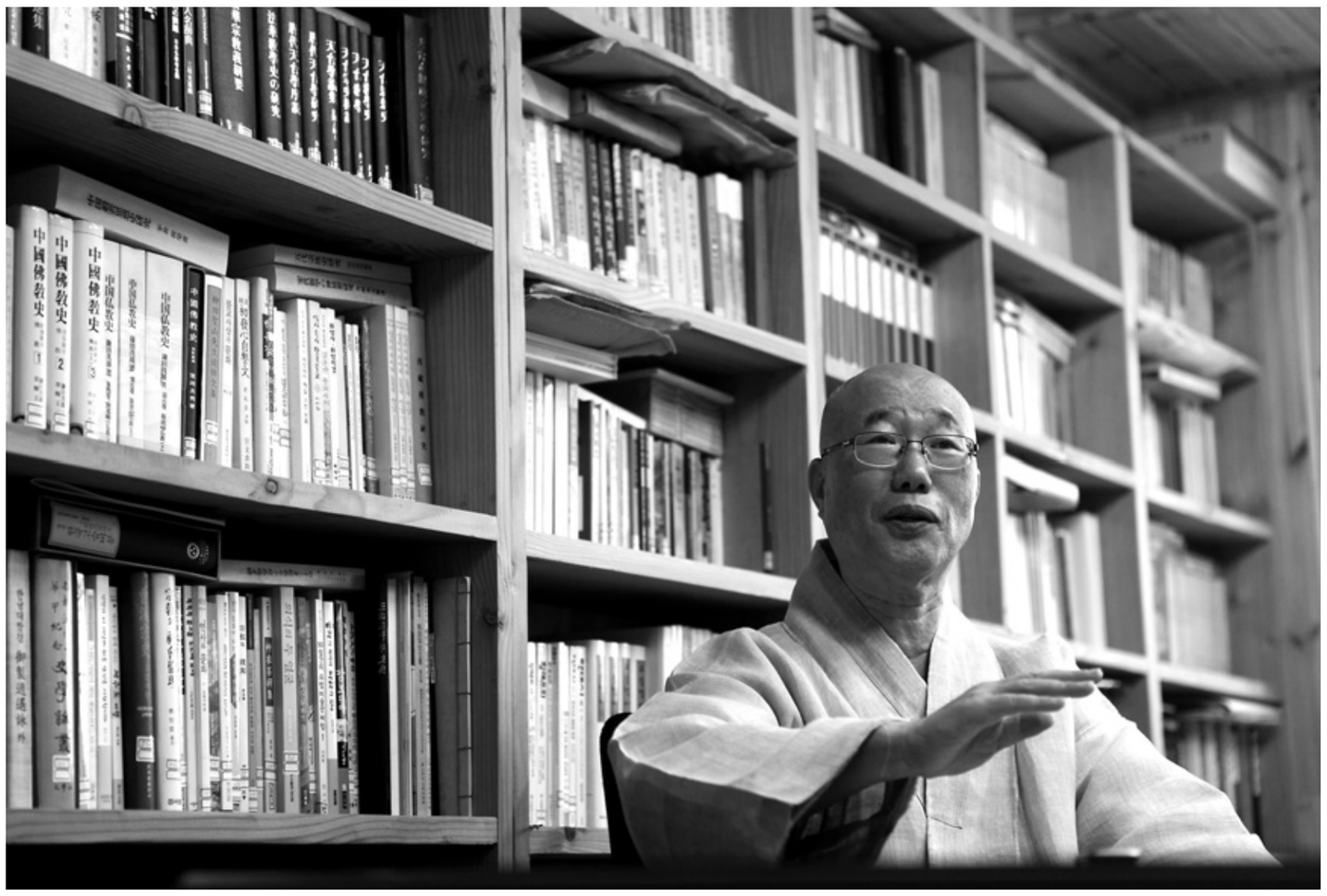
그렇게 〈선문정로〉와 〈본지풍광〉이 세상 빛을 봤다. "스님께 갖다 드리니 '오자誤字 없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수도 없이 보시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없다고 했죠. 두 시간도 못 돼 찾으셔서 문을 여니까 책 두 권이 날아와요. 페이지마다 뻘겋게 표시해 놓으셨더라고요." 다급해진 원택 스님은 법정 스님께 전화를 드렸다. 법정 스님 대답이 걸작이다. 그러니까 '살 활' 자, 활자活字가 아니냐. 내 책도 적어도 3쇄는 내야 오자를 다 잡는다면서 한가하게 웃으셨다. "제가 첫판에 만권을 찍자고 말씀드렸더니, 법정 스님께서 오자가 나오니까 처음에 한 2,000권만 찍으라고 하셨어요. 2,000권 찍었으니까 망정이지…"

책 내는 일을 거들었던 힘이
운명 줄기를 이뤘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제 팔자도 거기서 끝일 텐데…" 열반에 드신 구산스님 49제에 참석했던 원택 스님,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탔다. 마침 옆자리에 구산스님 상좌 현호 스님이 앉았다. 원택 스님은 현호 스님에게 큰스님 시자로서, 스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무엇이 가장 섭섭하고 아쉬웠는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때 현호 스님은 스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록을 못 내드린 일이 얼마나 한이 되는지 모른다. 내 방 네모 궤짝 안에 스님 법문 테이프나 원고가 그득한데, 살아계실 때 〈Nine Mountain〉이란 영어로 된 책을 내고는 정작 한글로 된 책은 한 권도 내지 못했다.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책을 내야겠다고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걱정이 앞서서 글이 써지지 않는다. 금강경 강설 예를 든다면 학자들이 번역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큰스님께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이 구절은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하신 부분도 많더라. 법상에서 들을 때는 우리 스님이 어련하시지 했는데, 막상 스







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혹시라도 시비에 휘말리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때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백일 법문을 녹취해놓고 있었다. "저 혼자 보려고 그랬어요. 책을 내려는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었는데, 현호 스님 말씀을 듣고는 '책을 내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선문정로〉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돈오돈수 · 돈오점수 논쟁이 일었다. 궁리 끝에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께 가지고 계시는 책 가운데 돈오돈수에 관한 책을 몇 십 권 골라 번역해내자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선어록 〈선림고경총서〉 37권이다.

"법정 스님을 의지해서 〈선문정로〉나 〈본지풍광〉을 내보지 않았더라면, 스님 살아생전에 책을 내드리지 못한 일이 가장 안타까웠다는 현호 스님 말씀을 들었을 때나, 돈오돈수 · 돈오점수 논쟁이 일었을 때 큰스님께 선어록을 번역해 내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선뜻 책을 내자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요. 큰스님 책을 내는 일을 거들었던 그 힘이, 뒤에 큰스님 곁에 저를 있게 만든 큰 운명 줄기를 이뤘습니다." 〈선림고경총서〉 37권, 〈성철 스님 법어집〉 11권을 다 내고 1993년 10월 8일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같은 해 11월 4일,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드셨다.

원택 스님은 법정 스님 떠나시고 난 뒤, 평생 무소유를 말씀한 어른이니 뒷사람들은 무소유 정신이 무엇인지 천명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스님 정신을 따른다면서 자취를 지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일침을 놓는다. 정채봉 동화작가 문학관과 이어지는 정채봉 길이 있는데 순천시에서 법정 스님 무소유 길을 만들어서 그 길과 연결시키겠다고 했다. 송광사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원택 스님. 스님을 추모하는 정이 있을 때 뭐든지 하겠다면 빨리빨리 해야지. 다 식은 다음에 하려고 들어봐라. 관청이고 신도들이고 누가 도와주나. 어찌 그렇게 현실감각이 없느냐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해도, 원택이 니나 하라는 핀잔만 잔뜩 들었다.

무소유 정신이 무엇인지 천명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

법공양 말곤 없는 큰스님 설득해 정가 붙여
법정 스님 인연 바탕, 큰스님사상 선양으로

"저희 큰스님 가신 뒤에도 중은 가면 그만인데 뭐하러 자취를 남기느냐. 참 도인이 떠나고 나면 자취 없음으로 선사 가풍이 살아나지.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널브러뜨려 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질없다고 아무 것도 안 하면 뒷날 무엇으로 스님을 기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리탑을 세우고 생가를 복원하고, 스님 사상을 글로 옮겨 남기지 않다면 어땠을까요? 모자라는 대로 스님 사상 학술회의를 20년 넘게 이어온 까닭도 스님을 모시는 큰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스님 탄신(誕辰) 100주년을 맞아 올해 3월부터 석 달에 한 차례씩 학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스님 열반 20주기여서 3년 동안 스님사상을 정리를 해보려는 생각으로."

세 해 동안 이어지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은 해마다 3월, 5월, 9월, 11월 한 해에 네 번, 모두 열두 차례 열린다. 올해 포럼 주제는 '퇴옹성철과 현대 한국불교', 내년 주제는 '퇴옹성철과 돈오돈수(頓悟頓修)', 열반 20주기를 맞는 2013년 주제는 '퇴옹성철과 한국불교 미래'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불교를 일으켜 세운 큰어른 탄신 100주년 행사가 종단 차원에서 치러지지 못하고 문중에서 다루는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 그래도 원택 스님은 늘 한걸음, 한걸음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딘다. 스승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행사 준비로 바쁜 가운데 성철 스님 백일 법문을 쉬운 우리말로 다시 풀어쓰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 말씀을 모아 전했기에, 열반에 드신 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소크라테스 가르침 바탕에서 자기성찰을 이룰 수 있음도 플라톤이 스승 사상을 적바림해 남겼기 때문이고, 육조 혜능스님 말씀에서 선불교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까닭 또한 뒷사람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누굴 탓하고 원망하는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며칠 전 소생하기 어렵다는 암 환자들의 인터뷰를 보았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하여 병원 문을 나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무거운 삶의 여장을 풀어 놓았다. 그리고 나무와 대화를 하고 연약한 초목과 속삭였으며 계곡의 물소리에 취해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윤활유를 듬뿍 부어놓은 듯 한 하늘가에 덧없이 흘러가는 뭉게구름에서 건강했던 날의 추억이 구름 보다 몇 배나 빠르게 맴돌고 갔다. 철따라 갈아입는 산색은 다툼이 없다는 이치도 재차 확인했다.

아마 그들은 긍정의 철학을 자연에서 몸소 늦게나마 체득한 듯하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애쓰다 보면 육신에 무리가 가기 마련이고 정신세계에도 균형을 잃기 마련이다. 몸속의 휴식 없는 세포는 자신의 위치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리듬이 깨져 질서의 파괴가 오기 마련이다. 평소에 우리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있는가 하면 불만의 에너지, 부정의 에너지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병에 걸리기가 쉽다.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물체를 자석이라고 한다. 이 자석은 내구성으로 분류하면 영구자석과 일시자석으로 나누어진다. 천연적으로는 자철광(磁鐵鑛)이 있다. 인공적으로는 강철을 자기화하여 만들기도 한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인공적인 자석은 그 기능을 다하고 나면 별반 쓸모가 없어지고 만다.

근기(根機)라는 말이 있다. 범어로 Indriya 라고 한다. 근이란 뿌리를 말한다.

뿌리는 생명의 근원으로 줄기와 잎 열매를 지탱해 주는 원천이 된다. 만약 뿌리가 부실하면 잎과 열매는 순간에 기력을 잃고 말 것이다. 인드리야는 Indra에서 나온 말이다. 인드라는 우주를 창조한 브라마와 우주를 유지시키는 비쉬누 그리고 창조된 우주를 파괴시키는 시바를 거느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은 근기가 없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염려하기도 한다.

반면에 그는 상근기라서 능히 그 일을 거뜬히 해낼 것이라고도 한다.

소크라테스는 "배운다는 것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러기에 과거세에 익힌 글이 신속하게 터득되는 사람도 있고 익혔던 기술이 쉬 손에 익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 검술을 좋아하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용을 잡을 수 있다는 도룡검법(屠龍劍法)을 가르치는 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천리길을 멀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검술을 익혔다. 이제는 다 익혔다고 만면에 흡족한 웃음을 머금고 익힌 검법을 시험하고자 용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용을 볼 수가 없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혹시 용을 본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글쎄요, 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본적은 없소이다." 결국 그는 도룡검법을 한 번도 써 먹을 수가 없었다.

세상일이란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면 다 될 것 같지만 영 딴판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월을 잃고 헛되이 힘만 소진하는 경우가 되고 마는 일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는 업보중생이란 말을 흔히 쓰고 있다. 업(業)이란 행위를 말하는데 누가 가져다준다거나 떠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짓는 행위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상황을 탓할 일도 전혀 아니다. 오직 자기가 짓고 자기가 과보를 받을 뿐이다. 어떤 이가 선업을 지었는데도 이렇게 찌들리게 살고 있는 현실에 답답해하는 경우를 본다.

근기가 부실하면 열매도 없다
헛된 힘 쏟기보다 마음 챙겨야
깨침도 한순간, 행 · 불행도 한순간

반면에 어떤 경우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인데도 호화호식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장탄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자전거 페달을 힘껏 돌리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멈추게 된다.

선이나 악업도 각각 멈추는 시기가 있다. 멈추었을 때를 과보를 받는 시기라 보면 된다. 바퀴가 돌고 있는 모양만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이다.

현대의학에서 DNA의 무게를 밝혀냈다. 60억 인구의 DNA 무게가 쌀 한 톨의 무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가벼운 유전인자가 각기 다른 인간 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실로 무서운 에너지가 아닐 수 없다. 선(禪)에서 한 생각이란 말을 자주 쓴다. 깨침도 한 생각 한 찰나의 일이고 행과 불행도 한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편차를 가져온다. 그러니 마음을 잡도리를 잘 하지 않으면 생각 생각은 요동치기 마련이다. 항상 마음을 챙기는 사람은 위의가 있고 그 기풍이 남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미얀마 연방 공화국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대표부 승격
한국주재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승격
MINISTRY OF HOTELS & TOURISM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새 롭 게 태 어 났 습 니 다

한국에서의 단 하나밖에 없는 미얀마 관광청과 문화원 대표부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관광청 장관과 문화부 장관의 인정서를 받고 보니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얀마 문화를 알리는 양국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얀마 연방 공화국 호텔 및 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신축의 상담을 비롯하여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의 개척 으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성스러운 곳이 많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전국 각종단과 불교 단체 큰스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성지순례에 따른
설명회와 각종 불교 행사 및 봉사활동, 인간방생 법회 등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설명회를 자주 가지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열락주시면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성실하게 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문화원 : 02)733-5665. 관광청 : 02)733-5670 팩스 : 02)733-5671

타 단체 및 여행사에서 한국내에서 미얀마 관광청 및 관관청 대표부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구도자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 범망경 –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전 종도의 이름으로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 총무원 152-052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본조계종

원로원 **용담. 대봉. 지연. 혜암**
종 정 **회암** 승정원장 **현산**

총무원장 **융호** 부총무원장 **산소**

감찰원장 **덕인** 교육원장 **혜견** 포교원장 **청담** 문화원장 **법성**
고시원장 **기산** 법규원장 **혜산** 중앙선원장 **보륜** 감사원장 **현호**
법사원장 **현성** 법사단부원장 **마생**

중앙종회부의장 **진성**
중앙종회의원 **묘건 대공 대안 혜철 중무 혜운 법묵 혜암 신장 장명 무진 현진 불광 고운 지현 여진 무경**

총무부장 **자운**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제오** 복지부장 **덕화** 규정부장 **무상**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보광** 조직부장 **도경** 재무부장 **대도** 포교부장 **성보**

서울북부교구원장 **청담** 서울남교구원장 **자운** 서울금천교구원장 **무경** 서울서교구원장 **도경**
경기교구원장 **법묵** 경기하남교구원장 **장명** 강원교구원장 **보륜** 부산교구원장 **대안** 대구교구원장 **중무**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신장** 대전교구원장 **혜철**

고문변호사 **김진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수 스님**

■ 서울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7 팩스 02)2201-1163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종무법인 禪農敎團

우리불교 曺溪宗

종 정 **弘山 玄佛(현불)**

종 도 일 동

■ 총본산 : 수월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사무국 070-8843-7620 / 팩스 041)943-7620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非營利宗敎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달오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정봉 부원장 대월
감찰원장 정법 부원장 범수
포교원장 대오 부원장 지영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혜도 부의장 범수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대광
사무처장 소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법수 소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인천교구종무원장 혜도
통영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대도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용안(정원수)법사, 부회장 신우연 법사

총무부장 연아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대광 사회부장 범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혜연 범수 조향 각오 혜인 혜도 대오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숙식제공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번지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9 사무장 010-8548-8608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평생전화 1577-0408
한글홈페이지 네이버 대원종 또는 DW108.com / E메일 asp8990@hanmail.net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이혜공** 사서 **강지영**
부종정 **김혜승**
승 정 **향운. 은곡. 인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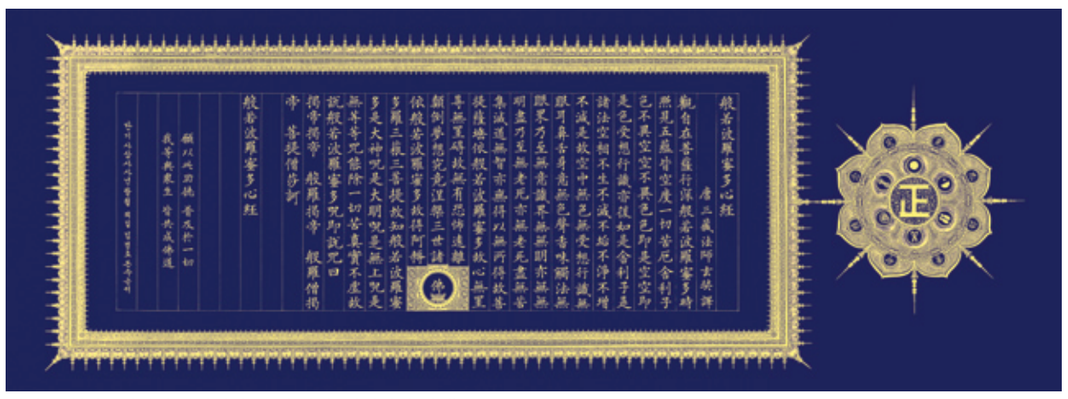
총무원장 **진봉** 부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부의장 **지민**
사정원장 **지운** 부원장 **지법**

교육원장 **명산** 포교원장 **명재** 문화원장 **지향** 수선원장 **지심** 부원장 **지화** 부원장 **도희** 부원장 **성희**

총무부장 **보명** 재무부장 **일선** 교무부장 **혜송** 규정부장 **혜산** 사회부장 **지허**
총무국장 **자원** 재무국장 **성우** 교무국장 **혜암** 규정국장 **혜관** 사회국장 **도일**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충주시 교현 2동 539-21 우암정사 / 전화 0502)321-3333 / 팩스 02)937-0344


감지금니(전통사경과 성경사경, 코란 사경, 만다라의 대화)


천부경 만다라(자지금니, 석채, 채묵)

전통사경이 성경과 코란을 만났을 때

대장경 축전서 김경호 선생, 금사경 초대전 11월 6일까지

1㎜속에 우주를 담아내는 사경(寫經)의 일인자 외길 김경호 회장이 한국 전통사경의 한류를 위해 성경·코란·만다라를 한 폭에 담았다.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회장은 초조대장경 1000주년을 맞아 11월 6일까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열리는 합천 해인사 주행사장 지식문명관에서 '금사경 초대전'을 연다.

전시에서는 주작품인 '감지금니(전통사경과 성경·코란사경, 만다라의 대화1)'를 비롯한 20여 작품이 선보인다.

주작품 '감지금니(이하 생략)'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양식이다. 전통 사경 양식의 바탕위에 성경사경과 코란사경, 그리고 만다라를 적극 담아냈다.

"1000년 뒤 후손들에게 21세기 여러 종교 사경의 최상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새로운 양식의 사경작품으로 발전시켜 물려주고 싶습니다."

전통사경의 세계화가 화두인 김경호 회장은 오래전부터 성경·코란 등 외국의 사경을 연구해왔다. 이들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작할 때 세계 최고의 대장경 문화예술로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시에서는 전통사경을 발전시킨 작품인 '감지금니(일불일자 화엄경 약찬게)'와 새로운 재료인 순금박지에 사경한 '한글·한문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볼 수 있다.

사경은 17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불교의 수행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세계 최초로 인쇄술을 개발케 한 연원이었다는 점과 불교 전래국 중 최상의 위치를 점했던 분야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예술이기도 하다.

사경의 역사는 1700년
전통사경 세계화가 목표

김 회장은 "사경은 일반 서예작품이나 불화에 비해서도 수백배의 공력이 더 든다"며 "인욕과 선정, 정진의 수행 그 자체"라고 말한다.

사경을 할 때는 재료 준비와 작품 마무리에도 지극 정성이 필요하다. 아교를 중탕해서 녹이고 아교물을 종이에 발라 말린 다음 다시 바르고 말리기를 세 차례, 금가루 은가루를 여러 번 정제하고 수시로 붓을 세척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경을 마치면 표면을 문질러 광을 낸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발색이 탁해져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김 회장은 이번 전시에 '전통의 계승과 재창조'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대장경 천년을 기념하는 모든 전시가 과거 대장경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한국사경연구회원전은 현재 사경수행을 하는 회원들의 전시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 회장은 대장경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경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경을 판각하려면 먼저 사경(판하본)이 있어야 하므로 사경은 목판대장경을 있게 한 근본이며, 곧 세계 최초의 목판활자이든, 금속활자이든 사경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점에서 사경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나은 기자

조선시대 초상화 다 모였네

국립중앙博, 11월 6일까지 '초상화의 비밀'


이명기의 '서직수 초상'


페터르 파울 루벤스의 '한 복입은 사람'

한국의 美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조선시대 초상화 명작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11월 6일까지 기획특별전 '초상화의 비밀'에서 '태조어진' '윤두서자화상'과 같이 잘 알려진 초상화를 비롯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이명기, 김홍도, 박동보, 채용신 등 당대 최고라 불린 대가들의 국보급 초상화들을 대거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유럽의 초상화까지 망라하는 국제적 시야에서 조선시대 초상화를 조망하는 최초의 전시이다. 또한 200여 점에 달하는 전시규모는 국내 초상화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특별전은 초상화 발전의 중심 공간이었던 왕실 내 통치자의 면모와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에 기반을 둔 군신관계와 사대부 가문의 초상을 살펴보는 1, 2부로 시작된다.

3부와 4부에서는 공식적인 초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성과 존재감을 반영하는 일상생활 속 초상화, 사진 도입으로 초상화가 전통으로부터 쇠락해 가는 양상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시대 최고 초상화가로 손꼽히는 이명기와 바로크의 거장 페터르 파울 루벤스의 초상화 대결이다.

임진왜란때 왜군에 포로로 끌려간 안토니오 꼬레아로 널리 알려진 초상 속 인물이 네덜란드 스펙스 무역관장에게 발탁된 조선의 전직 관리였음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가 초상화에서 입었던 철릭과 함께, 조선 최고의 초상화가로 불리우는 이명기의 '서직수 초상'을 비교 전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절제된 조선의 초상화는 '터럭 한올'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형상의 진실성을 통해 내면의 혼과 인격을 드러내고자 했던 점에서 시각적 사실주의를 추구한 서구의 초상화 일반을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02)2077-9000 이나은 기자

"깡통 찰 일 왜하냐고 남들이 묻네요"

20여 년 불교극작품 만든 연극인 정광진 대표


이 뭣꼬의 주인공 정선우이자 무명 스님(강태기 분)의 리허설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어차피 깡통 찰 일을 뭣 하러 해?"

불교를 소재로 많은 극작품을 무대에 올린 극작가 정광진 대표(J&C 코리아뮤지컬 컴퍼니)는 포스터를 들고 연극을 홍보하러 다닐 때면 늘 이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스님이든 일반신도이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불교연극'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반응들이다.

연극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예술이기도 하지만 가장 수지가 맞지 않는 예술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불교연극은 외면당하기 딱 좋다. 잘 만들어졌든, 아니든 불자들조차 무관심이다.

정광진 대표는 이에 아랑곳 않고 20여 년간 불교 극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몰두 해왔다.

"한국 불교가 쇠퇴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신도들은 고령화 돼가지, 불교문화예술은 뒷전이지, 불교문화예술분야가 활발해져야 젊은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포교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활동이 포교라 생각하는 정 대표의 불교 인연은 각별하다.

어릴 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가곤 했던 정 대표는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로 상경, 1968년 신상옥 감독이 설립한 '신필름영화예술학교(現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해 연기공부에 몰두했다. 어머니께서는 도시에서 유학중인 아들에게 "절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늘 했지만 정 대표에게는 와 닿지 않았다.

이후 정 대표는 20대 젊은 나이에 부인과 사별하고 49재를 지내기 위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불교 공부에 푹 빠졌다.

"그때는 불교공부를 많이 했다고 착각했어요."

정 대표는 2000년대 초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수광사 혜원 스님,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등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이 불교에 눈을 떴다.

그 때 처음 쓴 것이 창작 불교뮤지컬 '오 부처님!'이다.

"왠지 모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사비를 들여 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 출가 고행 오도의 과정을 담은 첫 창작 뮤지컬이어서 반응도 좋았지만 손해를 많이 봤죠.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처님오신날만 되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정광진 J&C 코리아 뮤지컬 컴퍼니 대표

이렇게 해서 정광진 대표는 '오! 부처님'을 비롯해 '바람아! 구름아!' '고향으로 가는길' '한국의 사계절' '소리찾아 팔도유람' '연극 갓바위' '태평성대' '가야의 혼 우륵' '산따라 물따라' '뮤지컬 갓바위' '월광태자' '무애가' '일연선사' '한바탕 꿈인것을' 등 불교전문 창작극과 뮤지컬 작품을 만들어왔다.

이번에 정광진 대표는 그동안 알듯 말 듯 공부해온 불교를 최근작품인 연극 '이 뭣꼬!'에 담았다.

특히 불교와 참선이 스님들을 위한 것이 아닌 사부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표현하려 했다.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 법조인이 가족과의 이별로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를 구하는 줄거리가 그러하다.

보육원에서 자란 주인공 정선우(강태기 분)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간 여행에서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다. 그 상실감에 판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목숨을 끊으려던 찰나 바닷가 암자의 대오 스님(박경득 분)에 발견된 후 무명 스님으로 출가를 한다.

연극에서는 어릴 적 생모(生母)와의 이별, 부인과 딸의 사별로 삶의 의지를 상실한 정선우와 무명 스님의 애별리고(愛別離苦)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납골당 화장장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시신들을 받는 화부와 노시인의 대화를 통해 생과 사의 덧없음을 느낄 수 있다.

불교라는 바다에는 소재가 무궁무진하다고 공감하는 예술가들은 많다. 하지만 그것을 건져올려 무대에 올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허탈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을 정광진 대표는 재산을 탕진하다시피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래서 그의 최근작 '이 뭣꼬!'가 은퇴작이지만 미련이 많이 남는단다.

"'이 뭣꼬!'를 마무리 짓고 조용한 곳에 내려가 불교에 대한 시나리오, 드라마, 희곡 등을 쓸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배운 불교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생사는 자유자재해서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한 시간 사십 분짜리 연극에 담아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저 이 연극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공연은 전석 3만원이며 평일 오후 7시 30분(월요일 휴무),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02)764-5073 이나은 기자

www.gounsa.net

제4회 고운사

천년솔향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 : 2011년 10월 29일(토) 오전 9시 30분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대상 : 경북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접수 : 2011년 10월 25일(화)까지
이메일 gounsa44@hanmail.net , 팩스 054)834-6935
문의 : 054)834-6934

주최 _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후원 _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의성. 교육지원청. 의성군청. (주)세영건설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 (8월 1일 ~ 10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10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

윤남진 Review

길을 가봐야 길 가는 어려움을 아나니



옥중에 자유인 머물다
호치민 지음
김상일 옮김
사람생각 | 2000. 10

이 책의 원제는 '옥중일기'다.

호치민이 장개석의 도움을 받고자 중국에 갔다가 오히려 국민당 지역군벌에게 잡혀 약 1년간 베트남 접경지역의 18개 감옥을 전전하던 때에 쓴 시를 모아 놓은 것이다.

베트남 하면 비록 우리가 베트남에 고통을 준 파병국이지만, 왠지 중국과 한국의 역사처럼 중국과 베트남의 역사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데서 나오는 일종의 피해자 연대의식이 느껴지기도 한다.

더구나 독자들은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이 〈목민심서〉 등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문집을 읽고 감명을 받아 다산 선생의 기일이 되면 묵념을 올렸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된다면 묘한 심경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다정하면서도 냉철한 현실주의자.

어느 유명 인터넷서점에서 이 옥중시의 저자인 호치민에 대해 소개해 놓은 긴 글의 마지막 평가가 그렇다. 이런 평가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베트남인들은 그를 '호 아저씨(할아버지)'라고 부르길 좋아했고, 강대국 특히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그들 사이를 중재하기 조차하는 노련한 외교를 펼쳐 그 두 나라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무력을 철저히 준비하긴 하였지만 끈질기고 유연한 협상에 많은 정열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의 시는 어떨까?

물론 그는 중국 전통시 선집을 읽고 쓴 시[看〈千家詩〉有感]에서 "현대시는 응당 강철이 들어 있어야 하고 / 시인 또한 적진으로 돌진해야 하리라"고 하여, 다산 선생이 "시란 모름지기 시대에 대한 비평과 애민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한 것과 유사한 참여적 시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 옥중시는 강철 같기보다는 활과 같고, 저돌적이기 보다는 유장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는 만약 중국의 루신(노신)이 같은 상황에서 옥중시를 썼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다.

루신은 어디선가-그의 제자이자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도망칠 나무조차 없다면 사자의 넓적다리라도 한 입 때물고 죽을 것이며, 도망갈 나무가 있다면 내 죽은 살점 한 점도 줄 수 없으므로 나무에 몸을 묶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막다른 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문하고는 '온통 가시밭뿐이어서 헤치고 나갈 수 없는 길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강철 같은 의지의 강철 같은 표현이다.

호치민의 길은 어떨까?

길을 가 봐야 길 가는 어려움을 아나니 /첩첩 산 너머에 또 첩첩이 산이 있네. /첩첩 산 그 꼭대기에 오른 뒤에야 /만리 지도가 눈앞에 펼쳐지리라. [走路_길을 가며] 하는 유장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이는 '팔과 다리 묶여 있어도 /산 가득한 새소리와 꽃향기를, /

> 책의 원제는 '옥중일기'
> 감옥전전하며 쓴 시 모아
> 베트남 영웅 '목민심서'에 감동
> 다산 기일이면 묵념올렸다 기술

자유로이 감상해도 금하는 이 없어, 묶인 채로 감옥을 전전하는 어려움도 여유를 가지고 품어 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이끈 군사전략가 이기도 하다.

그의 이런 면모는 '장기를 배우며' 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눈은 응당 크게 뜨고 / 작전은 세밀해야 하느니, /굳세게 신속하게 때로 나아가 쳐야 하리. /길이 막히면 차 돌이라도 쓸데없고 /때를 만나면 졸 하나로 성공을 거두리라.

결국 그의 군대는 숲속에 은거만하지 않고 굳세게 신속하게 때로 나아가 쳤으며, 졸 하나(미약한 군사력)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때를 만들었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0년도 넘은 이 오래된 책이 최근의 어느 날 필자의 서재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이 책의 역자인 김상일 선생이 직접 선물해 준 필적이 있는 책(2005.11.4. 역자드림)이라는 인연을, 제자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분의 다정한 인품을 생각하며, 이 낯선 나라 사람의 시집에 대한 졸렬한 독서록을 써둔다.

대장경 천년해 맞아 어느 경전 읽을까?

'반야심경', '능엄경', '화엄경' 등 경전 소재 읽을거리 풍성

올해는 대장경 간행 100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대장경을 기리는 행사가 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를 비롯한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전을 소재로 한 책들이 많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우화로 읽는 대장경〉((컬처북스刊)은 대장경 속에 담긴 비유와 설화 형식의 설법을 간추린 책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책은 10여 년 전 〈한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을 펴내며 대장경의 색다른 다이제스트를 시도했던 저자 진형종 씨가 독자들의 쉬운 대장경 읽기를 위해 작업한 결과물이다.

책에는 '사람을 고발한 개' '공주를 탐낸 여우' '옷에 음식을 바른 스님' '장님 부부의 세월' '그림자 때문에 싸운 부부' '미녀에게 현혹된 왕' 등 제목만 보아도 읽고 싶은 이야기 150여 가지가 담겨있다. 특히, 각 우화의 끝에는 사경 전문가 김경호 선생이 제작한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수록했다.

저자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한 묘미는 심오하고 난해한 교의에 있지 않다"며 "일반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듣고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비유와 설화 형식의 설법에 있다"고 말한다.

우화로 읽는 팔만대장경 | 진형종 지음 | 컬처북스 | 1만5000원



〈반야심경〉은 260여 자로 이뤄진 짧은 경전이지만 불교 교리의 골수를 담고 있다. 시중의 〈반야심경〉 해설서만 해도 수백여 종에 이를 정도. 대부분의 책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불교 교리를 필요로 하지만 초보자를 위한 책이 출간됐다.

충주의 한 암자에서 수행하며 중앙경찰학교 경승으로 활동 중인 청호 스님이 펴낸 〈반야심경 우리들의 마음여행〉이 바로 그것이다.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중앙경찰학교에서 20~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반야심경〉 강의를 해 온 것을 정리한 것으로 마치 법당에 앉아 스님의 육성을 듣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저자는 "흔히 무언가로 인해 마음의 갈등을 겪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의 실체를 모른 채 비우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마치 풍선 속에서 누르는 대로 옮겨가는 공기와 같을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마음, 즉 번뇌를 비우기 위해서는 풍선 속의 바람을 빼내기 위해 풍선을 묶어 둔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풍선을 묶어 둔 매듭을 푸는 노력이 바로 내 마음이 이뤄져 가는 과정을 설명한 오온과 공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그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저자는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세상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지혜롭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반야심경 우리들의 마음 여행 | 청호 지음 | 대숲바람 | 1만2000원



〈화엄경〉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집이 많지 않았다. 양이 방대한 탓도 있지만 〈화엄경〉 속의 갖가지 비유적 표현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었다.

일생을 〈화엄경〉 연구에 매진해 온 정엄 스님(화엄불교대학장)이 펴낸 〈나를 찾는 화엄경〉은 관심만 있었지 차마 〈화엄경〉을 가까이 읽을 수 없던 이들을 위한 〈화엄경〉 길라잡이서이다.

책은 원본 〈화엄경〉의 흐름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깊은 철학적 이해를 요하는 부분은 과감히 배재해 흐름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았다. 대신 중심이 되는 뼈대를 살려 전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나를 찾는 화엄경 | 정엄 지음 | 리즈앤북 | 1만3500원



〈수능엄경〉은 불립문자를 표방하던 선종에서 읽히던 경전[禪經]이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음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쉽지 않은 내용 탓에 아무나 〈수능엄경〉을 읽을 수 없었고, 읽어도 그 뜻을 바로 알 수 없었다.



대장경판을 통해 인경하는 모습

산성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불교경전 연구가 설원 천명일 선생이 최근 펴낸 〈수능엄경〉은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 풀이한 책이다.

저자는 "〈수능엄경〉은 과학 속에 없는 답을 모두 수록한 진정한 과학백과사전이다. 이 경전을 읽어보면 그러한 진실에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수능엄경〉 上·下 | 천명일 해설 | 천축 사문 반바라밀제 역 | 지혜의나무 | 각권 2만원



이상의 경전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도 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오랫동안 포교기법을 연구해 온 저자 고명석 연구원이 펴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읽기〉**가 바로 그것이다.

책은 궁극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전한다. 경전을 어떻게 읽을지 뿐만 아니라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책에서는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수행법으로서의 간경 등을 친절하게 정리해 놓았다. 책에 수록된 '경전 읽기 매뉴얼'만 봐도 당신은 이미 경전 읽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읽기 | 고명석 글 | 민족사 | 9000원

조동섭 기자

"저기서 놀면 재밌을까"

〈우화로 읽는 대장경〉 中

어느 바닷가에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곳에는 500여 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그때 바닷가에는 파도가 만든 거대한 물거품 덩어리가 있었는데, 마치 커다란 산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원숭이들이 서로 말했다.

"야, 저 산 정말 크네. 저기 가서 뛰어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때 한 원숭이가 그 물거품에 오르는가 싶더니 곧 그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원숭이가 나오지 않자 다른 원숭이들이 수근거렸다.

"저 물거품 산 속은 정말 즐거운 곳인가 보다. 그러니까 안나오는게 분명해."

그리고는 앞다투어 물거품 산으로 뛰어들었다가 모두 빠져죽고 말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바다란 생사의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물거품 산은 오온(五蘊)으로 된 몸을 말한 것이요.

원숭이는 사람의 마음을 빗댄 것이다.

중생들은 오온이 공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애욕에 집착한다. 그래서 생사의 바다에 빠져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노라."

〈잡비유경〉에서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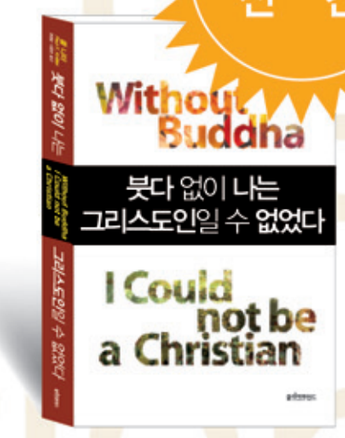
9/28~10/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3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6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7	우리말 팔만대장경 (신편)	대한불교청년회	모시는사람들
8	사마천의 화식열전	우승택	참글세상
9	우화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종	컬처북스
10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온 화제의 책!!!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화제의 신간
2011 KBS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 禪 기행 '나에게 너를 묻다'에 출연한 폴 니터 교수의 신작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잔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는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떠한 자세로 실천하고 다가서야 하는지를 그 어느 사상가, 실천가보다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_ 진제 스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평생 니터 교수의 신학적 작업을 추동해 온 두 가지 실천적 관심, 즉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해방적 관심과 헌신, 그리고 교리적 이해를 넘어선 불교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_ 길희성


글_ 폴 니터(Paul F. Knitter)
정경일 · 이창엽 옮김
정가 19,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문의_ 02-2198-5151

16인의 국사를 배출해 승보(僧寶) 사찰이라네

순천 송광사

삼보는 사람에게도 있다

부부는 이른 아침 송광사 입구에 도착했다. 관광식당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부부는 식당에서 만난 사람과 동행이 됐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였다. 절에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문화재도 감상하며 수업자료도 확보하는, 이른바 '일타삼피 여행가' 라고 했다.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편백나무 숲길을 천천히 걸어서 송광사 일주문에 당도했다. 정교하게 쌓아 올린 공포와 빛바랜 단청이 어우러진 일주문은 좌우로 어른 키 높이의 담장을 거느리고 있다. 앞쪽에는 세줄 내려쓰기로 현판이 걸려 있고 안쪽에도 가로로 기다란 현판이 걸려 있다.

조계산(曹溪山) 대승선종(大乘禪宗) 송광사(松廣寺).

승보종찰조계총림(僧寶宗刹曹溪叢林).

"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절은 역사이고 문화이며 정신이니, 그것을 읽어야 하거든요."

김 선생님은 나름대로 절집기행의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는 그의 말은 절에 깃든 많은 상징과 의미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뜻일 터. 절에 담긴 역사와 문화와 정신을 읽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옴으로써 새로운 것을 읽는 재미를 터득하는 것이다.

"통도사는 불보종찰, 해인사는 법보종찰, 송광사는 승보종찰. 이렇게 3보 사찰을 정한 것은 해당하는 절의 역사와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3보 사찰이 있다는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절이 그 3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디 절 뿐인가요? 우리 자신도 이미 3보를 갖추고 있는 걸요."

시줏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밤새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었다. 계류를 바라보고 있으니 몸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그러나 돌로 만든 홍교와 그 위를 장식한 우화각(羽化閣)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켜 왔다는 듯 의연했다. 다리의 이름은 능허교(凌虛橋).

"자, 다리를 건너면 극락입니다. 참 멋진 다리죠?


대웅보전 불단.

홍교 안쪽 중간을 좀 보세요. 용의 머리가 있고 여의주에 묶인 철사에 엽전이 달려 있죠?"

"어머 정말이네요. 저게 뭐죠?"

"능허교를 만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때로 전하는데, 주지스님이 다리불사를 계획하고 시주금을 모았습니다. 모아진 시주금으로 다리불사를 다 마치고 나니 돈이 딱 석 냥 남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다른 일에 쓰겠지만, 그 때 주지스님은 다리불사를 위해 시주한 돈이니 함부로 유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대중들과 의논한 결과 그 돈을 저렇게 철사에 꿰어서 다리에 걸어 둔 겁니다. 훗날 다시 다리를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 일이 생기면 그 때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세 사람은 대웅보전과 왼쪽의 승보전, 오른쪽의 지장전, 약사전과 영산전을 차례로 참배했다. 아자(亞字) 형태의 대웅보전은 면적이 108평이다. 108번뇌라는 불교를 상징하는 숫자에 맞춰진 것이다. 송광사의 제8차 중수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불사였다. 법당이 커서 그런지 불단도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과거불인 연등불, 현재불인 석가모니불, 미래불인 미륵불이 모셔졌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 4대 보살을 협시로 서 있다. 수미단에 아주 섬세하게 조각된 부처님 일대기 등의 문양이 그림책을 길게 펼쳐 놓은 듯 했다.

"다음은 송광사의 심장 같은 건물을 보셔야 하는데…."

김 선생님이 말끝을 흐린 이유는 불일문(佛日門)으로 오르는 계단 위에서 알 수 있었다. 일반인 출입금지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송광사가 승보종찰인 것은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도량이기 때문이고 그 분들의 영정이 국사전에 모셔져 있거든요. 국사전 자체가 고려 공민왕 때 지어진 건물로 국보 제56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95년 10월 그 안에 모셔진 국사님들의 영정 13점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 뒤부터 국사전은 출입금지 되고 만 겁니다."

"수행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관음전 뒤로 돌아가니 폭은 좁지만 경사가 가파른 계단이 보였다. 계단을 올라가니 도량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부도 한 기가 서 있었다.

"와, 특이한 모양이네요. 지눌 스님의 부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송광사를 있게 한 장본인이고 타락한 시대를 타락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보조국사의 부도입니다."

부도는 화려하거나 웅장함을 강조하지 않았다. 사각의 기단석 위에 다시 사각의 고임돌을 포개고 달항아리 같은 몸돌을 올렸다. 보조 국사의 역사적 위상과는 달리 몸돌도 그리 크지 않다. 옥개석도 추녀를 바짝 치켜 올렸을 뿐 귀꽃이나 기왓골 등의 장식은 생략했다. 보륜도 여러 층을 두지 않고 연꽃 봉우리 하나로 마감했다. 부도의 주인이 수행자의 본분을 강조하며 검박하게 살았던 보조지눌이란 점에서 이 부도의 외형은 주인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아이콘이겠다. 탑 옆의 비석에는 '불일보조국사감로지탑' 이란 전서가 선명했다. 탑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56호로 지정돼 있지만, 그 역사적 의의는 국보급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조선시대 능허교 불사 후 당시 주지스님은 남은 돈 석냥을 유용할 수 없다며 다리에 매달았다.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3보 사찰의 하나
아쉽게도 영정 모신 국사전은 볼 수 없어

"고려는 불교국가였습니다. 태조 왕건이 아주 독실하게 불교를 숭상했고 이후의 왕들도 그랬지요. 태조 왕건의 유언인 '훈요십조(訓要十條)' 제1조에 불법을 신봉하고 불사를 일으킬 것을 강조했지요. 팔관회와 연등회 등의 전국적인 행사도 성행했고 문화사적인 발달의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불교국가라는 점이 불교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발판이 되기도 했지만 승단과 수행정신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禪)불교는 신라 말 고려 초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탱해 주는 새로운 에너지였다. 당나라로 구법유학을 가서, 달마 이후 계승돼 온 법맥을 이어 받은 고승들로부터 법을 인가받고 돌아 온 선승들이 아홉 개의 산에서 차례로 선문을 열면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그 새로운 바람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 행복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것으로 나라의 기운이 만대에까지 흥성하게 되길 바라마지 않았다.

"종교가 세속 일에 관여하게 되면 그 본연의 정신을 잃기 쉽죠. 고려시대의 불교는 왕실을 위해 수많은 재(齋)를 지냈고 심지어 적이 쳐들어오지 않기를 비는 재를 지내기도 했어요. 군사력을 기르는 것보다 재를 지내는 것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절집에서 전답(田畓)을 소유하게 되고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재물을 갖게 되니까 그걸 지킬 인력이 필요해서 승병(僧兵)이 생긴 겁니다. 물론 승병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군사력으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승려 개인의 타락도 심하여 은처승(隱妻僧)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의 여섯 번째 왕인 성종은 개인 주택을 절로 고치는 것을 금지하고 팔관회와 연등회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무신정권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무신과 문신 그리고 왕족과 승단이 권력쟁탈전의 축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시대 승단이 모두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니었겠죠?"

"물론입니다. 구산선문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가 활발한 수행불교를 구가했고 교학도 발전해 왕자 출신인 대각국사 의천은 속장경을 간행하기도 했지요. 고려시대 전체를 거쳐 철학 문학 회화 조각 건축 등 문화예술과 학문 분야의 발달은 우리 역사에서 문예부흥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격한 느낌은 들어도 김 선생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만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행복을 향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흐려지면 수많은 중생을 지옥으로 몰아넣게 된다.

"보조지눌 스님이 타락한 종교집단의 쇄신을 주창하고 갈라진 이념을 통합하려 했듯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러한 스님이 필요하고 그러한 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팔수씨의 목소리가 다소 가라앉았다. 세 사람은 감로탑에 허리를 깊이 숙여 합장하고 계단을 내려왔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불교성지순례 전문 인더스투어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도권 시민들이 편하게 축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장경 축전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industour 인더스투어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참가안내

출 발 일 축전기간 중 매주 수요일, 토요일 총 13회 출발(서울)
9월 : 24(마감), 28(마감)
10월 : 1(마감), 5(마감), 8(마감), 12(마감), 15(마감), 19(마감), 22(출발확정), 26(출발확정), 29
11월 : 2, 5
참 가 비 성인 55,000원 P/P, 아동 50,000원 P/P
포함내역 왕복버스비+중식(이화장정식)+주행사장입장료+합천영상테마파크+해인사+여행자보험
문 의 02)2252-3226, 2252-8226, 722-4028
담 당 자 이명균차장, 정경미 사원

불교성지순례의 새로운 이정표 인더스투어 www.industour.com

인더스투어는 2010년 인도 문화관광 및 불교성지순례 전문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행사입니다. 저희 인더스투어는 국내 최고의 인도, 서역 전문 여행사로써 다양하고 알찬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섬세한 일정,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행사, 힐링투어를 비롯한 새롭고 획기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인도여행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눈물겨운 여정을 직접 찾아가는 성지순례상품은 그 어떤 순례보다도 편안하고 알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성지순례 문의 02)2252-8226 담당_손태호 이사


지혜관세음보살

관음성지 휴휴암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부대중일동

매년 음력 9월24일 봉행하는
수륙영가천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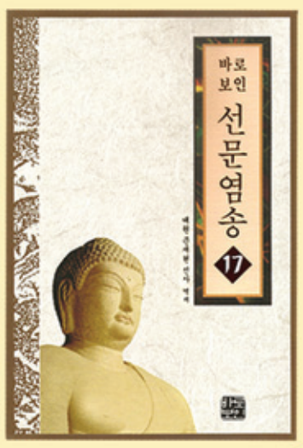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FAX 033)671-0525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살아 있을 때는 삶,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 벽암록 –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 걸상



8각좌대칠보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칠보소불도매

있는곳 :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손알리미 : 010-5595-8533
알하는곳 : 054) 773-8533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옥위패
• 흑단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1층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www.kyksb.co.kr
승복 · 전통복식 31년
김윤경 승복 · 우리 옷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질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간다!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간다!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다!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신병이다!
- 유산된 태아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눌림,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술치유와 신술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도서판매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부산)고려불교원, 인천)대한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 광주)중장서림
광주)초원문고, 수원)율전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광장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공주)백제불교, 청주)일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준양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가야서점
창원)창원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양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투명인간이 됐다고 숨소리까지 투명해지진 않아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10)



삽화 · 김홍인

비가 그친 후의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래서 차크라발라 산의 어둠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막 수아나를 강물에 띄우고 있었다.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도 강에 던져졌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장례 행렬을 따라온 몇몇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들 역시 먹먹한 표정으로 그런 아이들을 달랬다.

"수아나와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란다."

난다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그리고 쎄라를 떠올렸다. 정말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 그렇다고 해도 서로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텐데, 그것을 재회라고 할 수 있는 걸까. 그런 말을 위로로 삼는다는 건 그 아이들에게도, 난다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다는 강물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 수아킴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수아킴은 집에서 싸 가지고 온 보리빵과 역시 보리로 빚은 술인 창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의 풍습이지. 하지만 이렇게 금방 또 저 창을 마시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야."

몸을 드러낸 나크였다.

"사람들이 아무도 살인자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게 놀라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살인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누가 누구의 죄를 묻고 벌준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거든."

"그가 저지른 죄가 곧 그를 벌한다, 또 그 말을 하시려구요?"

"맘에 안 드나? 대신 이들은 그 죄에 대해 용서하지도 않을 거야. 벌을 주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난다는 보리빵을 조금 떼서 입에 넣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수아킴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크의 몸이 다시 투명해졌다.

"잃어버렸다는 그 여자 아이는 찾았니?"

수아킴이 난다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난다는 그제야 데비 생각이 났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상하리만치 데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되지 않아 놀랍기까지 했다.

"아니, 아직 찾지 못했어요."

"흠. 도대체 어떤 아이인 걸까."

난다는 수아킴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아니, 이제 비도 그쳤으니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네 친구를 계속 창고에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

수아킴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난다는 그런 수아킴의 태도가 어쩐지 이상했다. '지금이 나와 무니 걱정을 할 때인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이지요?"

"아마 잠부에서 온 배가 보이기 때문일 거야."

수아킴은 난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부에서 배가 왔다구?' 난다는 놀라서 사람들이 올라간 언덕을 쳐다봤다.

수아나의 장례 때문에 마을은 아직 텅 빈 상태였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렇지?"

무니가 칸타카를 보며 말했다. 그때 막 잠에서 깬 데비가 무니를 향해 쪼르르 달려와 매달렸다. 무니는 좀처럼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는 법이 없는 데비였기에 조금 당황스러워하며 그런 그녀를 쳐다봤다.

"배고파."

"그래. 네가 그럼 그렇지."

무니는 그녀에게 아침에 수아킴이 주고 간 보리빵을 건넸다.

"이렇게 매끼를 꼬박 챙겨 먹어야하는 녀석이 도대체 며칠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빵을 다 먹어버린 데비의 귀에는 이미 무니의 말은 들어오지 않았다. 칸타카의 꼬리를 세 갈래로 땋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말을 거는군."

무니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가 휩쓸고 간 마을은 휑한 느낌을 주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 역시 따뜻해 보이기보다는 차가워 보였다.

무니는 사라졌던 데비가 돌아온 그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무니는 세 번째 검 조각의 힘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었다. 검 조각을 손에 쥐고 집중하자 조각을 들고 있던 손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온 몸이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완전히 지워졌던 순간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했다.

"기다릴 것 없이 그냥 한 번 나가볼까…."

무니는 혼잣말을 하며 가방에 들어있던 아루나검을 꺼냈다. 이 마을에는 애초에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자물쇠 같은 게 없었다. 바람에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헐거운 걸쇠만이 달려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사실상 무니가 마음만 먹는다면 안에서도 충분히 열 수 있었다. 문을 열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무니는 검을 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걸쇠를 풀어냈다. 칸타카와 데비가 동시에 무니 쪽을 쳐다봤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데비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칸타카, 쟤 잘 지켜야 된다!"

칸타카는 꼬리를 흔들어 보였다. 무니 역시 고개를 다시 한 번 끄덕여 보이고는 손가락으로 문을 툭 하고 밀어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무니는 주머니에서 진주 모양의 검 조각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그러자 몸의 형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투명하게 변해갔다.

무니는 일단 수아나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아이의 부모들 밖에 없어 찾기는 쉬웠다. 이윽고 어두운 집 안에 혼자 앉아 눈물을 닦아내는 여자를 발견한 무니는 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마루처럼 보이는 곳에는 여기저기 옷들이 흩어져 있었고, 화덕에는 방금 불을 지핀 듯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뭔가를 태우고 있는 모양이었다. 무니는 수아나의 엄마로 짐작되는 그 여자의 뒤편에 조용히 서서 무엇을 태우는 것인지 지켜봤다. 죽은 여자애의 물건이겠거니 했던 짐작과는 달리 타고 있는 건 남자용으로 보이는 옷이었다. '왜 남자 옷을 태우는 거지?' 그때 구석에 있던 방에서 한 남자가 나오더니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걸었다. 수아나의 아빠일 것이다. 무니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말에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다. 그 상태로 여자가 뭐라고 대꾸하자, 남자 역시 힘겨운 말투로 뭔가를 길게 설명했다. '답답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니가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이 남자는 여자 바로 옆, 그러니까 무니가 서 있는 곳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제야 남자가 바로 자기 옆까지 와있다는 걸 알게 된 무니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지만, 남자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지 그가 움직이고 있는 쪽을 쳐다봤다. 무니는 발걸음도, 숨소리도 멈추고 그대로 정지한 채 남자가 주의를 돌리기만을 기다렸다. 남자는 입구 쪽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니는 그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 얼른 다시 들이켰다. 아무리 투명인간이 되었다고 해도 숨소리까지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무니는 손 안에 든 진주 모양의 검 조각에 온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크는 정신이 없었다. 조용했던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을 좋아하긴 했지만,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었다. 난다 역시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아킴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도 몹시 부자연스러워서 낯설게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봐. 요약이 필요하니까. 아무튼 설탕과 철에 관한 이야기야."

답답하지만 별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쉽사리 입을 다물 거 같지 않았다. 알 수 없는 건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수아킴이라는 사실이었다. 난다는 문득 아까 수아킴이 말을 걸었을 때 떠올랐던 이상한 느낌과 나크가 말한 '설탕'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연관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설탕과 철을 교환하기로 했다는 이야긴가요?"

난다가 참지 못하고 나크에게 물었다. 그들의 말에 집중해 완전히 그 형체를 드러냈던 나크는 순식간에 다시 투명해졌다.

"뭐야! 네가 지금 차크라발라 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다는 거냐?"

기분이 나쁘다는 말투였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에 살해당한 그 남자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아. 그래?"

거의 투명해졌던 나크가 조금씩 다시 형체를 드러내며 말했다. 여지없이 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다.

"흠. 아무래도 저 수아킴이라는 자가 죽은 데첸이라는 친구 대신 잠부의 귀족과 통신하는 역할을 맡았던 모양이야. 철을 차크라발라 밖으로 가져가는 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리긴 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연락이 왔던 모양이거든. 철의 쓰임에 대해 데첸이 오해를 하고 떠났다고 말이지. 아무튼 저 수아킴은 잠부에서 보내온 연락을 충실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아파트건립사업모집공고

개요 : 아래와 같은 고승대덕 원로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포교원건립불사 및 복지후생 건립사업을 결의한다.

주제 : 많은 사람에게 이익한 주택을 저가로 제공하고,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 **노스님들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구현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당 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 750세대)을 서민에게 저가로 공급하여 (평당 600만원선)자리이타를 실천한다

2. 사업 계획 : 포교원 및 복지원건립불사부지

임야 3000평(평당가 80만원)허가득 봉서산 끝자락 서남향으로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배산임수의 명당터입니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 여 스 님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장
사업시행자 : 동 보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7-13번지
문 의 처 : 031)941-0000 / 010-7677-7556

천 도 재 영 험

온 가족을 우유빛 명품피부로 바꿔보세요

상담☎ 0505)333-0008
F A X 0505)333-0009

홈페이지 sra.kr
스마트폰 mmww.kr

大韓佛教曹溪宗
양 평 사 리 암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난세의 선비들 패교를 건넜으니

패교심매도(覇橋尋梅圖)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조선 4대 문장가 중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 상촌(象村) 신흠(申欽;1566~1628)은 〈야언(野言)〉에서 매화의 기개(氣槪)와 절곡에 대해 읊으면서, 훗날 백범(白凡) 김구(金九)와 퇴계가 좌우명으로 삼다시피 한 고결한 시를 쓴다.

桐千年老恒藏曲 동천연로항장곡
梅一生寒不賣香 매일생한불매향
月到千虧餘本質 월도천휴여본질
柳經百別又新枝 유경백별우신지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시 곡절(曲節)을 간직하고.
매화꽃 평생을 추위에 떨며 지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둥근달은 천 번을 이즈러져도 근본을 잃지 않으며,
버드나무 백번을 꺾이어도 다시 새가지 솟아오르네.

매화는 어찌해서 향기를 팔지 않을까? 추위를 피해 편안히 지낼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팔고, 얼굴을 팔고, 생각을 팔고, 가산을 팔고, 무어든 팔아 낼 것인데, 매화는 왜 조촐한 향기를 팔아 편히 지낼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강희안(姜希顔)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화목(花木)을 분류하면서, 매화를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봄이 온 것을 알려주고, 불의(不義)에 굴하지 않는 죽절(竹節)과 같은 인물의 정신을 보여주는 표상(表象), 청초하고 고고한 꽃을 피워내는 마들가리(곧게 솟아난 매화가지)의 고격(高格)을 보여주는 일등품으로 엄선했다.

매화 한 송이 핀 것을 보면 천하에 봄이 온 것을 안다고 한다. 그러나 매화는 봄이 온 후에 피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봄이 오기 전에 봄을 이끌어 핀다. 눈발 깊은 설야(雪夜)에 겹겹이 쌓인 눈을 뚫고 황홀한 향기와 꽃을 피우며 봄을 앞선다.

중국 섬서성 패수에 있는 다리 하나가 있다. 이름을 패교라고 부르는데, 당나라 때에 장안에서 지방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송별은 대개 이곳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당대의 시인 맹호연(孟浩然)은 이 다리를 지나 설산의 매화를 찾아 떠났다. 후에는 난세의 선비들이 혼탁한 세상을 떠날 때 대개 이 다리를 지나서 세상을 등졌다고 한다.

눈이 켜켜히 쌓인 산기슭 옆에 있는 다리에 당나귀에 걸터앉아, 막대기에 포대를 맨 어린 시자를 뒤따르게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졸고 있는 모습으로 다리를 건너는 이는 느릿느릿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을 떠난다.


패교심매도

당나귀는 혹한에 강하고, 척박한 환경과 적은 음식으로도 살 수 있지만, 걸음은 느린 동물이다. 비록 말과 같은 동물이나 길을 갈 때 느린 동물이다. 펄펄 뛰는 천리마를 타지 않고, 느린 나귀를 타고 떠나는 선비는 멀리 가지 않고도, 매화를 찾으려는 심사였을까?

패교라는 이 다리 양 옆에는 원래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나라 때 장안에 사는 사람들이 손님이나 벗, 연인을 전송할 때 이곳에서 버들가지를 꺾어 주며 이별의 정을 나눴다고 한다.

중국어의 버들 류(柳)와 머물 류(留)는 발음이 비슷하여, 떠나고자 하여 만류할 수는 없으나 부디 머물러 가지 말라는, 보내는 이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버드나무가지를 꺾어 주었다.

눈 내리는 패교에는 버드나무도 없고, 가는 이를 전송하는 벗들도 없건만, 선비는 말없이 나귀를 몰아 길을 떠난다. 혼탁한 이 난세를 끝내고, 밝고 맑고 향기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 길을 재촉하여 떠나는 그의 마음엔 시상(詩想)을 품고 있는가?

맹호연 선생의 "춘효(春曉)"를 적으며, 글을 맺고자 한다.

春眠不覺曉 춘면불각효
處處聞啼鳥 처처문제조
夜來風雨聲 야래풍우성
花落知多少 화락지다소

봄꿈은 아직 깨지 못하였는데,
곳곳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 들린다.
어젯밤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꽃 떨어져도 아는 이는 적더라.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꽃으로 부터

꺾지 마세요
본디, 내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지켜봐주세요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네요.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월저도안 선사의 '참의 권중경의 시에 차운하여[次權參議重經韻]'

바람과 구름의 오고감

風來雲逐來 (풍래운축래) 바람 불면 구름 좇아오고
風去雲隨去 (풍거운수거) 바람 가면 구름 따라 가네
雲從風去來 (운종풍거래) 구름이 바람 따라 가고 오면
風息雲何處 (풍식운하처) 바람이 그치면 구름은 어느 곳에 있는고.

이조참의 권중경(1642~1728)이 보낸 시에 도안이 화답한 것이다. 권중경은 도안이 백운 간에서 오고 가는데, 구름은 일정한 거처가 없듯이 내일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묻는다. 단순히 스님의 시공간에서의 거처가 궁금하다는 의미다.

이에 스님은 역시 선사답게 시공과 주객을 초월한 우주 자연의 법리 속에서 답했다. 그 법의 이치란 구름은 다만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옮겨질 뿐 정해진 곳에 의도적으로 머물거나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름은 자연을 따르는 도안 스님 자신에 비유된 것이다. 바람 · 구름 · 가고 옴의 반복된 시어는 스님의 복잡하지 않은 살림살이와 더불어 청자에게 법이란 어려운 것도 난해한 것도 아닌 그저 절로 그러함임을 맛보게 한다.

스님은 또 모든 구에서 바람을 주(主)로 구름을 종(從)으로 처리하여 능소(能所)가 성립되고 나눠지는 가 싶게 했다. 그러다가 제3구에서 구름으로 의인화된 스님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능소는 나누어지거나 결정돼 있지 않고 인연에 따라 인(因)도 되고 연(緣)도 되는, 인연법에 의해 생주이멸(生住離滅)하는 도리를 슬그머니 보였다.

선시에 있어 자연은 객관적 대상이나 완상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 그대로가 곧 법의 현현이며 자연은 진여자체이다. 그래서 선적 관조를 통한 깨달음이 가능하고 그 깨달음의 오묘한 경지를 자연 경물의 시화(詩化)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늘에, 대지에, 강가에 떠다니는 가을 색에서 도안 스님이 보인 머무를 것도 집착할 것도 없는 거래(去來)의 실상은 무엇인가? 무주착(無住着)의 도리를 우리도 충분히 체득하고 나만의 몸짓으로 표현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을 빼는 쾌장 운동법. 물혹, 자궁근종, 위장병, 변비, 냉증의 원흉인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법 수록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대행 스님

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문) 스님, 남에게 보시를 한다, 도와준다라는 개념, 이것은 행동보다 말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그런 걸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 아주 영향 가치가 훌륭합니다. 한마음 주인공 이 자체는 내가 사량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나를 진화시켰고 형성시켜 왔습니다, 자기 주인공이. 그러니까 마음먹는 대로 자기를 리드해 갑니다. 발전시켜 가고, 또는 항상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들을 해 보세요. 똥이 급하면 똥 누러 가게 하는 것도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대신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자는 것도 대신 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가 대신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이 자기를 위해서 이끌어 갑니다.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위해서 이끌어 갑니다.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모든 거는, 아무리 선지식들이,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많다 하더라도 못난 자기만은 못할 겁니다. 바로 자기부터 자기네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야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의 전화부터 놓으십시오. 내 마음속의 바로 내 마음의 주인부터 믿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기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게 참선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미국에 가 있어도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로 전화를 합니다. "스님, 이렇게 이렇게 이랬어요." 하고서 전화를 했을 때에 "알았어!" 합니다. 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하혈을 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하고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알았어."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미국과 한국이 한 찰나의 길입니다. 한 찰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시면서, 보이지 않는 데 나투시면서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은 약사로 응해 주시고, 또는 어떠한 애고에 휘달리는 사람은 관세음으로서 응해 주시고, 명이 짧은 사람은 칠성부처로 응해 주시고, 정신이 맑지 못해서 두뇌가 모두 물리가 터지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촉으로 나투어 주시고, 미래의 모든 내 정신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미타로 나투어 주시고, 또는 죽어서 좋은 데로 못 가서 빌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지장으로 나툼을 주셨어요. 이 모두가 한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일을 찰나찰나 응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체험해 보신다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체험해 보신다면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신계의 50%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아까도 얘기해 봤지만 자기한테 그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력도 있고 모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약합니다.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남한테 발길에 차이고도 어쩔 수가 없이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 무심의 도리라는 것은 묘하면서도 광대무변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중용으로 굴리면서 한다고 그래서 바로 팔 수레공법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의 핵심적인 그 자체 즉, 우선적으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문) 기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인입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서 집단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스님들의 모습을 시비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타율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수행자인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진정으로 제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 마음으로 생각지 않고 개선할 줄 모른다면 마음의 계발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광력이라는 빛이 바로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떻게 창조를 일으키며 노력과 생각 없이 어떻게 계발을 해서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음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나중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항시 똑같았습니다. 잘 배우고 잘못 배우고 이걸 떠나서 진실한 내 마음이 지혜롭게, 포용력 있게 팔을 벌리고 다 집어먹어야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 집어먹어 보지 않는다면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걸 몰라요. 또 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다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버려서 얻는다고 한다면 바로 다 삼키고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찰에서도 질서를 제대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또 화목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서 집어삼키고 토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의 집은 못생겼든 잘생겼든, 커다랗든 좁쌀알만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집어넣어도 좁쌀알이 적지 않으니까. 못나고 잘난 모습을 보거나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왜냐. 집이 작든 크든 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헤아릴 수 없이 나가서 활약을 하는데 다 응해 달라는 대로 모습을 화해서 나투는데 그 활약하는 모습이, 그 나툼이 전부 다르니 어떤 거를 꽉 집어서 '이거는 나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함이 여여해서 어떠한 모습을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한 개체의 집이다 이겁니다. 이 집은 일체제불의 마음이 들락날락해도 손색이 없는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들락거려도 손색이 없는 법이요, 다 둘이 아니게 들락거려도, 하나로 몽땅 다 들어온다 해도 작지 않은 그릇이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고개가 숙여지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됩니다. 이거는 글렀으니깐 안 하고 이건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미우니까 미워하고 이건 고우니깐 당기고, 이렇게 해서는 다 삼킬 수가 없어요. 부처님까지도 삼켜야 하는데 그렇게 허방지방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 와도 모든 스님네들이 다 나가서 울력으로써 해 들이고 모든 걸 같이 합니다. 누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뭐, 이런

☞ 22면으로 계속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운남지남동원선다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산차 45,000원 38,000원
100g 산차 70,000원 65,000원
330g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 하 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대출안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근본을 알아야 거기서 물리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거 없어요. 위에서는 '아휴, 저 사제들이 애를 쓰는데 나도…' 또 아우들은 '아휴, 저 사형들이 저렇게 애쓰시는데 나도…' 이렇게 울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발전 없이 그 창조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을 켜고 앞장설 수가 없거니와 그건 목석과 같은 겁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좀 쾌활하게, 발전 있게 그냥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문) 살다 보면 중심을 잘 잡고 가다가도 어떤 경우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 중심 잃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의 근본 자리는 그런 약하다 힘 있다 이런 게 붙질 않아요. 만약에 이 진리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힘이 없다 있다 그게 붙을 수가 있나요? 이건 그런 도리를 넘어서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붙지 않는답니다. 약해질 수 있죠, 마음이라는 게. 마음도 고정되지 않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하다는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약하다 하는 그 생각마저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따로 자기가 그냥 둘이 돼서 약한 거 따로 있고 약하지 않은 거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한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한군데다 넣고 한군데다 맡기고 한군데서 나고 든다 하는 거를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직껏 살아오신 거 누가 살아오셨습니까? 자기가 살아오지 않았나요? 상대가 많다 하더라도 자기가 결정짓고 자기가 하고 그러고 자기가 살아왔죠. 약하든 약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는 누굴까요? 자기 운전수죠? 그 운전수가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자기가 가는 거죠. 그것이 삼위일체가 아닐까요? 기름을 조금 넣는 것도 거기요, 많이 넣는 것도 거기요, 가득 채운 것도 거기요, 또 기름이 없어서 못 넣는 것도 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수 알아서 할 탓이지요, 모두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든, 어떠한 일이 닥치든 오는 대로 무조건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당당하게 살아 보세요.

어떠한 서적들을 제대로 읽으려면

문)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뭐 철학이나 물리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 전공 서적이든 다른 서적이든 책을 보게 되는데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가 거기서 하고 싶은 생각이 뭘까 하고 거기에 사실은 제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그 저자의 사고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상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가는 데는 방해가 됐으면 됐지 결코 도움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서적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지금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모든 것이 방해가 됐으면 됐지 이익이 될 수 없다 그러셨는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바로 그분이고 방해가 된다고 하는 분도 그분입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왔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즉 말하자면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는 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수박으로 치면 몸뚱이는 바로 수박이고 그 씨는 수박 안의 씨겠죠. 그런데 모두 여러분이 자기 깊은 내면세계의 씨는 안 보고 자기 수박이 어떻게 됐나 하고선 바깥에서 찾습니다, 수박씨를. 그런데 수박씨를 바깥에서 찾으면 찾아집니까? 벌써 그 수박씨는 심어져서 싹이 돼 가지고 수박이 달려서 익었는데 그 수박덩어리가 바깥에서 어떻게 씨를 찾습니까. 바깥에서 구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면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그 씨는 바로 내면 속에 있다.' 하고 내면의 씨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뭉쳐 놓아야 합니다. 이 몸뚱이는 과거에 살던 모든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바로 고(苦)입니다. 악업 선업이 다 여기 몸뚱이 속에 10억이 넘는, 16억이 넘는 아니,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죠. 그 속에 또 있고 그 속에 또 있고, 그 의식은 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바로 나를 끌고 다니는 그 과거의 나는 바로 부(父)가 되고 끌려다니는 놈은 바로 자(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 주인공, 거기에 모든 걸 놓는다면 전체 내면의 세계에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의식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속에서 의식이 따라 줍니다.

또한 외부의 모든 것도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됐기 때문에 광력 전력 통신력 자력, 이 네 가지가 재료가 돼 가지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료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는 것도, 의학을 연구하는 것도,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도 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만 알면 모든 게 거기서 물리가 터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든지 천문학이든지 천체물리학이든지 생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전부 정신의 의학이 아니면 지금 100%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두루 하고 있지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소폭탄이니 핵폭탄이니 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이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두를 이 한 자가발전소에서 통하면 모든 자가발전소에서 서로, 내가 약하면 기도 넣을 수가 있고 또 병이 나면 그 병난 데서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잘못돼서 잘못 생각을 하면 바로 파워를 일으키고,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악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이 다 악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간에 자기 마음 탓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탓이다 이겁니다.

옛날얘기 하나 할까요? 장사를 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휴, 저분은 참 이 세계적으로도 왕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아휴, 저건 사기꾼 같구나. 아이, 저런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에는 일주일 일주일 장이 서서 새벽에 마차가 그냥 수백 대가 지나가는데 술이 취해 가지곤 거기에 깔려 죽고, 또 한 사람은 친구하고 나왔는데 혼자 돌아갈 수 없어서 강을 건너서 딴 나라로 갔어요.

딴 나라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그 나라 왕이 죽어서 왕을 뽑는데 그 왕이 탔던 말이 나와서 왕을 뽑더랍니다. 금으로 잘 장식하고 그래 가지고서는 딱 말이 나오더니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다 헤치고선 그 말이 궁둥이를 그 사람한테 대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 들어가서 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나라에 불법을 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험을 안 해 보셨으니깐 그렇지, 실험을 해 보세요. 진짜 내가 나를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누구 딴 사람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아무리 자식, 부부, 부모지간이다 할지라도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고 대신 아파 줄 사람도 없고 대신 똥 눠 줄 사람도 없고 대신 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다섯 가진 대신 못해 준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영화배우처럼 한 찰나에 살면서 영화배우로서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지금 살다가 그 소임이 끝나고 영화가 끝나면 막이 내리고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만, 옷만 벗었지 다시 자기 차원에 의해서 참,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에 금으로 출현을 할는지 또는 무쇠로 출현을 할는지 넝마로 출현을 할는지 깡통으로 출현을 할는지 그건 모르죠,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우연히도 없고 또 공짜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내내 나가서 일을 해야만이 그 일한 대가를 받고 공부도 자기가 한 것만큼 아마 대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 공부는 여러 책을 보고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그러더라도 자기가 버릴 건 버리고 들을 건 들어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 책을 보는 것도 자신이 봤고, 틀리다고 하는 것도 자신이 틀리다고 하고, 또는 이익하다 또는 이게 옳다 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은 아직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한마음 주인공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를 어떤 게 자기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저 죽솥에 죽이 끓어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의식들이 그저 자기한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안 낼 것도 괜히 성을 내고 불화를 일으키고, 또 욕을 안 할 것도 욕을 하게 되고, 남의 탓을 할 게 아닌데도 탓을 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자기라는 아집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내가 권세가 이렇고 공부를 얼마를 했고 이런 아집 때문에, 또는 아상 때문에, 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글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죽은 세상을 모른다면 산 세상을 어떻게 똑바로 이끌어 나갑니까. 이 삼세를 한 찰나에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도 공해서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진리에요. 여러분도 이름을 많이 가지셨죠? 아버지라는 이름도 갖고 오빠라는 이름도 갖고 사위라는 이름도 갖고 아들이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가지셨지만 여여하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세 가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나갑니까. 남편 노릇도 잘하죠, 또 아빠 노릇도 잘하죠, 아들 노릇도 잘하죠, 사위 노릇도 잘하죠, 형제 노릇도 잘하지 않습니까? 금방 아내가 "여보!" 그러면 남편이 돼서 말과 뜻과 행이 아주 똑바로 자동적으로 그냥 남편이 돼 버리죠? 그래서 아내가 비켜나고 딸이 "아빠!" 한다면 아, 자동적으로 또 아버지가 돼서 여여하게 "아이구, 그래." 그러고 안아 주죠. 여러분이 그렇게 여여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터져야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거를 봐도 그게 터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느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형상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허공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그 자체를 중심 삼아서 자기를 믿으라고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고개가 숙여지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됩니다.
이거는 글렀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미우니까 미워하고 이거는 고우니까 당기고
이렇게 해서는 다 삼킬 수가 없어요.
부처님까지도 삼켜야 하는데 그렇게 허방지방할 때가 있겠습니까.

Hanmaum Choir Festival

한마음 음악제

| 주 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 일 시 **1**회 공연 : 2011.**11.12**(토) 17:00 / **2**회 공연 : 2011.**11.13**(일) 15:00 / **3**회 공연 : 2011.**11.13**(일) 19: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공 연 내 용 **제 1부 (선법가 공연)**

- 한마음선원 스님
-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 힌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 한마음선원 해외지원합창단

제 2부 (화합대제전/재능기부 축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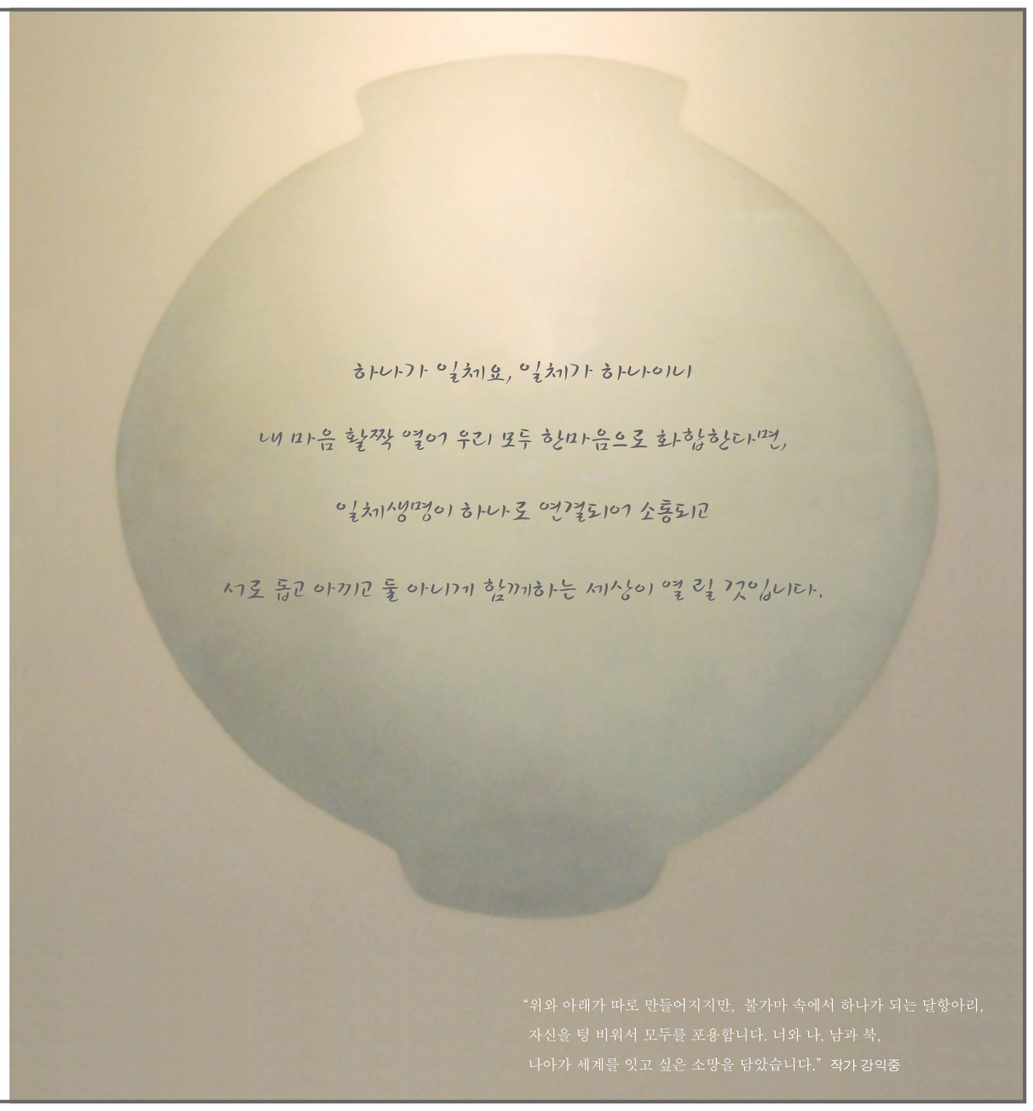
- 황병기(가야금 명인)
- 이춘혜(소프라노), 류정필(테너)
- 전제덕(하모니카 연주가)
-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 의** **031-470-3100**

| 후 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사)더프라미스 지정기탁)과 (사)뷰티플마인드의 나눔사업에 기부됩니다.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농협 351-0290-8461-33 / 국민 214901-04-197245 [예금주 한마음선원]



불자 세상보기

세계화 이전에 자기부터 바로 알자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세계화는 언어소통이 전부 아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다양성 인정부터
제국주의 근성부터 없애야 이뤄져
한국불교 순수하단 오만도 버려라"

현재 대학 내에서 사용되는 '세계화'라는 용어는 주로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와 직결돼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영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면, 이를 세계화가 됐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과 관계를 밀접하게 맺으면서 건국한 대한민국의 생태적 속성으로 보인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는 그대로 '세계화'와 등치(等値)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원천과, 경제의 원동력, 군사적 힘을 미국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한국은 이런 현상이 자연스런 추세일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는 중요한 스펙이 된다.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란 무엇인가? 첫째는 사상, 문화, 역사, 인종 등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절대주의적, 중심주의적, 원리주의적 등의 발상은 세계화와 거리가 멀다. 둘째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려(配慮)'란 '정의(正義)'와 짝을 이룬다. '정의'에는 '이성'이나 '원칙' '평등' 등의 정서가 지배하는 반면, '배려'에는 '감성' '예외' '보살핌' 등의 정서가 작용한다. 셋째는 상대를 나에게 포섭하려는 소유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 '세계화'라는 발상 속에 들어 있는 '제국주의적 근성'을 배제해야 한다.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마다 다양한 불교가 있었음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한국의 불교도는 자신들의 불교가 어떤 역사 속에서, 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주제 파악이 돼야 한다. 나의 전통과, 나의 색깔, 나의 모습을 모른 채, 남과의 소통만을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 소통의 도구인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에 편중된다면 필자가 제시한 '세계화'와 모순된다.

독자들이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함께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공감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불교의 역사는 길지만 근현대 사회 속에서 심한 굴절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불교는 조선시대 500여 년 간을 핍박당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세속화됐다. 건국 이후에도 1950~1953년 사이에는 6·25가 있었고, 1954년부터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초법적인 담화문으로 불교계의 분쟁 등이 있었다.

조계종에서 발행한 〈조계종사〉에서 말했듯,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불교계는 불법(不法) 폭력(暴力) 급조승(急造僧)의 배출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짊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도 숨어들고 남은 것도 왜곡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됐다. 예불을 비롯한 각종 의례의 전통, 참선 간경 염불로 상징되는 수행의 전통, 수계와 포살과 참회 등 교단 운영의 전통, 소의 경전과 그 해석에 관계되는 교학 전통, 승려 교육의 과정과 방법, 이런 등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가 국내에도 소개되고 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숨겨진 전통을 찾아서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불교가 최고라는, 우리 불교가 순수하다는 자국 중심주의적인 폐쇄적인 생각을 쉬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불교의 세계화'라고 생각한다.

사부대중 칼럼

카지노 자본주의와 7재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금융자본주의 한계에 다다른 지금
인간 살릴 새 경제 패러다임 절실
부처님은 7재(財) 가르침 설해 놔
재물의 효용가치 깊이 고민할 때

미국 뉴욕의 월가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만하다. 이 월가에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 부자들의 탐욕, 99%가 막자"라고 하면서 금융권의 탐욕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는 보스턴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을 증폭시키는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

불교 경전에는 7재(財)의 가르침이 종종 발견된다. 칠재란 불도를 성취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거룩한 덕목을 재물에 비유한 것으로, 신재(信財)란 정법을 신수(信受)하는 신이라는 재물, 계재(戒財)란 계율을 지니는 계라는 재물, 참재(慙財)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참이라는 재물, 괴재(愧財)란 남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괴라는 재물, 문재(聞財)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는 문이라는 재물, 시재(施財)란 모든 것을 보시하여 물듦이 없는 시라는 재물, 혜재(慧財)란 마음을 거두어 지혜로써 제법(諸法)을 비추어 아는 혜라는 재물이다.

불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기 위한 일곱 가지 덕목을 왜 하필이면 재물에 비유했을까? 일반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의해 부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수행자는 여러 수행 덕목에 의해 부처가 되어 해탈과 열반을 누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재물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재물의 진정한 효용가치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재물이라는 비유는 이 세상 최고의 부자는 바로 부처님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의 기준이 '자유와 행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필시 부처님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제 '재물'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훌훌 털어버리고 인식의 대전환, 발상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칠재'의 해석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불교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주지하다시피, 첫째,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둘째,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셋째, 바르게 번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경제'는 이기적 욕망의 무한 추구가 아니라, 자리이타의 대승 보살 정신을 구현하는 데 그 궁극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살경제' 또는 '자리이타의 경제'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적 경제관념을 정립하는 데 이 칠재의 가르침은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칠재의 의미를 재음미해 보도록 하자.

첫째, 신재는 믿음의 재물이다.

둘째, 계재는 계율에 바탕한 재물이다. 재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서는 안 된다.

셋째, 참재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참(慙)의 재물이다.

넷째, 괴재는 남에게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괴(愧)의 재물이다.

다섯째, 문재는 문(聞)의 재물이다.

여섯째, 시재는 보시의 재물이다. 재물은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할 때 그 본연의 가치를 실현한다.

일곱째, 혜재는 지혜의 재물이다.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다. 재물의 운용에 있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불교적 통찰을 명심해야 한다.

社說

매주 창간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1994년 10월 15일은 본지가 불자들에게 첫 선을 뵌 날이다. 올해로 열일곱 돌을 맞는다.

창간에 즈음한 때, 본지 회장인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은 "한국의 불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을 출범시킨 뜻이었다.

창간 이후 본지는 불교계 언론에 많은 변화를 선도해왔다. 교계 최초로 자체적으로 편집 인력을 운용하며 디자인이 가미된 지면을 소개해 왔고, 교계 최초의 섹션지 발행으로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교계 최초의 인터넷 붓다뉴스(現 현불뉴스)와 포털 부다피아(buddhapia.com) 등.

현재에도 본지는 교계 언론 가운데 최다 지면(매주 32면)을 발행하고 있다.

'초발심자경문'에서 "첫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바른 깨달음의 자리이다(初發心時便正覺)"라고 했다. 무명에 가리워져 어리석기 그지없는 중생일지라도 부처가 되겠다고 보리심을 발한 그 순간만큼은 부처와 다름없다는 말씀이다.

창간 제17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가족들은 불보살님과 독자 제현께 두 손 모아 합장발원한다. 대장경을 새기던 각수의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해 보도하겠다고.

매주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는 독자 제현의 가정에 법향이 가득하길 기원 드린다.

'직관과 단순함'으로 포교를

조계종이 9월 27일~10월 3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방문단은 지구 반대편의 그곳에서 만난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에서 영롱한 불심(佛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에 즈음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서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포교전략만으로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종단 교구제도의 점검과 직할교구 강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교전략이 소프트웨어라면, 교구제도와 직할교구 역할은 하드웨어에 해당한다.

6일 애플사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다. 아이폰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조계종 총무원의 성명처럼 '시공을 초월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무미건조한 하드웨어에 치중해 핸드폰을 판매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상생을 통한 새로운 문화였다.

반면에 조계종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교구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전략도 부재한 실정이다.

조계종이 스티브 잡스의 죽음 앞에 애도 성명을 낸 것에 많은 이들이 사회참여의 또 다른 발로라며 환영하고 있다. 애도의 시류에 편승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가 실천했던 '직관과 단순함'도 배우길 바란다. 그래야 수도권 불자들의 불심도 살리고, 세계인의 불심도 끄집어 낼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한국불교 알평승가회 가입 환영

귀의 삼보하옵고
석가세존의 자비실천을 바탕으로 위국 애민하는 마음으로 호국불교 이념을 견지하고 경주이씨 표암 알평공 시조를 기리기 위하여 경주이씨 문중 승려모임을 주창하는 바 후손들로 승단을 이루어 청정한 모임을 갖고자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4차 모임을 가 졌으며 회원스님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5회 모임 일시 장소

◆ 모임일시 : 불기2555년 11월 22일 정오(12시)
◆ 모임장소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칠전리 182-2 법융사
◆ 자격조건 : 알평공 후손 중 승려(비구, 비구니) 환영
◆ 신청방법 : 알평승가회 신청양식 1통, 사진 1매
◆ 입회비 없음. (2개월 1회 모임. 회비 3만원)
◆ 연 락 처 : 회 장 : 010-5290-4209
사무총장 : 010-3900-3050
◆ 문 의 처 : 053) 325-0400. 팩스 : 325-4848

한국불교 알평승가회
명예회장 / 만옹도일 큰스님, 영공도성 큰스님
회장 원각 합장

현대불교와 불서총판운주사가 함께하는

불서도서 BEST 12

인터넷 불교서점 붓 다 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과
현불샵 (02-2004-8213)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최상승해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정혜불이의 최상승법문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고목 지음 | 478쪽 | A5 | 값 17,000원 |
도서출판 밀양

오직 마음일 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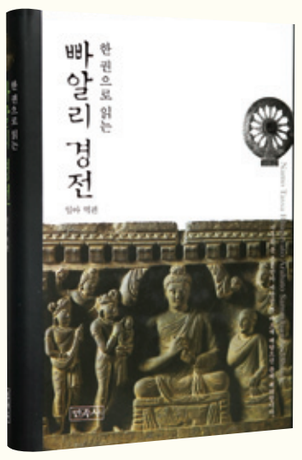
유식의 세계

한글세대 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Mind-Only Science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의 세계 는 한글과 영어를 통해 유식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교재이다. 유식학은 일상속으로 마음과 진리와 과학을 조화롭게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지혜의 보고이다. 내 몸과 맘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상응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 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논서이자 수행사를 만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 299쪽 | A5 | 값 12,000원 |
도서출판 밀양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빠알리 경전, 한 권으로 이해하라!

불교경전 중에서도 원전은 '빠알리 경전'이다. '빠알리 경전'은 직계 제자들의 암송을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모두 이 빠알리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경전에서는 위대한 영적인 힘을 지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감명 깊은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뇌하는 부처님의 진솔한 모습, 중생에 대한 한 없는 자비와 연민 등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경전은 오직 빠알리 경전뿐이다.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역자 일아스님은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에서 〈빠알리 경전 속에 나타난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학위 논문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빠알리 경전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빠알리 경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간단, 소박하고 순수하며, 들으면 곧바로 이해가 되는 점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일아 역음 | 양장 | 752쪽 | A5 | 값 28,000원 **민족사**





그래서 사랑입니다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진 해온 한 법사의 글 모음집

머리말에서 글쓴이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글, 설득하기보다 가슴으로 안아 주는 글, 꾸밈없이 진솔한 글을 쓰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들은 그동안 부대 장병들에게 매일같이 편지로 보냈던 글들을 모은 것으로 세상과 단절된 이 공간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애쓰는 많은 장병들에게 아침마다 인사하며 나눴던 내용들이다.

혼자 걷는 사람
좁은 길, 험한 길, 아픈 길을 걷는 이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남기신 체온으로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형지 지음 | 형지 그림 | 288쪽 | B6 | 값 13,000원 **참글세상**



공겁인 空劫人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와 제자들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의 생생한 언행 기록한 선어록을
8년 여의 자료조사와 인터뷰로 되살아난 스승의 가르침

이 책은 백봉 거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열한 명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와 녹취, 비디오 촬영에는 1년 반이 걸렸지만, 각자의 수행기 작성 등 자료조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8년간의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

백봉 거사의 감동 깊은 구도기와 깨달음,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은 재가 불자를 비롯한 출가 수행자에게도 의미심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백봉 거사 문하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재가 수행자들의 각고의 노력,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화두 타파와 깨달음, 스승의 인가(또는 인정)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의 마음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운초 지음 | 부분 칼라 | 440쪽 | A5 | 값 16,500원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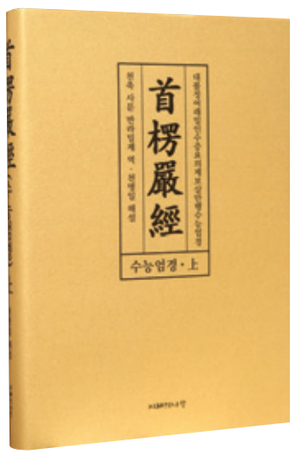
바람이 지은 집 절

산과 산에 깃들어 있는 절집을 만나다!

한번쯤 지친 일상을 접고 산을 찾기에 알맞은 계절이다.
산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선 채로 우릴 맞지만, 산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기 일쑤다.
탐욕이 빚어내는 세상은 늘 불편하다. 산으로 가는 길은 한 번쯤은 현실에서의 부대낌을 내려놓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다. 휴식과 재충전, 혹은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다. 하지만 때론 번잡한 마음만 더욱 일으킨 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윤재학의 신작 『바람이 지은 집, 절』은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줄 만큼 상큼한, 산과 그 산에 깃들어 있는 절집에 대한 책이다. 군더더기 없이 맛깔나는 글과 글만큼이나 정제된 사진을 감상하는 맛도 이 책이 주는 커다란 즐거움이다.

윤재학 지음 | 정정현 사진 | 248쪽 | 규격外 | 값 12,000원 **우리출판사**



수능엄경上

현재의 그 과학 속에 없는 답을 모두
수록한 진정한 과학의 백과사전!

인류의 머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난해한 문제들을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모조리 밝히고 있는 경전이 『수능엄경』이다. 인간 고뇌의 근본 문제는 전부 마음에 있습니다.

신神이라 자처하거나 성인聖人이라는 분들이 수없이 왔다 갔으나 그 마음의 비밀을 밝히신 분은 오직 석가세존뿐이다. 세존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그 마음으로부터 세계와 중생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명쾌하게 밝히셨다. 저 많은 성서나 경전 중에서도 불경인 『수능엄경』이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지혜의 성전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전의 원제명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천명일 지음 | 양장 | 278쪽 | A5 | 값 20,000원 **지혜의나무**



산문의 향기

수행자의 만행을 통해 인생의 한 방향을 제시하며 삶의 지혜를 느끼게 해 주는 책!

오늘 날 각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자아(自我)를 넘어 대 자유를
향한 한 구도자의 삶이 한 줄기 청량제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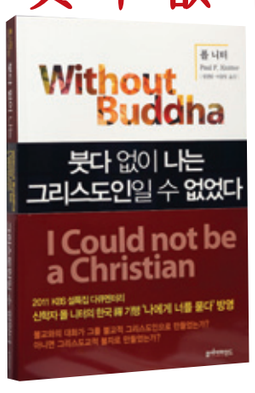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저자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만행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불교 법문이나 선문답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훈훈한 삶과 에피소드 등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때로는 선시나 경전의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산문의 고행과 만행, 수행과정 등에서의 이야기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지 않고 정감을 느끼게 한다.

각 글들의 이야기 말미에 느낌과 회향의 마음을 표현하여 우리들의 삶에 지혜의 향기로 가슴을 울려 주며 삶에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있기에 가볍게 읽으며 마음을 다스려 보기에 좋은 책이다.

제운 스님 지음 | 양장 | 259쪽 | B6 | 값 12,000원 **지혜의나무**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불교와의 대화가 그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질문이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느낀 질문이기도 하다. 내가 불교에서 배운 것, 또는 불교의 빛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교 믿음들을 이해하고 해석한 방식이 여전히 그리스도교 경전 및 전통과 일치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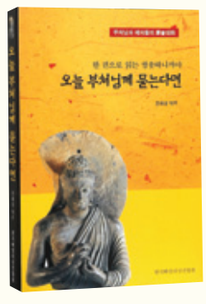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다시말해서,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잔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2011 KBS 설특집 다큐멘터리 신학자 폴 니터의 한국 禪 기행 '나에게 너를 묻다' 방영

폴 니터 지음 | 정경일 역음 | 401쪽 | A5 | 값 19,000원| **클리어마인드**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한권으로 읽는 쌍윳따니까야



이 책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쌍윳따니까야 전집의 2889개 경에서 발췌한 180개 경전을 모은 것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수행과 교리와 관련된 58개 경전을 추가하였다.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윳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구로 만들었다. 각 경전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편집하여 생동감과 현실감을 높였으며, 각 주제들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과 고민들로 구성하였다

전재성 지음 | 전재성 역음 | 665쪽 | A5 | 값 30,000원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신들과 인간의 스승

한권으로 읽는 디가니까야



이 책은 다가니까야의 34개 법문에서 9개의 법문을 가려 뽑은 선집으로, 부처님 당시의 64개의 사상적 흐름을 소개하는 긴 법문에서부터 초기불교 수행의 바이블인 새김의 토대의 큰 경, 즉 대념처경이나 완전한 열반의 큰 경인 대반열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가니까야 앤솔로지 지음 | 전재성 역음 |
622쪽 | A5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여기 서 있는 그대 화해하십시요”

꿈 하나만 믿고 세운 범기독인모임 떼제(Taize) 공동체를 가다

“댕~ 댕~.” 정오가 되자 종소리가 울렸다. ‘화해의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여기 서 있는 그대 화해하십시오.” 교회 앞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말을 뒤로 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다. 예배당 안에는 수천 개의 촛불과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앉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 하거나, 혹은 서거나. 피부색이 서로 다른 500여 청년들의 모습 또한 제각각이었다.

흰 옷의 수사들이 두 줄로 정렬해 앉자, 예배당 안에는 침묵이 흐른다. 거대한 침묵 속에 예배당 안의 이들은 어느새 하나가 됐다.

프랑스 파리의 리옹역에서 TGV를 두어 시간 타고 크르조역에 내려, 다시 버스로 1시간 여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그곳. 떼제(Taize).

작은 마을 이름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행단체 이름으로 대신하게 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 일행은 흰 옷의 수사들을 만났다. 순백색의 가운을 걸친 이들의 표정은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할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맑았다.

이들의 맑음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청빈(淸貧)에 있었다. 어떤 기부도, 설사 뜻있는 상속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50년간 지켜져 온 곳. 공동체 운영비용 등은 참가자들에게 받는 숙박료와 수사들의 노동으로 충당되고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참가자들은 출신국가·연령에 따라 차등된 숙박료(5~7.5유로)를 내면 된다. 한 해 10만명이 떼제공동체를 찾아와 기도와 묵상, 봉사를 한다니 그 규모가 미루어 짐작된다.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을 맞은 떼제공동체 원장 알로이스 수사가 말했다.

“떼제를 방문해 준 스님들이나 우리 수사들은 너무 상이한 전통에서 살아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까워보인다. 오늘 하루 이 가까워 보임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싶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수사들의 눈빛과 얼굴이 맑아 부처님 같다. 독신수행자라는 동질감, 발우공양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는 유사한 식문화에서 스님과 수사들의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떼제(Taize)공동체는 세계2차대전 중이던 1940년 8월, 25세 청년 로제(Roger Louis Schutz-Marsauche; 1915~2005) 수사가 동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에 홀로 와 정착하면서 시작됐다.

스위스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청년 로제는 전쟁 중에는 유대인을 숨겨줬고 전쟁 후에는 독일군 포로들을 돌봤다.

돈도 조직도 없던 청년 로제가 가진 것은 단 하나였다. 그것은 ‘꿈’이다. 로제의 꿈은 이 세상에서 서로 화해하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꿈이 있었다.

1949년, 로제의 꿈에 마음을 모은 7명의 수사들이 독신 생활, 수도원장의 직무 인정, 물질적·영적 재산의 공유를 서원했다. 1952년 떼제의 규칙을 설정했다. 첫 수사들은 개신교회 출신이었으나 이후 가톨릭 신자들이 입회하면서 범기독교 수행공동체로 거듭났다.

현재 떼제공동체에는 25개국 출신 100여 명의 수사들이 수행 중이다. 이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등 세계 방방곡곡에 또 다른 떼제를 세우고 로제의 꿈을 실현시키는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알로이스 원장 수사를 만나는 동안, 나머지 일행들은 알로이스 원장이 ‘형제’라 부르는 수사들과 시간을 보냈다.

헝가리에서 이곳에 온지 9년됐다는 안드레아스(Andras) 수사가 말했다. “떼제공동체는 ‘빛과 소리로 마음을 움직인다’는 원칙이 있다”고. 실제로 이곳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지도의 대부분이 ‘가르치기’가 아닌 ‘들어주기’로 진행된다.

1970년을 즈음해 유럽 사회에 투쟁이 화두던 때, 이곳에서는 “(젊은이들이여) 투쟁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투쟁에 명상을 접목시켜 구호로 삼았고 이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떼제공동체의 분위기는 자연스러웠다. 캠핑장 내지 팬션촌과도 같은 공동체 곳곳에는 10여 명씩 무리지어 둘러앉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여럿 눈에 띄었다. 성경공부를 위한 모임이라고 했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98%에 달하지만 유럽인들은 일생에 세 번만 교회를 간다고 들었다. 태어나면 영세를 받기 위해 한번, 결혼식을 위해 한번, 죽으면 장례를 위해 한번. 그러나 떼제공동체를 찾은 젊은이들은 달랐다.



공동기도 시간. 알로이스 원장 수사의 모습



떼제공동체의 기념품샵.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건 대부분은 수사들이 만든 것들이다.

젊음의 고뇌를 쉴 수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등.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한번 이상 떼제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떼제의 한국인 신성열 수사는 “떼제가 독일과 인접한 탓에 독일 학교들이 방학을 맞으면 5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이곳을 찾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떼제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1주일 프로그램이 연령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과를 보낸다. 오전 8시, 오후 12시, 저녁 8시 하루 세 번 화해의 교회에서 열리는 공동기도만 참석하면 될 뿐이다.

수사들은 이들에게 성경 묵상을 인도하고 묵언과 소그룹 대화를 지도한다. 또, 예배가 아닌 시간에는 각기 공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 악세사리 등을 만든다. 이 물건들은 떼제공동체 한켠에서 판매되고 있다.

알로이스 원장 수사는 “청년들은 1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삶의 의미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우정, 마음의 평화가 떼제공동체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알로이스 원장 수사는 “떼제를 찾은 이들은 공동기도 시간 중 침묵 시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침묵은 다양함 속에 공통성을 느끼는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떼제공동체는 조계종에 비하면 작은 단체이지만 그 영향력은 10배는 큰 듯하다”며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배울 것은 배워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알로이스 수사와 대담을 통해 “조계종과 떼제공동체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일행은 떼제를 떠나 다시 파리로 돌아오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그늘 하나 없이 땡볕이 내리쬐는 플랫폼에서 1시간 넘게 연착되는 TGV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원장수사와 수사들이 주고 받던 떼제의 외침이 귓전을 맴돈다.

“모든 일에 마음의 평화를(En tout la paix du coeur).”

“기쁨과 소박함과 자비를(la joie, la simplicite, la misericorde).”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원장 대 행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www.hanmaum.org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국내 · 국외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1-718)460-201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9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FAX:(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참선(參禪)이 명품, 젠(Zen)은 짝퉁

프랑스서 한국불교 소개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불교에는 참선(參禪)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젠(Zen)에 얽매인 것 보면 답답하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참선을 세계 브랜드화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방문단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9월 27일~10월 2일 프랑스를 방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일 방문단 숙소인 풀만 빠리 몽빠르나스(Pullman Paris Montparnasse)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불교 저평가 속상하다"
프랑스에 한국불교 적극 홍보
사찰음식 현지 반응은 'A+'

자승 스님은 "해외에 나와 보면 한국불교의 저평가에 속상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선을 세계 브랜드화 하겠다는 스님의 의지는 9월 28일 기메박물관 방문 때 두드러지게 됐다.

기메박물관 관람 후 기념품 코너를 둘러보던 자승 스님에게 동행했던 혜민 스님이 "이것 좀 보시라"며 선 관련 책자를 보였던 것. 혜민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에게 "선 책자에 중국·일본 선이 전부인 양 기술돼 있고, 한국불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현장에서 "선에 대한 서구에서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템플스테이 책자 등을 비롯한 한국불교 관련 서적을 프랑스어로 제작·배포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내렸다.

프랑스 방문은 조계종 33대 집행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두 번째 행사였다. 조계종은 프랑스에서 ▷사찰음식 ▷간화선 ▷전통문화 ▷템플스테이에 중점을 두고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 떼제공동체, 유네스코 본부, 파리7대학 등 방문단은 한국불교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해냈다.

이번 파리 방문은 뉴욕 방문시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총장을 만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 지원기금 4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스님은 이번 프랑스 방문 일정 중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 조계종과 유네스코 간 공동사업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총무원장스님은 공식일정 중 파리7대학 행사를 가장 인상깊었다고 꼽았다.

"파리7대학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환영해 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에 가슴 벅찼습니다."

자승 스님은 "많은 서구인들이 호기심으로 한국불교를 접하고, 사찰음식을 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음식의 스토리에 매료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음식에 대한 존귀함에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인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사찰음식이 전통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님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통에 얽매이기 보다는 서구인을 위한 음식의 스토리, 감동에 중점을 두고 맛 외에 채식요리라는 방편에 주목하겠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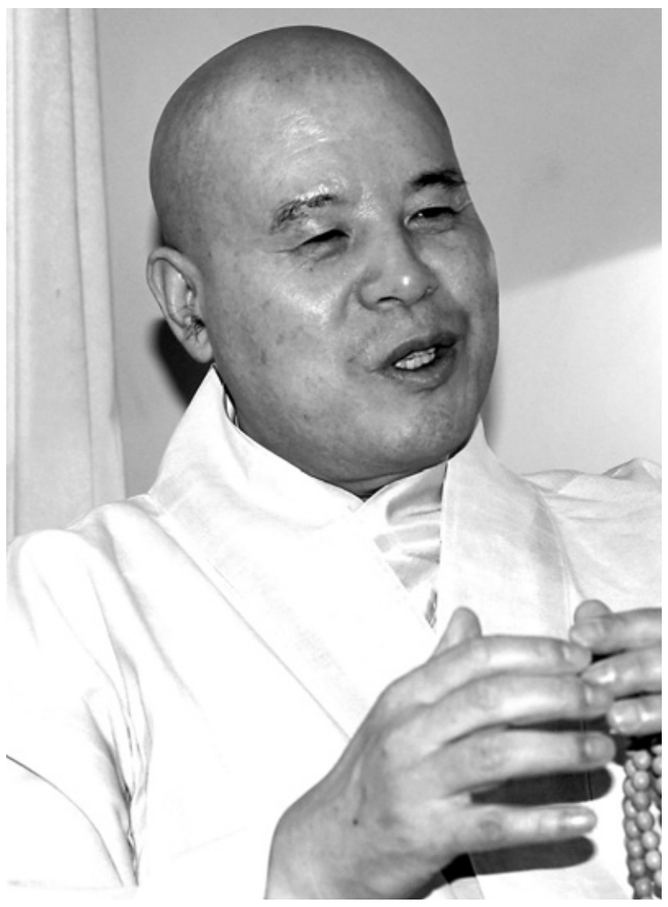
배석한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소박·순수한 음식은 사찰전통음식으로, 사찰음식은 사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떼제공동체 방문을 통해서는 그곳의 장점을 분석해 템플스테이와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을 장기간 떼제공동체에 파견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3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다. 그동안 조계종은 공격적·적극적이지 못했다"면서 "임기에 연연하거나 자리 지키기, 종단 화합에 급급했던 과거 집행부와는 달리 한국불교를 세계로 알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10~2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립해 놓은 한국불교 로드맵대로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대정부관계에 관해서는 조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기동안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매진하고
인재양성에도 총력 기울일 터
콜럼비아대 年 10만달러 지원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세계인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며 "한국불교 세계화가 국익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 정부도 저절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교구를 설치하는 한편, 한국불교를 알릴 홍보대사 등을 위촉·파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美 콜럼비아대에 매년 10만 달러를 지원해 한국(불교)학을 하는 학생을 육성키로 했다.

스님은 "과거 인연에 따라 학비를 조달하던 유학승을 이제는 종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면 종단에 쓰임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뉴욕 방문 때도 그랬고, 이번 파리 방문에서도 평가회의를 주재했지만 결과는 미숙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파리 방문은 노력점수는 100점이나 결과는 미지수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집행부가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행착오에서 큰 것들을 배워 2012년 일정에서는 더 큰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스님은 인천공항 출발시부터 다시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여정과 경비를 보고받고 일일이 체크할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종단 분담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값지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종도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기 동안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조계종, 유네스코와 룸비니 간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력 다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프랑스 방문 4일째인 9월 30일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 환담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는 다른 다양한 문화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다가 조계종과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상이 같기에 더욱 더 연대할 수 있다"며 총무원장스님 일행을 환영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전통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간 평화에도 관심이 높다. 유네스코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면 종단의 역량에 맞게 크던 작던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은 "연등축제 등 여러 유무형 전통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만큼 사무총장께서 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승 스님과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아이티 지원사업과 2013년 세계종교지도자포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조계종과 유네스코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제안한 룸비니복원사업을 위한 네팔 방문에 함께하기로 했다. 11월 예정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방한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환담에는 기획실장 정만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통역 혜민 스님과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유네스코에서는 호소야 사무총장 비서실장, 에릭폴터 대외협력 사무총장보, 에믹꼬 무라이 사무총장 비서실 아시아태평양담당과장, 장기원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 장재복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공사가 참석했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연등축제 세계유산 등재 돕겠다

사찰음식 극찬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한국불교가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등축제 등 한국불교 문화재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9월 30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각국 대사를 대상으로 열린 만찬 '생명과 평화를 위한 공양' 전 이렇게 말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의 만찬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의 긴 문화역사를 잘 알고 있다. 조계종이 유네스코와 많은 일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불가리아 정치인으로 유럽통합 담당 장관 등을 거쳐 2009년 9월 유네스코 첫 여성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유네스코 60여 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불가리아의 NATO 및 EU 가입에 큰 공을 세운 외교관이던 그녀는 사무총장 선출 당시 이집트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화가였던 호스니 장관을 4표차로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젊은 시절 선(禪) 관련 서적의 번역을 시도했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다.

이날 만찬에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선에 관한 책을 번역하다 공안을 옮기기가 어려워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방한때 템플스테이를 통해 젊은 시절의 궁금증을 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한국불교계가 펼치는 음식 남김 없는 캠페인(빈그릇운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사찰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이 아름답고 맛도 좋다"며 극찬했다.

한편, 만찬에는 조계종 대표단을 비롯해 보코바 사무총장 부부와 유네스코 주재 각국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왼쪽)과 만찬 전 환담을 나누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모습. 두 사람의 손에는 와인 대신 오미자차가 들려 있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0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10월 2일 프랑스 파리 길상사에서 봉행된 개원 18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조계종 방문단의 영산재가 공연됐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원조 길상사가 있다

우리가 아는 송광사 분원 길상사는 서울 성북동에 있다. 한때 밀실정치의 현장이던 요정 대원각이었던 곳이다. 요정은 故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가 인연이 되어 부처님 도량이 됐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상사가 처음은 아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법정 스님이 이름 붙인 최초의 길상사가 있다.

프랑스 길상사는 파리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토흐(Torcy)시 주택가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이 절은 어떻게 이곳에 자리 잡게 됐을까?

20년 전인 1991년 5월 19일 파리 시내 한식당 '가람'에 한 무리의 사람이 모였다. 프랑스 거주 불자였던 그들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겸한 '재불교민 불자회'를 창립했다.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부처님 그늘에서 다독이며 수행을 통해 스스로 위로하고 견뎌내기 위해서였다.

마음이 모이니 길이 열렸다. 같은 해 10월 13일, 파리 방문 중이던 故 법정 스님이 파리 시내에서 법회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법정 스님은 교민 불자들의 정신적인 안식을 위해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스님은 발원했다.

법정 스님이 주관한 '길상사 건립을 위한 모금 강연회'에 이어 프랑스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한-재불 미술작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프랑스에 부처님 도량을 세우기 위해 많은 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기금이 모였다.

그 결과 1993년 7월 현재 길상사가 있는 토흐시 소림로 32번지의 가옥을 매입했다. 쓰러져가는 집을 유학생 등 재가불자들이 힘을 모아 단장했다. 십시일반 서툰 손으로 단장한 도량에 인간문화재 박찬수 선생의 본존불이 봉안됐다. 재불서양화가인 연화장 방혜자 선생이 그린 후불탱화가 불상 뒤에 모셔졌다. 1993년 10월 10일 법정 스님을 회주로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 창건법회가 봉행됐다. 초대주지는 청학 스님이었다. 이후 파리 길상사는 프랑스 한인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주지도 여러 스님이 다녀갔다. 영명 · 자명 · 지묵 · 회일 · 천상 · 무이 스님을 거쳐 현재의 혜원 스님까지. 혜원 스님은 2006년 11월부터 길상사에 머물고 있다.

길상사는 프랑스 정부에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다. 불자들의 정성으로 정비된 도량은 건물 2동에 법당 대중방 공양간 요사채 등을 갖추고 있다. 사찰은 거사림회, 보현회, 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운영된다.

길상사의 법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매주 법회 참석인원은 50여 명. 이 가운데 현지인은 5명쯤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창건기념일은 파리 길상사의 가장 큰 행사이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찾은 조계종 방문단이 길상사를 찾은 10월 2일은 마침 길상사 개원 18주년 기념법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 스님이 이끄는 동희범음회가 영산재 공연을 펼쳤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현 스님은 법문에서 "가슴으로 하는 신행생활, 나눔을 생활화하는 신행생활, 하루 한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신행생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 18주년 기념법회의 주제는 '꽃비 내리는 날'이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니 꽃비가 내렸다고 했다. 이른바 법화육서(法華六瑞) 중 우화서(雨花瑞)이다. 파리 길상사 개원 18주년 기념법회 날, 모두의 가슴에 꽃비가 내렸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


파리 길상사 개원 18주년에 참가한 사부대중들


파리 길상사 전경

#네이버 길상사 카페: cafe.naver.com/kilsangsa
#파리 길상사 주소 : 32, rue du Petit Bois 77200, torcy
#찾아가는 방법 : RER A4선(디즈니랜드 방향) 'Torcy' 역에서 220번을 타고 'Les Tilleuls' 정류장 하차. 버스진행방향으로 조금 걷다 'rue des Tilleuls'로 우회전, 4번째 골목이 'rue du Petit Bois', 이후 번지수를 찾아가면 된다.

"영산재? 우와~ 한국불교문화 아름다워요"

조계종 방문단 파리7대학서 영산재 공연·간담회 열어

프랑스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한국불교문화의 정수인 영산재가 공연됐다.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은 9월 30일 파리7대학에서 영산재 공연과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벵상 베르제 총장, 마틴 프로스트 한국학과장을 만나 조계종립 동국대와 파리7대학의 교류 증대, 한국학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약속했다.

벵상 베르제 총장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환담에서 "프랑스 내 유일한 파리7대학 한국학과는 지난 6년 동안 학생수가 3배이상 늘어났다"며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마틴 프로스트 학과장은 "(한국불교가) 다른 나라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하지만 한국불교와 우리 대학이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 관심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연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고 체험하고자 한다면 템플스테이 참가와 연구자료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동국대와 파리7대학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야닉 학과장이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교훈으로 삼을 만한 좋은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에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의 즉심즉불(卽心卽佛)의 가르침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사회에서의 여러 갈등이 우리 마음 속에 번뇌를 일으킨다.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평화를 이루고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담 후 동희범음회(회장 동희)가 주관한 영산재에는 한국학과뿐만 아니라 파리7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국학과 3학년 로안(Loan) 씨는 "17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문화를 배우기 힘들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학과 장혜진 강사는 "파리7대학에서 한국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최신 자료가 부족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프랑스 학생들은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열려있는 만큼 영산재 공연 같은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 특히 1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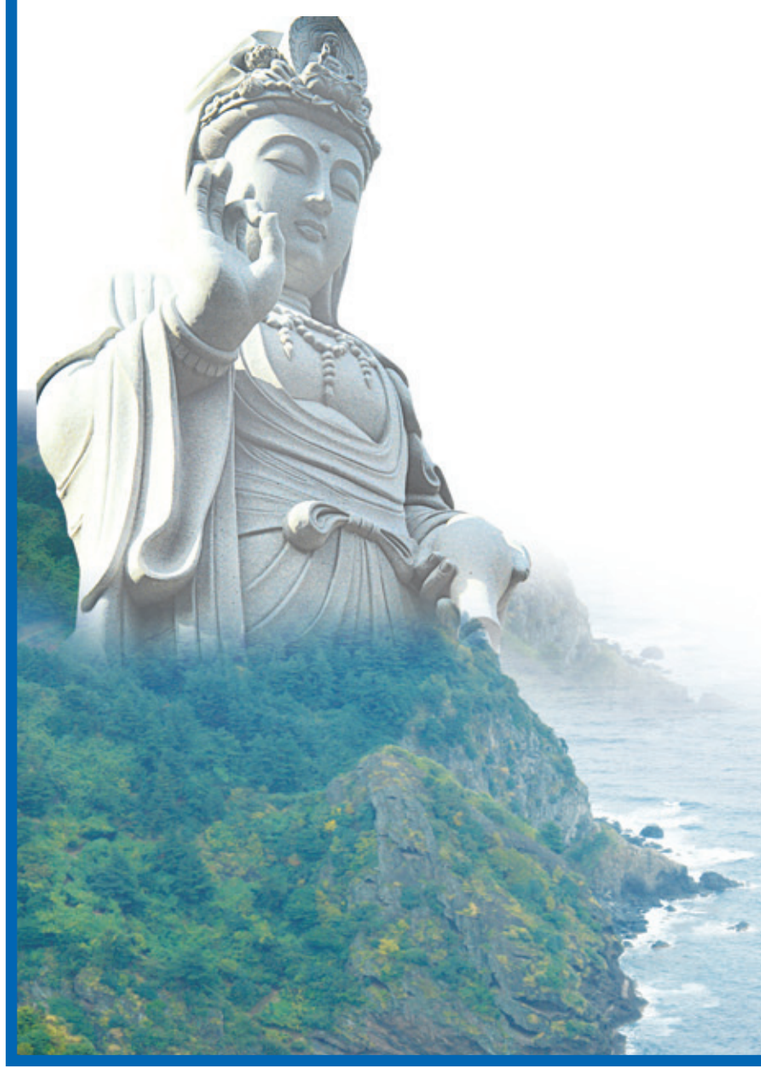
영산재 공연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 향적 스님과 미국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 동희법음회 회장 동희 스님이 나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은 이날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특징과 아시아지역 불교 현황, 티베트 음악과 한국 영산재와의 차이 등을 물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조계종 방문단을 비롯한 파리 7대학교수 · 학생들이 영산재를 관람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파리 제7대학 벵상 베르제 총장(오른쪽)으로부터 캠퍼스를 소개받고 있다.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울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남양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 도 일 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살아 있을 때는 삶,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 벽암록 –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대승종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아파트 B상가 303호 / 전화 02)952-1074 팩스 02)952-1079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도 일 동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011-228-7813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전 종도의 이름으로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 총본산 : (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진원암 / 부산시 남구 우암14동 174-32 총무원
■ 전 화 : 051)638-4088 / 010-4540-4088. 총무부장 055)532-4414 / 011-507-2837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 011-9090-1049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등록번호 206-82-65359〕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혜 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 수 석 이 사 **혜 성** (대한불교구화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향 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준 석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해 월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중 식 (법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숙 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감 사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진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팩스 02)2201-1163

심리치료, 사회 참여와 접목하며 정착 중

좌선을 하고 명상에 잠긴 서양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을 만큼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신교를 국교처럼 여겨지는 미국에서 한국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현재 미국에는 80여 한국 사찰(조계종 기준)이 분포돼 있다. 미국인을 포함한 250만 이상의 인구가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다.

미국에서의 불교는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고학력 엘리트 집단에게 인기를 끌었다.

미국인들은 곳곳에서 단체 활동을 통해 불교 명상을 하는 등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 미 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뉴욕 원각사에는 미국인 스

80여 사찰 미국 내 분포해 있어
명상 · 재가 중심이 미국불교 특색
물질문명 한계에 점점 관심 커져


미국 사회에 한국 불교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美 유니온 신학대에서 간화선 실참에 참가한 미국인들

님들이 직접 미국인과 한인 2세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불교는 특히 심리치료 등 의학 분야의 접목에서도 활발하다. 실제로 틱낫한 스님은 미국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나온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이 미국식 불법(佛法)과 유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삼보의 하나인 스님들 중심이라면 미국은 재가자 중심의 활동이 뚜렷하다. 재가자 중심의 활동과 민주주의와 사회 참여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이 반영돼 미국불교는 자연스럽게 사회참여적 성격이 강화됐다.

개신교 종교학자인 폴 니터 교수도 9월 16일 유니온 신학대에서 열린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과의 종교간 평화대화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사회참여를 미루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에서의 불교인구의 증가는 급속한 사회 발전에서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기독교의 한계와 연결된다. 불교가 참선과 명상을 강조하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물질문명의 한계를 느낀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2007년 363개까지 증가했던 뉴욕 한인교회는 이후 점차 감소 2009년 1월 기준 312개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교회 감소의 원인을 잇따른 내분과 추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빠른 변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궁금증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간화선과 같은 한국불교명상은 미국인들의 이런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8월 9일 열린 제33차 종무회의에서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승인했다. 또 초대 교구장으로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을 9월 27일에 선출자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스님 개인의 원력에 의지했던 해외포교가 종단 차원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장기적 안목 통한 지원 필요"

美 콜럼비아대 한국불교학 연구자 김수정 씨

달라진 한국 불교 위상 체감
체계적 전략 부족은 아쉬움

"장기적 안목의 지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 신자가 대부분 이민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김수정(33) 씨는 2007년 한국에서 불교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콜럼비아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현재 논문 제출만 남겨놓고 있다. 콜럼비아 대학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국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한국불교를 가르칠 계획이다.

콜럼비아 석사과정 당시 김 씨는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유일한 학생이었다. 함께 공부를 하던 2명의 학생 중 한 명은 전공을 바꿨고, 다른 한명은 UCLA 박사과정에서 원불교를 배우고 있다. 김수정 씨는 "내년부터 콜럼비아 대학에서 한국불교 전공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면 한국불교 전공학생들도 늘어나고 미국에서 한국학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씨는 미국에서 뉴욕 조계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과 미국 스님인 명행 스님에게 여러 조언과 도움을 받기도 한다. 로버트 써먼 교수의 '인도티벳불교' 수업 조교를 하던 2010년에는 명행 스님을 초청해 학생들과 토론을 갖기도 했다.

김 씨는 학부생 시절 서울 조계사에서 자원 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 당시 조계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무지함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최근 한국불교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김수정 씨의 눈에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

"세계화에 대한 열의는 높은데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며 대학 중심의 불교학 발전과 사찰 중심의 한국불교 포교의 두 가지 작업이 강화돼야 합니다."

김수정 씨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불교의 미국 포교를 위해 뉴욕 조계사 등 사찰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스님들을 적극 활용하는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영어나 한국어 서적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불교를 가르치는 교수직 설치 지원과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자 김수정 씨

김 씨는 "넓은 시야를 갖고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확립시킬 것인지를 조망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더 빨리 한국불교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고

전체 미국 교민 중 불자는 7% 밖에 안된다

미국은 이민 문호가 개방된 이후 세계종교가 들어와 종교백화점이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기독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타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등 타종교와 상호 이해 속에서 종교공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주류 미국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친근하게 접근되고 있는 종교는 당연히 불교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불교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많은 사찰들이 설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불교가 훨씬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적어보고, 필자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불교의 현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 이후 미국 불교의 새로운 반응

1990년대 이전의 미국불교는 아시아 이민자들의 소수 종교로 그들과 또 일부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닫힌 동양의 종교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 일반 국민들에게 활짝 열린 종교가 됐다.

첫째가 달라이라마의 등장이다. 1989년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텐진가쵸 달라이라마께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불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달라이라마와 불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영화 제작자들이었다.

영화산업의 본고장이고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진 이 지역에 위치한 헐리우드 영화인들, 특히 유명한 배우들이 달라이라마를 직접 친견하고 불자가 되어 그분을 초청해 많은 행사를 열었다.

그 후 달라이라마와 티베트불교에 대한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돼 일반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둘째, 틱낫한. 베트남 출신 틱낫한이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플럼 빌리지(Plum Village)' 수행센터를 만들고 활동하던 중 달라이라마에 이어서 다시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등장하면서 그의 업적과 종교적 수행력이 미국에 퍼졌다.

틱낫한은 달라이라마 만큼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의 저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미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틱낫한은 2000년부터 미국 동부 뉴욕지역과 서부지역 샌디에고(LA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 지역에 '디어 파크(Deer Park)' 수행도량을 건립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샌디에고 수련장은 필자가 개원 당시부터 수차례 방문했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수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미국 기독교 신앙의 위기

미국의 종교관련 통계 전문가인 '조지버나' 가 '미래예측' 이란 책을 최근에 발간했다. 이 책에 의하면 성경이 전적으로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은 46%에서 38% 로 줄었고, 지난 6개월 동안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24%에서 37%로 늘었다. 그리고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과거 74%에서 66%로 줄었다.

미국 복음주의협회가 정의하는 '진정한 신자' 는 미국인 전체의 7%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필자가 주지로 있는 정혜사는 3년 전 미국 백인들이 운영하던 교회를 구입해 이전한 도량이다. 이처럼 이곳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타 민족 불교인들도 교회를 사들여 절로 만든 사례가 많다. 그 만큼 교회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반증이다.

한국불교는 교민 종교 인구 중 7% 정도라고 현지 언론은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불교세가 아주 미약해 사찰 유지도 힘겨울 정도이다. 현지 미국인들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포교 방안 수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찾아오면 설명해주고 수행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지역 백인들이 한국사찰에 정기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극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현지 미국인들이 방문해서 불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종단과 연계해야

그 동안 많은 스님들이 포교에 열정을 갖고 헌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에 비해 한국 불교 상황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메가톤급 전도 폭탄에 불교는 파죽지세가 되어 이미 한국 교민사회는 기독교화가 돼버렸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도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 포교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현지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한 포교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지 사찰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스님들의 영어 구사 문제 등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 종단과 연계해서 연구해야 할 중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석타 스님 (미국 캘리포니아 정혜사 주지)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명예종정 명진 석법운

(종정실 사서실장 : 박선혜화) (종정실 경호실장 : 석법진)

원로회회장 석홍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윤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부장 석윤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통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 원 장 석운오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법오
부 원 장 김원열법사
1 국 장 석대덕
2 국 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울산종무원장 석현종
김해종무원장 석청해
거제종무원장 석덕운
대구종무원장 석청명
창원종무원장 석범일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범패,육효,학인모집 : 양력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축 현대불교 신문사 창간 17주년
화 경 청 적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 외 정

현대불교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정론직필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지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심 희 옥

창간 17주년 축하드립니다
“힘 세라 현대불교”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중화 정 우 식

현대불교신문이여!
세상을 깨우는
청량한 목탁이 되소서!
연꽃마을 覺賢 합장

현대불교신문 17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2천만 불자들의 신행과 소통의 공간이 되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인 공

창간 17주년기념을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자비가 부처님입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태광 손 원 주

불자와 함께 시민과 함께
역사와 대화하며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상임대표 퇴휴

창간 17돌을 축하합니다.
(사)불교언론사협회 회장 고 경 전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정론직필로 포교와 전도에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 련

창간 17년 축하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김 여 수

축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
불심의 성화와
불법홍포에 경인차 되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다불가연합회 회장 최 윤 준

축.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
현대불교신문과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정사精舍 연영 외 정신으로
정토淨土적 에 진력하 오심을 감사드리고.
불교 언론 창달을 위해서.
사佛 은 사도師道를 선도하여
한국 불교 발전 하실 것을 기원 합니다.
2011년 10월 15일 조계종 직지 대전
주 지 김 강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가 국민의 품으로

축하합니다.
소리 없이 흘러가 알 수 없는 사자처럼
세계 곳곳 두루 전달하시길.
국제선센터 주지 효 조

현대불교 창간 17주년을 축하 하며
발전을 기원 합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 현대불교신문 17주년 축하 메세지 -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온 현대불교신문의 17주년을 축하하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하나의 준이 되어 한국 불교의 나아갈 바에 대한 예정 이은 비판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현대불교신문의 지난 17년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같은 마음으로 불자들의 눈높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불자들의 노력 그리고 믿어 되어 한국 불교의 역사를 함께 해온 현대불교신문이 부처님의 지비와 광명을 온 누리에 비춰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어우러 짓을 밝히며 언제나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도반이 되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윤 타

현대불교 창간 17주년을 祝賀드립니다.
佛法홍포를 使命에 맞아 중생교화의 장이 되었던
현대불교신문은 현대佛教史에 소중한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祝賀드리며 창간 17주년의 참 뜻을
慶賀하 전교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惠 學 合掌

현대불교 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한상 정원 합장

현대불교 창간17주년은
축하드립니다!
동화사 포교국장 지현
2011년 10월 5일

현대불교 창간 17주년은 맞아
부처님 혜명을 밝히는 정론지로
우군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제포교사회 회장 배 광 식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의 중심!
현대불교신문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KBLI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이 인 七根

현대불교신문 창간17주년
축하드립니다. 불교언론의
대표신문으로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기자협회장 조용수 합장

한국 불교의 불법 포교를 위해 애써온 현대불교 신문사가 창간 1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아름다운 정토로 만들어 가는 길에 밝고 환하게 비추는 이정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합장

現代佛教 創刊 十七週年을
祝賀합니다. 더욱 精進하시고
世上을 向해 步幅은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古佛叢林 白羊寺
住持 定要

1994년 10월 15일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이 17 주년을 맞았습니다.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정진하여 정법(正法)을 선양하는 불교언론이 될 것을 서원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내가 왜 걷고 있을까?’ 물으며 걷고 또 걷는다

사단법인 ‘좋은 벗’의 ‘걸어서 거제한바퀴’ 두번째 행사


‘걸어서 거제한바퀴’ 행사의 참가자들이 자연을 벗삼아 이수도를 걷고 있는 모습.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해 보인다.

〈화엄경〉에는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려고 길을 떠나는 구도기(求道記)가 담겨 있다. 이처럼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초기경전을 들여온 것 또한 순례의 힘이었다.

부처님은 길 위에서 평생을 대중과 함께 하시다 열반에 드셨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선사들이 위법망구(爲法忘軀)하던 길들을 경남 거제의 청년 불자들이 걷기 시작했다. (사)좋은벗(대표 박기련)은 10월 1일 ‘걸어서 거제한바퀴’ 제2기 행사로 이수도 일주에 나섰다.

이수도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속한 섬으로 면적 0.38㎢, 해안선 길이 5㎞ 규모의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구법여행
새로운 불교포교 모델로 제시돼

동서로 길게 뻗어있다. 이날 걷기 행사는 이수도 선착장에서 78m 높이의 구릉에 오르고, 숲길을 따라 섬을 일주하는 코스로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행사에는 제2기 좌장을 맡은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과 4명의 좋은벗 회원들을 비롯해, 거제시민 20여 명이 동참했다.

최근 ‘걸어서 거제한바퀴’에는 거가대교 완공으로 인해 부산 시민의 참여도 늘고 있다. ‘걸어서 거제한바퀴’는 거제도의 길을 걸으며 역사와 생명, 이웃의 고마움을 깨닫기 위한 행사이다. 2009년 3월 29일 거제도 남단의 학동해변가에서 시작된 좋은벗들의 발걸음은 65주차인 2010년 7월 3일 첫 번째 대장정이 끝났다. 이들은 2년 6개월간 거제도의 해안길 700리, 내륙길 300리, 12개의 산과 6개의 섬 길을 따라 걸었다.

김원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기획개발팀장은 “2009년 3월부터 창단을 위한 준비모임을 시작한 이래 단 한주도 빠짐없이 진행되다 보니 좋은벗 회원들이 매주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제의 아름다운 길을 걷겠다는 초발심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절과 공휴일은 물론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꿋꿋이 행사를 진행했다. 덕분에 둔덕면 술역마을에서 사등면 청포마을로 이어지는 잊어진 옛길을 찾는가 하면, 농부에게서 직접 가조도 특산물인 흰고구마를 맛보기도 했다. 그렇게 거제도를 한 바퀴 다 돌고 2월 20일부터 두 번째 대장정을 진행해 왔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걸어서 거제한바퀴’ 인 제1기 행사에서 “매순간 절차탁마(切磋琢磨) 할 것”을 조언했다. 스님은 “길을 걷는 가운데 함께 걷는 도반과 길 위에서 만난 이웃, 대자연을 훌륭한 도반으로 삼아 소통하고 교감하며 끊임없이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삶의 터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면 터전을 두 발로 걸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편은 없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고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 스스로에 대해 성찰해 곧 깨달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했다.

이수도 선착장에서 마을길을 따라 구릉 정상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오르다보면 어느새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힌다. 첫 걸음을 뗄 때는 처음 참선 수행에 들 때처럼 ‘내가 왜 왔을까?’ 부터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요즘 신경 쓰는 일에 대한 생각 등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한없이 이어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산란했던 마음자리가 고요해졌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풀잎과 바람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걷고 있는 내 안의 나와 마주하게 된다. 때문에 ‘걸어서 거제한바퀴’의 걸음은 여느 등산과는 엄연히 다르다. 진여(眞如)를 찾아가는 행선(行禪)이자 구법여행에 가깝다.

박기련 좋은벗 대표는 ‘걸어서 거제한바퀴’가 2년째 이어온 원동력을 ‘소통’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길 위에서 만난 자연과 여러 생명체와 호흡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걸음 걸음에 반성과 참회의 꽃을 피웠다”며 “좋은 벗들과 함께 걷는 즐거움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넘어 배려와 소통을 배운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걸어서 거제한바퀴’는 박기련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청년 불자들이 모여 현재 행사를 이끌고 있다. 지난 달 대원상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오정림 미소금융거제지점장과 서명희 파라미타거제지회장,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은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이다.

좋은벗과 ‘걸어서 거제한바퀴’ 행사는 아직까진 불교적 색채를 많이 내세우고 있진 않다. 종교 간의 장벽과 지역감정, 세대 간의 격차 등을 뛰어 넘어 거제도와 걸음 걷기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길 위에서 좋은 벗이 될 수 있다.

김윤경 2기 좌장은 “포교라는 것이 꼭 사찰에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만 이뤄지진 않는다”며 “요즘 젊은이들은 함께 느끼고 실천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함께 걷다보면 실천적인 불교를 보여주고,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포교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걸어서 거제한바퀴’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이 진행된다. 바로 삼배다. 이수도의 선착장에서 함께 길을 떠날 도반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둘러서서 삼배로 인사를 나눈다. 이러한 인사는 하루의 일정을 마치는 길의 끝에서도 반복된다. 절집에서 말하는 삼배는 부처님 가르침 스님에게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로 세 번 절을 한다.

행사의 삼배는 혼자서는 외로울 이 길을 함께 걸어줄 도반과 자연에게 기꺼이 몸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배우는 것이다. 행사에 참가한 유상규 씨는 “거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옛 사람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어 내가 사는 지역을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며 “걷기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계영 씨는 “고향인 거제도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 지역의 토박이지만 빠른 산업화로 거제의 순수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려 아쉬웠는데,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숨겨진 길을 발견하는 재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 ‘걸어서 거제한바퀴’는 단순한 건강 증진이나, 단순한 여행코스가 아닌 거제도의 흙 한줌, 풀 한포기, 바람 한줄기, 부서지는 남해의 바다를 온전한 모습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해 길에 오르는 것이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길 위에서 얻은 깨달음의 기쁨을 나누는 청년 선객들의 아름다운 구법여행이다. (055)632-0366

박지원 객원기자 hobit777@hanmail.net


참가자들이 삼배를 하는 모습



이수도를 완주한 참가자들의 표정이 한없이 밝다.

사 찰 등 록 안 내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 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1. 마루 바닥을 3~4회에 걸쳐 고르게 원목 그대로 표면 처리 합니다



2. 코팅 후 칠이 마른 다음 한차례 더 표면을 깎아낸 후 마감 코팅을 합니다



3. 완성된 깨끗한 모습.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당 및 전각의 마루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밝은세상

ㅣ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ㅣ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ㅣ 이메일 lty64@korea.com

제9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 (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입재 : 양력 10월 16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9월 2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6일 (음, 9월 20일)
- 3 재 : 양력 10월 30일 (음, 10월 4일)
- 5 재 : 양력 11월 13일 (음, 10월 1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7일 (음, 11월 3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ㅣ 국민 353-24-0119-724 ㅣ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 천 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스마트폰 시대, 수행도 스마트하게

불교 앱으로 수행 훨씬 수월해져, 스님과 트위터로 소통

회사원 이영은(31)씨는 요새 불교공부에 푹 빠졌다. 직장 문제와 인간관계, 집안 문제 등 온갖 스트레스로 골머리를 앓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불교에 눈을 뜨게 된 것.

이 씨는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매일 〈반야심경〉과 〈천수경〉 등을 독송하고 불교TV로 대덕 스님들의 법문을 챙겨보는 등 초심자로서 열심히 수행 정진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인 터라 불경 독송을 종종 빼먹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고 경전을 들고 다니며 독송하기는 무리였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 씨는 앱 스토어에 들어가 '불교' '사찰' '템플스테이' '명상' 등을 검색해봤다. 출·퇴근 시간에, 또는 잠깐 쉬는 시간을 활용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됐다.

또한 이 씨는 아이폰 팟캐스트를 통해 동국대 정각원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불교법회, 불교강연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트위터를 개설해 스님들과 '맞팔(트위터 사용자가 서로 팔로우 하는 것을 말함)'을 하고 스님들의 짤막한 법문에서 위로를 얻고 고민이 있을 때는 쪽지보내기(DM)로 고민 상담을 한다.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앱 스토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앱으로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나누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불교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까.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불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을까.

10월15일 창간일을 맞아 불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불교관련 앱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활발히 포교활동을 펼치는 스님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 불교 앱소개

독경반야심경 – 아이폰, 안드로이드 (무료)



청아한 독경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제공한 참선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미디어믹스형 경전 앱이다. 한문·한글 독경을 들을 수 있으며 〈반야심경〉 전문도 볼 수 있다.

템플스테이지도 – 아이폰 (0.99$)



현재 자신의 위치 및 주변 템플스테이 사찰 또는 원하는 지역의 템플스테이 사찰을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선택한 사찰의 홈페이지를 바로 열고 전화번호를 터치해 바로 걸 수 있다.

불교수행도우미(염주) – 아이폰 (무료)



나무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광명진언 등의 수행발원문을 선택해 손으로 염주 한알 식 터치하며 염주 수행을 할 수 있다. 직접 수행 및 발원문을 만들어 경전에 나와 있는 108 1080 1000 3000주 등을 선택해 염주 수행을 할 수 있다. 수행한 내용을 수행일지를 통해 횟수, 수행 완료 여부, 수행 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전통사찰 서울, 경기도 – 아이폰 (무료)



서울과 경기도 내에 위치한 유명 전통사찰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전등사, 보광사,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 5개의 전통사찰들에 대한 정보를 소개, 역사, 주요인물, 문화재, 오시는 길의 순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글맵을 이용한 각 사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야단법석 – 아이폰, 안드로이드 (무료)



야단법석은 사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앱으로 우리지역 주변사찰의 기도 법회 교육 불사 행사 등의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찰주위 맛집 과 숙박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댓 마음공부 – 안드로이드 (무료)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글을 앱으로 출시한 것이다. '올댓 마음공부'는 마음공부 이야기, 짧은 글 긴 여운, 명상 순례기, 인생 문답, 산방한담, 지혜의 가르침, 붓다의 향기 등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각각의 카테고리에는 스님의 따뜻한 위로와 설법, 허를 찌르는 농담이 담겨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눈으로 읽으며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다.

Hello Dharma School 헬로 달마 스쿨 – 아이폰, 안드로이드 (무료)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로 지혜, 자비, 고집멸도, 기도, 수행 등 12개의 중요한 불교 기본 개념과 핵심 교리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영어, 한글 자막을 변경해 쉽게 본문 내용을 익힐 수 있게 했다.

비건식당 – 아이폰(무료)



채식주의자를 위한 앱이다. 자신이 위치한 곳 주변의 채식 식당을 검색할 수 있다. 상세정보에는 해당 식당의 주소 위치 전화번호 채식유형 영업시간 메뉴 가격 휴무일 주차시설 등이 소개돼 있다.

법회 – 안드로이드 (무료)

일반 법회 진행을 위한 순서와 찬불가 반주를 동반해 일반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3000배 – 안드로이드 (무료)

절을 할 때 센서로 거리를 감지해 숫자를 세어주는 앱이다. 목표 값 설정을 설정해 절을 할 수 있으며 칼로리 소모량이 표시되고 배경음악을 들을 수 있다.

■ 이밖에 다양한 불교 앱

아이폰

방송: 불교방송

경전: 〈반야심경〉, 〈천수경〉, 독경〈반야심경〉, 〈heart Sutra 반야심경〉, 〈천지팔양신주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수행/명상: 불교명상음악, 명상혁명, i-목탁, 불교수행도우미(염주), imindful

사찰정보, 축제: 연등회

도서: 〈인과경〉(현담 스님), 참선교육1권(현담 스님), 경허 선사 일대기, 님의 침묵

안드로이드

경전: 불교경전,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부처님말씀, 〈금강경〉 체험판

수행/명상: 불교명상음악, 매일하는 오늘의 기도, 3000배

불교이해: 불교이야기

사찰정보: 조계종 스마트홍법사, 사찰찾기

법회: 법회(법회식순진행), 정림사지박물관

이미지: 불교바탕화면, 보살축복배경화면, 보살 HD배경화면

엔터테인먼트: 불교 벨소리, 목탁거울

■ 트위터로 소통하는 스님



달라이라마 (twitter.com/DalaiLama)

달라이 라마의 공식 일정을 알 수 있다. 영어로 달라이 라마의 주요 외부활동과 최근 동향 및 사진을 소개하고 있으며 짧은 법문을 소개하고 있다.



법상 스님(twitter.com/moktaksori)

강원도 고성 운학사의 법상 스님은 홈페이지 '목탁소리'(www.moktaksori.org)를 10여 년째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법문을 비롯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 방법, 수행 이야기, 여행기 등 다양한 글을 실었다. 법상 스님은 홈페이지 외에 개인 블로그, 다음 카페 등을 운영하며 트위터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정목 스님 (twitter.com/jungmoksunim)

정목 스님은 불교방송 FM 저녁 7시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진행하며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유나방송(una.or.kr)을 통해 전 세계 32개국 회원들에게 마음공부의 길을 소개하고 있다.



혜민 스님(twitter.com/haeminsunim)

미국에서 교수가 된 최초의 한국인 스님인 혜민 스님은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이는 젊은 스님 중 한 명이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와 짧은 법문들로 팔로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

한글 표준본 제정돼야 불교앱 늘어난다

불교 앱 활성화 과제 진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앱(App)을 다운받아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즐기며 거기서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앱을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하는 현재적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

현재 디지털의 놀라운 속도 혁명은 이 시대 최고의 성과로 추앙받고 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모바일 환경을 우리 불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불교의 모습 또한 더욱 풍성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앱을 개발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개발 기조였다. 무엇을 먼저 개발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웠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 시대에 살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것인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개발 기조, 개발 범위, 개발 순서, 개발 내용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과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개발기조와 관련해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 둘 다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불교적 색채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불교용어는 어떻게 풀어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교적 차원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앱은 한글 경전독경과 의례이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예불문(칠정례), 법성게, 무상게, 〈금강경〉 등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며 의례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된다. 거기에다 한글 독경앱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운곡과 더불어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영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기 때문에 비불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

갖가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현대인을 위한 명상 앱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염불송이라든가, 주제별로 명상문이나 기도문을 만들어 영상과 더불어 제공해 주면 효과 만점이라 생각한다.

불교식 제사를 비롯한 생활의례도 시급하게 필요하며, 주제별로 경전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값진 포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콘텐츠 생산이 관건이다.

콘텐츠와 관련해 종단의 표준 한글의례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글 표준본이 만들어진다면 조계종단 차원의 신뢰성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포교원에서는 표준본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장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앱을 개발하지 못했다. 앞으로 표준 한글의례문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앱 개발을 착수할 것이다.

또한 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품질이 좋아야 한다. 음성이나 화면, 구동 시스템 등이 훌륭해야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잘 만들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만큼 양질이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품질 좋은 앱을 만들려면 제작비가 수월치 않게 들어간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그리고 테블릿 PC 모두 적용되는 품질 좋은 앱을 개발하려면 제작비는 3000만원 정도이며 그 이상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콘텐츠 개발비도 만만치 않다. 물론 싸게 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쌀수록 품질은 신통치 않다. 따라서 충분한 제작비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품질 좋은 앱은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불자로 구성된 제작자들의 활로 또한 열어주는 측면에서 무조건 싼 가격에 앱을 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다. 따라서 콘텐츠의 내용과 질을 담보하려면 많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 또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고민은 앱을 통해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촉발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감성의 전달이 사찰 포교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의 앱 프로그램과 사찰 프로그램이 진속이제(眞俗二諦) 차원에서 중도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때 사찰로 신도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교원에서는 '독경 반야심경'과 '헬로달마스쿨'을 개발해 출시했다. 반야심경은 매달 다운받는 횟수가 1만 건에 이르고 9개월 만에 10만 사용자를 확보했다. 헬로달마스쿨은 아직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확대되지 않고 홍보가 덜된 탓으로 〈반야심경〉만큼의 활용은 덜하지만,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원어민 발음의 불교영어를 통해 불교에 친숙하게 접하고 있는 중이다.



고명석(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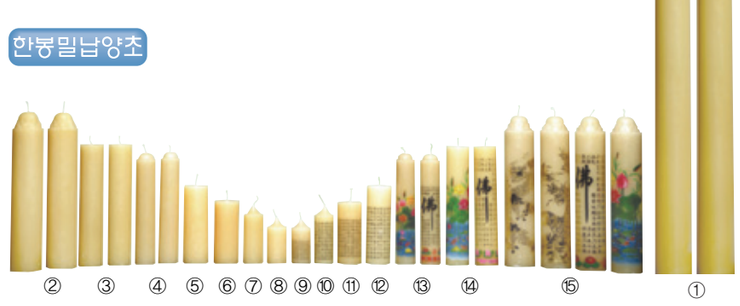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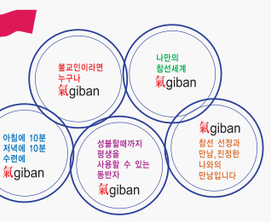
① 밀납초 90cm ×90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이사 택일, 궁합,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배우자 구함

평생도반으로 지내실
여성분 (50-58세)을
원합니다.
010-7473-6886

각종 천도재 집전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명리학 음양오행 무료강의

강사 : 성은사 우리법사
일정 : 매주 수요일 14시
장소 : 성은사(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 종점 옆
010-9376-5633
부산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7번출구 3분거리

평범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억지로 잘 하려고 하지 말라

- 임 제 록 -

• 대덕사 스님께서 제자를 모집합니다.

-10대, 20대, 30대: 비구니 스님

• 비구니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10대, 20대, 30대
꼭 오실 분 한해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대덕사
010-9416-7743

오랫동안 있을곳 찾습니다.

사주명리,명상치유,
빙의령치유,기치유등
방편력 보유
▷52세,비구
010-4876-10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
010-4186-0408

급! 인연 찾음 (그림같은 토굴)

- 입법당, 약사여래부처님 청동해수관음부처님,
- 삼존석불, 3층석탑, 석등 방2 거실 다실 실내화장실
- 황토굴, 창고, 집기류 일체, 주차가능, 전세 3천만원
- (월세 천만원에 10만원) 비구니스님 수행처로 최적
- 넌팔 해외 출국으로 급함(장기 임대가능) 몸만 오면됨.
- 노스님 수행하며 해외 포교에 참여할 년령불문 비구니스님, 신심있는 보살님 급히 구함

(영광 불갑사 인근 토굴)
010-9478-1322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평생같이 기도하며 살아가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5555-8744

60대 기도수행 스님입니다.

빈 산중 사찰 시주나
장기간 맡겨 주실 분.
010-8558-9317
해 공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불교 석가여래종
불교 여래조계종
불교 종단법인 총연합회
불교 법인단체 총연합회
우리불교 법인
대승불교법인
011-412-8040 법 광

불 상 : 아미타불 좌대포함 석자반

후불탱화 : 5자*8자
신중탱화 : 5자*6자(유명탱화장 작품)
불단과 불기일체
(수제 목탁, 경상, 최고급제기 등 포함)
부산 010-6630-5304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비구니 행자(출가자) 모집

1. 학력, 나이 관계 없음
2. 신체조건 관계 없음
3. 3년 공부 후 주지임명
4. 출가 동시 기도스님 임명
5. 성실히 자기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울산 지장정사
011-858-0306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웬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랍)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아주 특수한 기도법

• 돌맹이를 손에 쥐고 하는 기도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경북 안동
010-8576-445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부산 기장군 일광면
010-3553-0993

기도 스님 모십니다

▷부산
011-840-435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60세 이하
031)982-4626

미국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모십니다.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비구니 기도스님 및 부전스님 또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거제
010-6815-9878

금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부적 소장하실 분

소승은 시각장애자 68세 심안으로 금달마와 황금용주도 부적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있으면 안됩니다. 스승이 일러드리는데로 소장하시면 만사 평안하실 것입니다. 약간의 보시금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려 합니다. 좋은인연이 되어 그 가정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망산 부처바위에서 기도중입니다. 기도에 가피를 바라시는 분 모십니다.
* 조용한 산속에 빈집 빌려 주실 분 찾습니다. 남은 여생 나를 시봉하실 보살님 약간의 후원도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재료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후원계좌 : 농협 302-0007-1645-21 (예금주 장치법)
큰스님 직통 010-9003-7783 / 주문처 011-9957-2660 혜주 보살

한국불교대학 편입생모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법보시 상담환영>

고(古)건물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 건물방향바꿈 ,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빙의 · 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30년 빙의치료 대가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회 원 모 집 - 직 접 상 담

- ▶ 야생화 등산모임 (월1회)
- ▶ 교육상담 및 대안 방안제시
  산만한 자녀, 청소년(초,중,고),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
- ▶ 취업상담 (면접, 서류작성 방법지도)
- ▶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상담
- ▶ 전문 교육상담 교사 상주

상천사 교육관 010-8522-2203

통 증 제 거 기 술 교 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좋은 인연 · 멋진 인생

▣ 전통 예술 : 대금,단소, 태평소, 학춤,한량무...
▣ 불교의식 : 예불, 범패,바라무, 법고...
▣ 제반불교의식 집전과 출장지도도 가능합니다.
위 수행으로 불심을 가꾸실 도반을 모십니다.
풍류학인 만법당 월송 합장 010-9314-0950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알라딘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 효사육임강의 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857호 | 불 자 정 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 FAX 02) 737-0696

농 가 주 택

- 대지: 35평
- 건물 11평
- 시골에서 살고 싶은 분은 선택하세요
- 가액: 1천 8백만원

054)982-4949
010-4534-4949

임 법 당 안 내

- 위치: 강릉시 사천 해수욕장 뒤 (낮은동산숲속)
- 최고의 위치,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약 200평, 야채밭 약 80평(1년 도지 20만원)
- 법당외 방 4개, 화장실2, 목욕탕1
-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 일체
- 양도가액: 4350만원

010-2461-3014

산세수려한사찰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외곽)
- (국유지) 전통 200년 사찰
- 산세와 계곡이 수려함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 바윗속 약수 나옴
- 가액: 1억 2천만원(조정가액)

010-3621-87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
- 시내 한복판 포교원
- 조용히 공부하시며 지내실 분을 찾습니다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세 18만원
- 관리비 10만원정도, 시설비 250만원

010-9117-5721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2,200평
- 건평 150평(대웅전 33평) 70%공정
- 사찰허가필, 전기, 지하암반수
- 용도: 사찰, 연수원, 명상센터, 납골당 등등
- 대구 도심에서 30분거리, 현재 터널 공사 중
- 가격: 절충후 파격, 상담: 주인직통

010-4512-081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약 5,000평
- 법당 약 50평(대적전, 관음, 지장)
- 요사 약 100평(방9, 주방, 창고유)
- 요양원, 고시원, 종단설립 등 대작 불사 가능한 동남향 야산 사찰, 꼭 매입할 분 연락
- 즉시 몸만 오면 법회 가능함
- 가액: 오억오천만원(절충가능)

010-9217-4911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 5분거리
- 부지: 390평(종교용지) 137평(전) 527평
- 법당: 33평 (철근콘크리트조)단청
-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 2)
- 기타: 10평(야외화장실, 차고, 창고) CCTV 설치
- 가액: 2억 8천만원
- 스님 건강관계로 저렴한 가액으로 인연있는 스님에게 양도

010-5488-3339

사찰(암자)안내

- 위치: 경남 창원(마산)시
- 대지 : 종교부지 140평 포함 임야 1300평
- 건평 법당 요사(방4) 합 약 40평
- 무학산 혈이 모이는 명당자리
- CCTV, 심야전기, 화재보험 개인소유사찰, 포장도로
- 가액: 전세 1억 5천만원 (조정가)

018-560-383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개정리 성주 고령 국도변
- 대지 102평, 법당 2층 슬라브 15평
- 칠성, 산신, 삼존불, 아미타부처님
- 생활관 34평, 대중방 3개
- 공양, 주방, 다용도실, 스님방1
- 심야보일러, 석유보일러, 집기류일체
- 가액: 1억

011-9577-3779

종교 강요하는 것은 순한 토끼에게 육식시킴과 같아

달라이라마, 멕시코서 9월 9~11일 인류애의 아리아 설법 열어

"달라이라마. 멕시코 떼 아모!(멕시코는 달라이라마를 사랑해요!, Dalai Lama. Mexico Te amo!)."

9월 11일. 멕시코시티 아술스타디움(Estadio Azul)에 4만여 관중의 환호성이 메아리쳤다. 스페인의 영향으로 대다수 토착화된 로마 가톨릭 신앙을 지닌 이들에게 주일인 일요일, 교회가 아닌 축구 경기장을 찾게 한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축구에 열광하는 멕시코인이지만 이 날은 경기 관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푸른 잔디가 깔린 경기장을 향했다.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14대 달라이라마(텐진갸초, 76세)의 세 번째 멕시코 방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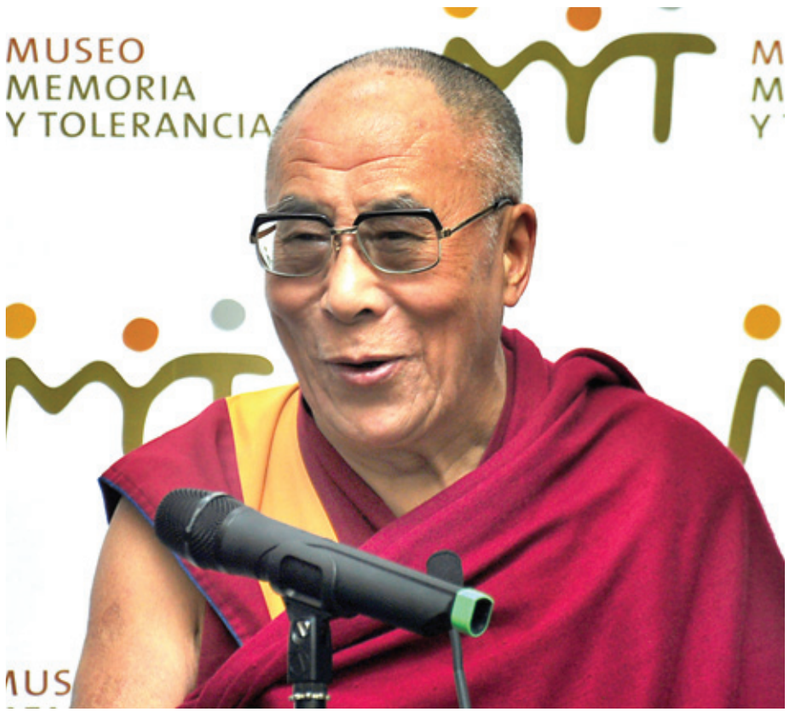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문은 멕시코티베트하우스(Casa Tibet Mexico)와 리차드기어(영화배우) 재단 주관으로 성립된 9월 9~11일 이뤄졌다. 달라이라마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거쳐 브라질로 이어지는 미 대륙 종단을 마치고 19일 다람살라 티베트중앙행정부로 돌아왔다. 고령에 왼쪽 무릎 관절 통증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는 쉼 없이 길 위의 설법을 이어갔다. 지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칼라챠크라 법회' 이후 미국 9·11테러와 9월 16일 멕시코 독립기념일에 맞춰 지구 평화와 인류애의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달라이라마는 그의 나이 16세에 자유를 잃은 이후 24세에 조국 티베트를 잃었다. 티베트의 망명 역사 50년이 넘은 현재, 멕시코의 한인 이민사도 어느덧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900년대 제물포(지금의 인천항)에서 영국 선박에 오른 멕시코 한인들이 겪은 선인장 농장에서의 고역,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일제 강점기 당시 1919년 9월 11일 수립된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하며 조국의 독립을 발원했던 눈물의 역사다.

9월 9일. 멕시코 몬테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회담: 인간의 존엄성과 합법성(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Values and Rule of Law) 기조연설에서 달라이라마는 "이타주의와 내면의 가치에 많은 관심을 투자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달라이라마는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40여 분간 진행된 만남 동안 칼데론 대통령은 "멕시코는 1500년 고대문명의 인류학적 역사를 지녔으나 스페인의 300년 식민지 치하를 거치면서 많은 것이 변화했다.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두에게 열린 국가다"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분리주의자의 초청으로 양국관계가 훼손됐다"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달라이라마의 멕시코 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멕시코 대통령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직접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10일. 달라이라마는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극장(Teatro Metropolitan)에서 게셰 랑리 탕빠(Geshe Langri Thangpa)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덟 편의 시: 이타주의와 타협을 통한 조화의 구축(Eight Verses of Training the Mind): building Harmony Through Altruism and Compassion'을 주제로 법회를 가졌다. 법회를 열며, 달라이라마는 불교의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먼저 설함으로서, 불교가 지닌 타 종교와의 공통점과 차별된 점을 먼저 밝혔다. 다음은 이날 달라이라마 법문의 요지이다.




멕시코 시티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마련된 법석



이날 법회에는 4만여 멕시코인이 참석해 티베트 독립을 지지했다.

모든 중생은 소중한 존재 종교와 신앙도 이와 같다

이번 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이타적인 의지를 실천코자 한다면 오늘 법문의 저본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덟 편의 시'가 좋은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은 한 손에 무상(無常)이라는 공(空)의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에는 이타심이라는 활을 들고서 번뇌의 적들과 대결하는 무사의 자세를 다룹니다.

이 시 속에는 모든 중생을 자신에게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티베트불교는 인도 나란다승원의 불교 수행 전통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대승불교의 보물창고입니다. 대승불교 수행자의 경우, 이타적인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것은 보살이 되기 위함입니다.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차별 없는 중생의 어머니가 바로 보살입니다. 중생이란 존재하며 흘러가는 세간의 일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종교를 성실하게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불교의 우수성을 전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에는 고대 문명의 보고가 있고, 스페인 문화가 정착해 오늘날 독자적인 종교와 신앙의 형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 때 몽골 불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는 역사적으로 티베트불교가 정착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온 기독교 선교단들이 토착 종교를 비난하며 심지어 교회에 참석할 때 마다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교는 민족의 숨결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껍데기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속 깊이 녹아 있는 근원의 정체성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순한 토끼를 육식주의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생태계의 자연 순환의 고리들이 파괴되고 혼란이 초래되고 말겠지요.

우리는 외형에 지나친 관심을 쏟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유와 행동이 피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침내 종국에는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지니는 것과 지니지 않는 것은 순수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지니고 그에 준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적인 불교도들은 모든 중생이 더불어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발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의 동기는 마음과 실천의 조화로움 속에 바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인구 수 만큼 다양한 마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은 나름의 행복이라는 가치입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번영의 가치를 논하고자 할 때 그 잣대를 어디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둬야 할까요. 종교가 어디에서 왔으며 모든 인류의 문화가 그것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종교는 길잡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을 다시 정의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항상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사유하십시오.

9월 11일. 달라이라마는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아술스타디움(Estadio Azul)에서 '고난의 시기에 행복 찾기(Finding Happiness in Troubled Times)'를 주제로 공개 법회를 가졌다. 달라이라마는 멕시코인의 얼굴 생김새가 티베트인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유머로 법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법문의 요지이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건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일이니까요.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일합니다. 100% 동일한 것은 욕망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민족과 얼굴의 생김새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형태 자체로서 모두 평등합니다.

종교는 민족의 숨결과 같아 피 속 깊은 정체성은 못바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건 나는 언제나 공부합니다. 나와 다른 삶의 형태와 지식들은 무한한 생각의 영역으로 나를 확장시켜 줍니다. 지구는 한정돼 있지만 그곳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두뇌 활동은 한계를 초월합니다. 현대과학과 신경정신이 교류하면서 고정된 관념을 꾸준히 부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꾸준히 변화하고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교도입니다. 이곳에는 가톨릭, 수피,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지성인들과 믿음을 지닌 이들이 모였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별이 있을 뿐 모두 사랑과 자비의 도구를 통해 공통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20세기를 근거로 우리는 21세기의 오늘을 누리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악의적으로 당신의 이기적인 일방적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착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현재의 내가 지향해야 할 삶은 전방의 피라미드 최상의 꼭지점과 같습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지지 않은 균형만이 최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중도(中道)입니다.

종교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편적인 대화를 모색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다가서는 연민뿐입니다.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수많은 테러와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한 인간애의 중심에 지극히 이기적인 '나'가 깊숙한 심지로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 앞에 '나'가 선행되어 사유되면 일방적인 폭력으로 작용되어 타인에게 본의 아닌 아픔을 줍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과 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젖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는 일흔이 넘은 노인이지만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움이 앞섭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돌봐준 유일한 분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유와 행동에는 우선된 '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조화롭게 공유하며 살아야 하는 필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해답을 구한다면, 바로 '나'를 '우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고 좁은 곳만 비추는 등잔불에서 높은 볼트의 더욱 밝고 등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나'가 있음을 알고 삶에서 실천으로서 행할 수 있다면, '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어루만지는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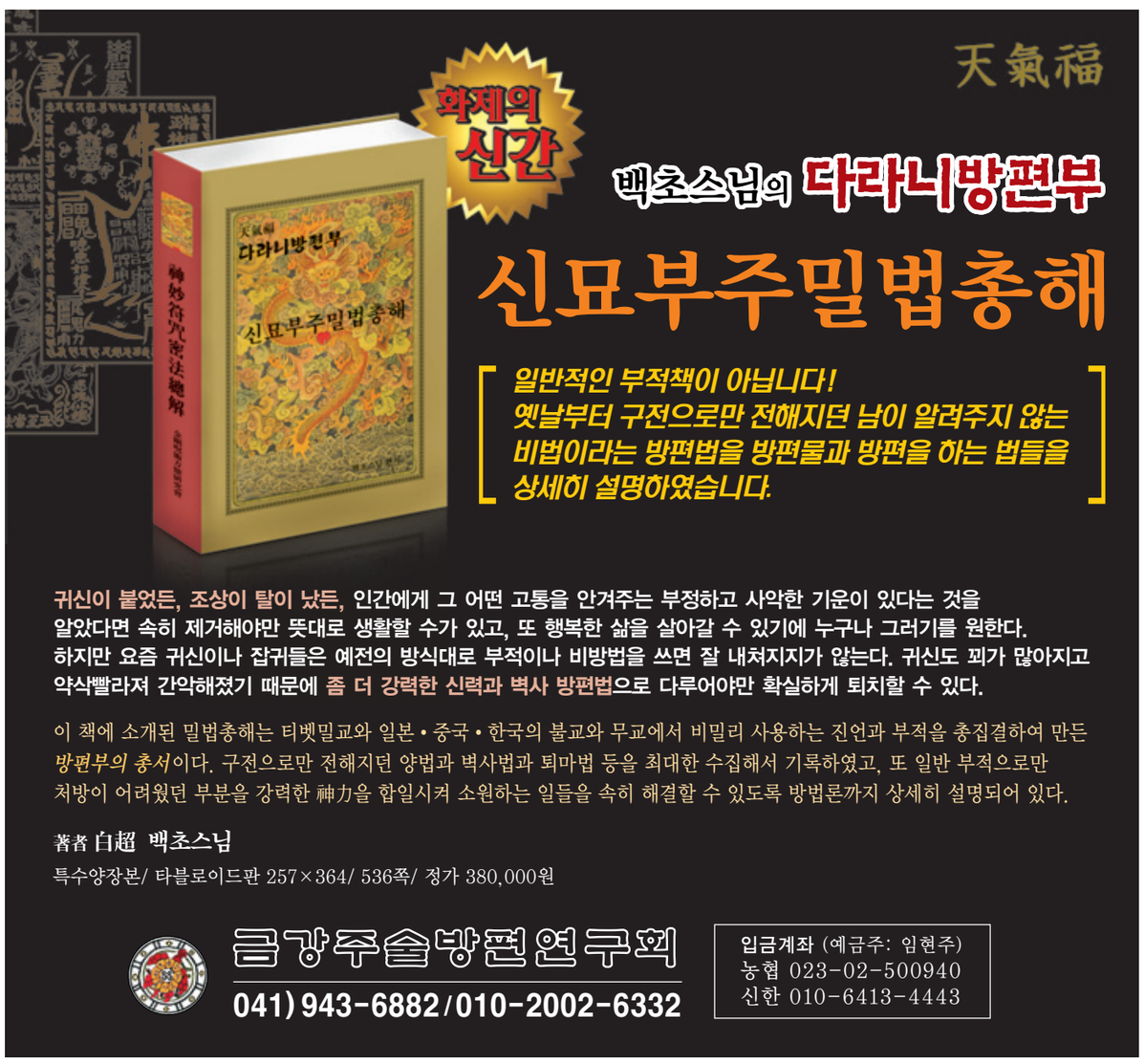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마음 다스리니 고통 오고 감 없네

달라이라마, 동남아시아 불자 요청으로 〈입보리행론〉 법문

다람살라 대중의 갈증을 달래는 달라이라마의 법회가 8월 30일~9월 1일 다람살라 쫄라캉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무슬림을 주된 신앙으로 삼는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찾아온 불자들의 요청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법회에는 25개 나라 외국인을 포함한 6000여 청중이 관심을 보였다. 9월 중순이면 스웨터 사업을 위해 인도 각지로 떠나는 티베트인들도 이번 법회에 대거 참여했다.

법문은 7~8세기 인도 나란다승원 출신의 중관학자 샨티데바가 저술한 〈입보리행론〉 전체 10장 가운데 '보리심공덕 찬탄품' '죄업 참회품' '보리심 전지품' '보리심 불방일품' '호계 정지품' 등 5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법회를 열며 "샨티데바는 보리심 수행을 최고로 여기고 그 공덕을 찬양한 분이다. 자신의 마음에 긍정의 습을 들이겠다는 선한 동기로서 이번 법회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달라이 라마의 법문 요지이다.

목적 없는 행위는 의미가 없네

스스로 수행을 하는 바에 세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심과 자비심은 거듭 사유함으로서 증장되는 마음의 힘입니다. 선업은 결코 저절로 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고 두터운 번뇌의 근원인 무지만이 시작을 알 수 없는 이래의 뿌리로 뻗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외부의 물질이 지닌 해악을 바르게 알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삼보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악이 멸한다면 일찍이 세상은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닌 개개인의 모습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선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외부의 강압된 힘은 결코 근본적인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한역본에는 '오온개공(五蘊皆空)'으로 역경된 것이 티베트본에는 '오온 조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가설의 바탕이 실체를 찾았을 때는 그 조차도 무자성하다'는 것이 산스크리트본의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실상의 현실을 바로 알아 변화를 분석하며 받아들이라고 일깨웁니다.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미세한 의식을 헤아리라고 합니다. 실상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행복을 예로 들었을 때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 행복을 느끼는 자신이 주체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 실체를 절대 규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이름 붙여진 것일 뿐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실상의 '나'입니다. 즉 불교는 연기의 사상인 것입니다.

급속한 물질적 발전의 시기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동시에 내면의 평화 역시도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이러한 상황이 마음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보편성에 입각한 도덕과 정의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이타심과 연민 즉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행복을 구하는 마음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동기입니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음에는 특별한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해탈을 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대승보살의 자량도에 입문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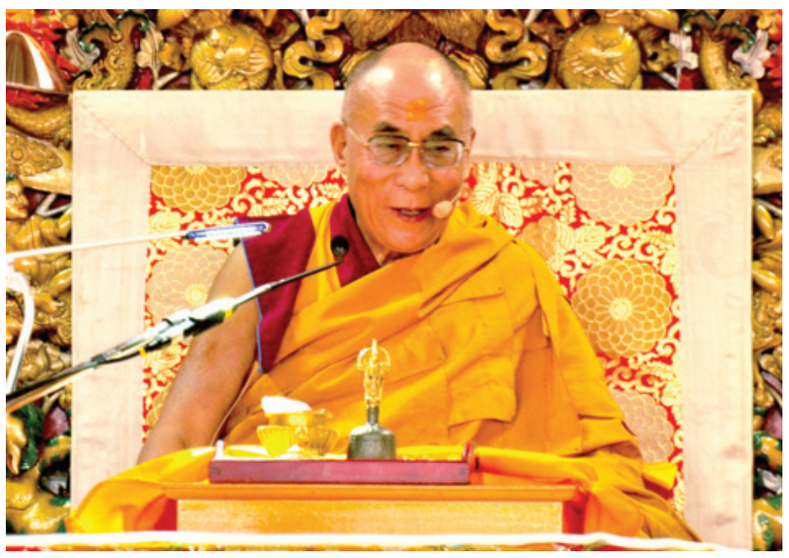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善業뿐

지난날 즐겨왔던 향락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저승사자에게 붙잡혔을 때
오직 공덕만이 스스로를 지켜줄 것인데
나는 이 역시도 쌓지 못 하였네

처음 붓다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신 것은 근본 바탕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붓다는 자생이 아닌 범부의 상태에서 도의 과정을 거쳐 성불을 이룬 분입니다. 스스로 붓다가 되는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불의 과정은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와 같은 차제에 순응합니다. 원인도 결과에 의지한 것입니다.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이 성립됩니다.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일상에서 선한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인간의 몸을 받은 이래로 번뇌에 익숙하도록 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몸이란 업과 번뇌로 인연 지어진 것입니다. 또한 몸은 의식과 연관 지어져 원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자합니다. 더욱이 죽음에 이르러서는 감당키 힘든 번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현재부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임종 직전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란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길들이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내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 대상과 그 전의 의식인 등무관연이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달라이라마가 다람살라 대중을 위한 법회을 열고 있는 모습

선업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몸이란 업과 번뇌로 인연한 것
습관 들여야 선한 마음 키우게 돼
지혜와 용기 갖춰야 보리심 발현

또 하나의 의식을 발생시킵니다. 근치인을 생각할 때 가장 미세한 의식이 전생과 후생을 성립케 합니다. 인간의 몸이 무너지는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존재하지만 미세의 식만은 지속됩니다.

대승의 입문, 보리심을 일깨움

보리심이란 정법의 우유에서 뽑아낸 버터의 정수와 같습니다. 보살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아집이 적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이타심이 큽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타심보다 이기심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로서 있다고 여기고 내가 진실로서 존재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자만과 이기심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지닌 이라면 오체투지로서 참회할 수 있습니다. 진언 또는 스승을 관상함으로서도 참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탁월한 방법은 보리심을 일으켜 이타적 실천으로 발현하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정진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인 선업을 잘 키워 해탈의 나무로 키워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어둠의 무명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낸 수행자는 길을 잃은 이들의 안내자가 되고 의지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용수보살께서 〈보만론〉에 밝힌 바와 같이,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서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되도록 하소서'라는 구절처럼 오로지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서 국한됨 없이 포용하는 이가 되십시오.

스승이 묻습니다. "그대는 보살인가?" 보살이 된다는 것은 보리심을 마음에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추고 용기를 지닌 자만이 보리심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보살계를 마음에 수지함으로써 스스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장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마치 보물을 얻은 것과 같으니, 보리심이 생겨났음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리심은 오로지 타인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로서 상호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윤회의 길에서 헤매다 지친 중생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중생이 지닌 오온이 윤회를 이끕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 오온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보리심을 낸 것은 번뇌의 열을 식혀주는 달이 떠오른 것과 같습니다. 주의해서 상처를 살피듯 경계 없이 마음의 상처를 돌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니 고통이 오고 간곳이 없음을 여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윤회의 길을 떠도는 중생이 안락을 바라는 바와 같이 중생의 여행에 최상의 만족을 주는 길은 보리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계를 수지하고 항시 보리심을 관상함으로서 마음의 허물을 없애는 것을 거듭 사유하십시오.

인도 다람살라=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現 달라이라마 90세 되면 포스트 달라이라마 결정한다

9월 24일, 달라이라마 14장의 서신 통해 환생 방안 밝혀

15대 달라이라마 선정을 위한 도움닫기가 시작됐다.

14대 달라이라마(텐진갸초, 76)는 9월 22일부터 3일간 다람살라 소재 수리야호텔에서 열린 티베트불교 지도자 회의에 23일 참석, 다음날인 24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9월 22일 삼동린포체 주제로 진행된 티베트불교 지도자 회의에는 히말라야 불교(Himalayan Buddhist regions)와 칼믹(Kalmykia)의 불교 지도자를 비롯해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지역에서도 참석했다.

오랜 기간 법정 분쟁중인 까규파에서는 공식적인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는 달라이라마에게 공식 승인 받은 17대 까르마빠(우겐틴레도제)와 150년 이상 티베트 정부와 갈등을 앓고 있는 샤르마빠 내의 까르마빠 그리고 씻뚜린포체의 삼자 대면이 다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달라이라마 환생 제도는 1642년 이래 티베트 겔룩빠에서 전승돼 온 정치적·종교적 지도자 책봉 정책이다. 겔룩빠가 14대로 이어지는 환생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 까규는 17대, 샤르마빠는 그 원조격인 20대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티베트불교의 숭고한 불교 전승이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불교 지도자 회의 마지막 날 14장의 구체적인 서신을 공지하고,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달라이라마 선정을 위한 법령단(The Dalai Lama's Gaden Phodrang Trust, The Dalai Lama's Institution)을 조직해 15대 달라이라마 선정 여부를 준비할 것으로 밝혔다.

같은 날 중국정부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Hong Lei)는 중앙티베트중앙행정부의 성명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서 현재 외국으로 망명한 달라이라마가 중국의 종교 문제와 현황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 달라이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준하지 않을 시엔 모두 무효이다. 후대 달라이라마 역시 중국정부의 종교법에 따라 선정할 문제다"라고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 회의에서
종교·정치 지도자 책봉 전통
중국정부 "종교법 따르라" 하자
티베트 승려 소신공양 잇따라

이런 여파로 9월 26일 중국 서장자치구(티베트)의 끼르띠사원(Kirti Monastary)에서는 두 명의 18세 젊은 학승이 '달라이라마의 장수(long live the Dalai Lama)'와 '티베트의 자유'를 외치며 소신공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달라이라마', '티베트'와 같은 인터넷 검색어를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 달라이라마의 후대 선정과 관련한 성명 발표 직후 일어난 일이어서 국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내에서 티베트 승려의 소신공양은 올해 3월 이후 현재 네 번째다.

인도 다람살라=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14대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불교 지도자회의에서 차기 달라이라마 선정을 위한 법령단을 조직하기로 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창의적 기업가상'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한국구술인물사 /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민중불교운동에 불을 지피다

최연은 후배를 여익구는 승려를 결집해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공동 불교야학연합회 공동 세미나 이런 거를 교사들 공동연수도 시키고 이랬어요."

당시 불교야학연합회가 결성됐음을 말한다. 노동자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컸다는 점을 반증한다. 비록 수사 당국에 의해 와해됐지만 그 학생운동은 승가단체인 지도법사단과 연계되면서 80년대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배경에는 최연과 여익구의 활동 재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최연은 1979년 말 제대와 함께 불교운동에 복귀했고, 여익구도 이 시기에 승려생활을 접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한다. 최연이 대불련을 중심으로 활동한 배경이 있다면 여익구는 탄허 스님을 시봉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스님들과 교류했다. 최연이 대불련 후배들을 운집시켰다면 여익구는 승려 중심의 지도법사단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대불련 내에서 어쨌든 인제 거기는 (여)익구 형이 있으니까 진보적인 활동도 하는데 민중불교적인 그거보다도 더 뛰쳐나와서 하는 이건 더 급진적이다. 아주 급진적이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대불련 내에서는 차곡차곡 그런 어떤 기반들을 쌓았지요. 지도법사단들 의식화 시키는 거 하고 대중들을 일정부분 있잖아 의식을 고양시키는 대회도 하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사원화 운동하면서도 여름대회 할 때는 간사로 참여해주고 다 했어요. 이 빠져나온 게 아니고 그 대불련은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그 헤어집니까? 익구 형하고 안 헤어져.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이제 민불련(민중불교운동연합)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둘의 노력은 마침내 1985년 '민불련'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최연의 대불련 활동과 여익구의 민청학련 이후 이어지는 활동에서 현대 한국불교운동사의 일면을 보게 된다. 그들의 활동이 이어질 때 승가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최연은 대불련이 승가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자평한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 사실 정권과 너무 밀착돼 가 있었고 조계종이고 다음에 스님들이 그래 사회인식 이거에 생각도 안 할 때고 뭐 형제고 좀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민중불교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개운사

"조계종이 너무나 있잖아 등한시 핸 거예요. 그럼 지금 조계종의 많은 문건과 토론에서도 나오는 자기 반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인제 그 이후에 인제 요러한 스님들의 의식이 계기가 (변하게) 된 게 사실은 1976년도에 생기게 됩니다."

승가, 구체적으로 조계종이 대 사회운동에 나서지 못한 원인은 조계종단의 정화운동과 친정부적 성향이었다고 말한다. 정화과정에서 비구 · 대처의 대립으로 불교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렸음과 동시에 스님들의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것은 최연 자신이 대불련 회장이었을 당시(1976)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승가의 대사회운동을 시작한 것은 10 · 27법난 이후 구성된 대불련 지도법사단이라고 말한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천계의 신들, 지상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로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한 이후, 제석천을 비롯해 여러 하늘의 천신들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고통이나 슬픔 없이 오로지 지극한 즐거움과 아름다움만 계속되는 천계의 일상은 부처님으로 인해 지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부처님의 탄생을 계기로 천계의 신들은 적극적으로 지상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난다.

신들의 세계에도 인구 변화는 있다

경전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귀의한 끝에 생을 마치고 천상에서 태어난다. 천계의 권속들은 인구제한이 없는 것일까. 아무리 천계라 할지라도 인원이 초과되면 그로 인한 불쾌감이 발생할 것이다. 부처님의 전생과 현생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아낸 〈과거현재인과경〉은 이 수수께끼를 말끔하게 해결해준다.

부처님이 태어날 무렵을 전후로 천계의 인구는 대대적으로 감소한다. 이전까지 주어진 수명을 안락하게 누리는 것에 만족했을 많은 신들의 성격이 이타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다.

부처님과 함께 지상에서 인간의 삶을 살고자 결심한 99억의 신들이 부처님의 탄생을 전후로 인도 곳곳에 흩어져서 왕족이나 바라문의 몸을 받고 태어난다. 인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인생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신들은 천계에서 자진하여 내려와 인간과 신의 중간 단계인 신선의 지위를 획득한다. 즉, 99억의 신들이 천계를 떠난 것이다.

비워진 자리는 채워지기 마련이다. 지상에서 막 올라온 이 새로운 신들은 천계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온다. 이들이 가져온 바람은 '불법 수호'의 즐거움과 그로인하여 주어지는 커다란 '복덕'이다. 새로운 것은 곧 유행이 되어 신들의 세계 전체에 퍼져나간다.

부처님의 탄생을 지켜본 신들


불법수호 삽화=김영수

일단 인간의 몸을 받아 지상에 태어난 신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태어나기 전 자신이 신이었다는 것, 어떠한 서원을 세웠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닿는 순간, 전폭적으로 부처님을 응원한다. 평생 막힘없이, 걸림 없이 법륜을 굴리며 왕들과 바라문들의 마음을 얻었던 부처님의 놀라운 인맥과 관계유지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이도 있었다. 제석천왕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흔들림 없이 신의 자리를 지킨 덕분에 제석천왕은 사천왕, 대범천왕 등 천계에 남은 다른 신들과 함께 부처님이 태어나는 순간을 생생하게 함께할 수 있었다.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부인이 출산을 마쳤을 때, 부처님과 함께한 것은 제석천왕의 수하에 있는 천계의 권속들이었다. 난타용왕과 우바난타 용왕은 물을 뿜어 부처님의 몸을 씻겼고, 사천왕은 하늘의 비단으로 부처님의 몸을 감쌌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제석천왕과 범천왕은 나란히 좌우에 서서 흐뭇하게 이 모습을 지켜본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그냥 들어 주는 것이 소통의 비결

가을이 익어가는 지를 느낄 시간도 없이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을에 대한 이미지는 수확의 풍요로움과 함께 떨어지는 낙엽의 쓸쓸함도 있겠다.

계절덕분인지 유난히 외로움이나 고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다.

아마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누군가를 이해하는 첫 걸음을 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의 말 제대로 들어주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기도 해

병원의 법당 문에 들어서서 나갈 때까지 작은 내 책상을 마주하며 앉게 되는 저 사람들은 단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눈물을 왈칵 쏟아낼 때가 있다. 때로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 티슈 한 장을 내미는 것조차 눈물을 터트리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는 그 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진다.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때 대개의 경우 고통 자체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고통 그 자체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지 못할 때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들어주는 경험을 갖지 못했다고 말한다. 대부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고통이나 불행을 스스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아픔들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중하고 다급한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듣기'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을 그저 들으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매우 잘 듣고 있음을 마음으로 알려줄 뿐이다. 환자나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할 뿐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든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의 말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어쩌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떠나서 내게 말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타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가끔씩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말을 다하지 못한 채 도리어 상대방의 얘기만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인지 병원 법당 안에서는 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을 연결하고자 한다. 내게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그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다. 내가 어줍잖게 건네는 위로나 문제 해결의 방향 제시보다는 고통을 들어주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20여 년 가까이 매일 병원 법당에서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열린 마음의 힘을 모두들 알고 있으면 좋겠다. 내 옆의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온전히 그 이야기에 집중하며 들어주는 것, 고통받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쏟아낼 때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나중에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재, 성보박물관에서 마음껏 즐겨보자

오랜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을 만나고 싶다면, 굳이 대형 박물관을 찾을 필요가 없다. 각 지역 사찰의 성보박물관에서는 지역 특색과 천년의 세월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불교문화재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불교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지역의 대표 성보박물관들은 이 같은 불교문화재를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아래 보존·연구를 목적으로 박물관을 건립, 각종 특별전과 기획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성보박물관들이 어떤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정리= 박기범·이은정 기자



①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2012년 3월 30일까지 괘불탱 특별전이 열린다. ②직지사에 소장중인 보물 제1306호 묘법연화경 ③직지사 묘법연화경 ④동화사에 소장된 보조국사진영 ⑤통도사 신중탱

세계적 수준의 불화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박물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3만여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활성화된 곳이다.

특히 600여 점에 달하는 불교회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초본을 비롯해 초대형 괘불까지 다양한 종류의 불화를 관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7~20세기에 걸쳐 약 100여 점의 괘불이 남아있는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높이 12m 이상 되는 대형 괘불을 통도사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현재 이곳에는 국보 1건과 보물 20건,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46건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중앙 홀에는 대형 괘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가 마련돼 6개월에 한 번씩 각 사찰에 소장된 괘불을 교체, 전시하고 있다.

관람정보: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불교회화실은(평일 오전 9~11시/오후1~5시) 보존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055)382-1001

팔만대장경을 만나는 꿈

합천 해인사 성보박물관

해인사와 산내 암자 및 말사에는 팔만대장경 판본을 비롯한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전해져 왔다. 현재 이곳에서는 목조희랑조사상과 대적광전 영산회상도 등 5건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4건의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가 전시돼 있다.

해인사 하면 '고려대장경'을 빼놓을 수 없다. 해인사성보박물관에는 대장경홀이 따로 마련돼 있어, 패엽경과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의 판본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판이 보존돼 있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경판 중 가장 오래된 국보206-16호 대방광불화엄경 경판은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옮겨오기 이전 해인사에 봉안돼 있던 판으로 가장 눈여겨 볼만한 유물 중 하나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앞으로 '목판인쇄 전문박물관'으로의 변화를 모색 중이다.

관람정보: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어린이·노인 등은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관란 시간은 하절기(3~10월)에는 9~18시, 동절기(11~12월)에는 10~17시까지다. (055)934-3150

사명대사의 기운을 찾아

대구 동화사 성보박물관

2007년 개관한 동화사 성보박물관에서는 고려시대 불교 중흥을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과 임진왜란에서 승병장으로 활약한 사명당 유정의 진영을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는 4건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 2건이 전시돼 있다.

또한 동화사에서도 각 종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좌상은 보물 제243호로 중생의 세계를 보살피는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보물 제1563호 대웅전은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이 특징적이다. 한편 동화사 성보박물관에서는 10월 30일까지 건봉사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친견 참배를 진행하고 있다.

관람정보: 동화사 성보박물관은 어른 1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의 입장료를 내야한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이며 관람시간은 하절기(3~10월)에는 10~17시, 동절기(11~12월)에는 10~16시까지다. (053)984-4410

승보 사찰 전통의 美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해인사와 더불어 삼보 사찰 중 승보 사찰인 송광사는 지눌 스님을 포함한 16명의 국사들이 출현해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4건과 보물 21 등 다양한 성보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특히 목조삼존불감은 국보 제42호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관람정보: 송광사 성보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18시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입장료는 무료. (061)755-0407

민족 정신문화 한 곳에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관

수덕사 성보박물관은 민족 정신문화의 모음처라는 뜻에서 '근역성보관(槿域聖寶館)'으로 불린다. 한국 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만공 스님의 유품을 통한 행적과 사상을 고양해 선대 선승의 얼을 후학에게 전하고 있다. 특히 경허 스님의 심우도 병풍은 깨달음의 10단계 중 6단계까지만 표현돼 있지만 스님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수덕사 근역성보관에는 본·말사내 불교문화재 4000여점이 소장돼 있으며 백제부터 시작된 충남 지역의 불교 원류와 변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비조관에서는 백제와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 비조사의 유물도 전시돼 있다.

관람정보: 매주 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며 별도의 관람료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9시 30~17시이다.
(041)337-2902

지역 문화유산을 한 눈에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

직지 성보박물관은 경북 북부지역인 김천 상주 구미 문경 예천 사찰에서 전해오는 불교문화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는 국보 제208호인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을 비롯해 보물 제319호인 직지사석조약사여래좌상, 보물 제1306호인 묘법연화경 등 국가 및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박물관은 전각 두 개를 붙여놓은 것처럼 ㄱ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박물관 마당에도 조선시대 2대 임금인 정종의 태실의 주변을 둘렀던 난간석과 보물 제1186호인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 등이 위치해 있다.

관람정보: 매주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이며, 관람시간은 9~17시 30분까지다. 단, 11~2월은 17시까지만 관람이 가능하다.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은 500원. (054)436-6009

활발한 연구 활동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제292호인 상원사중창권선문, 보물 제139호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등 620여 점의 성보문화재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국보와 보물, 강원도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23건에 달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4교구의 성보문화재 정밀조사, '강원도 성보문화재 종합적 검토'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소장유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람정보: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이며, 관람은 9시 30~18시까지 가능하다. 11~3월은 17시까지로 관람이 제한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033)339-6633

불서와 책판류 전시 특화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

범어사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적과 책판류를 중심으로 상설전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박물관에서는 불서의 출판과정을 미니어처로 연출해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는 보물 제419호인 삼국유사를 비롯한 지정 문화재 22건이 전시돼 있다. 또한 전적과 목판 등 1241건의 소장품과 함허 어록, 의상 대사 영정 등 56종의 전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관람정보: 관람 시간은 오전 9~17시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051)508-6129

찬덕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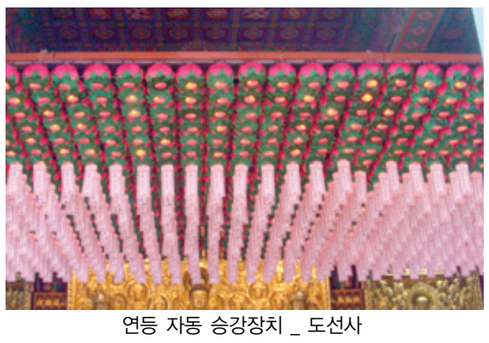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16

- 시어머니와 며느리 -



구성-김흥인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2011 빛고을 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 – 김정호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단지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을 기울여라. 그 뿐이다”

‘2011 빛고을 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에서는 김정호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가 ‘마음챙김’에 대해 강연했다. 김정호 교수는 10월 5일 광주 동구 KT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와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마음챙김이 현대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수행법임을 강조했다. **정리=양행선 지사장**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은 아쟁 연주를 들었습니다. ‘마음챙김’은 이처럼 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나를 보는 것, 이는 매우 독특한 방식의 주의(attention)입니다. 무엇을 하든 나를 관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이런 방법은 수행에 있어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 바라봄’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쟁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아쟁소리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반조(反照)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우리가 욕구와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정보처리입니다. 정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주의(attention)입니다. 우리가 감각하고(보기 · 듣기 · 냄새 맡기 · 맛보기 · 촉감 느끼기), 인지하고(생각 · 기억 · 판단), 동기(욕구)를 일으키고, 행동하는 등 모든 정보처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의는 대부분 밖으로 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본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물을 보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것입니다.

물은 연결돼 있어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는 모두 우리가 개입돼 있습니다. 아쟁의 아름다운 소리도 놀랍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내가 더 놀랍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가 “아름답다” “듣기 싫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음악을 듣고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는 이가 많습니다. 마음챙김을 주제로 모일 때에는 많은 분들이 명상, 마음, 나(我)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둡니다. 마음챙김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수행방법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스트레스가 생겨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집에서든 절에서든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아침 · 저녁으로 20~30분 좌선을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수행을 반복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참선을 일상이 아닌 특별한 의식으로 인식 한다면, 수행은 단지 취미생활에 그치고 맙니다.

마음챙김을 하려면

적어도 수행이라고 말한다면 생활 속에서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챙김은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현대인들이 생활의 리듬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주의를 주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챙김 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뤄지는 주의가 아닌 순수한 주의입니다. 이런 주의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음악을 듣는 나에게 주의하기, 화내는 자신의 모습에 주의하기, 기뻐할 때의 내 보습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입니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비난하려고 하는 나, 자식을 혼내는 나, 부모에게 화내는 나, 직장 동료에게 화내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스스로 제어가 됩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통제하려 들면 오히려 어긋나게 됩니다. 마음챙김은 어떤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그대로 주의깊게 들여다보기만 됩니다. 때문에 마음챙김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분 동안만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몇 명이나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면 안돼’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한, 콜라병을 들고 흔드는 하얀 북극곰이 더 또렷하게 생각날 겁니다. 본래 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챙김은 통제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스스로 통제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마음챙김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 가울여야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하면
행위, 하기전 스스로 제어 가능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을 때, 무조건 야단치고 화를 낸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챙김의 효과

행위 집중명상은 수행에 있어 행위의 결과와 욕구를 다 버리고 오로지 그 행위에만 전념하면서 그 행위에 따른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마음챙김을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눠 보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음챙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명상을 통해 마음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들숨을 쉬고 있는지 날숨을 쉬고 있는 알아차리면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들어오는 것이 끝나고 있는지 등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런 감각에 집중하게 되면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챙김은 삼매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중하는 나를 볼 수는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는 것이 몸 집중명상입니다. 머리부터 몸 전체를 스캔하듯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천천히 자신의 몸 전체를 스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가 몸 감각에 가 있으면 100점짜리 명상입니다. 만일 자신이 화가 난 상태라면 화가 나있을 때 자신의 몸을 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발표된 논문에 분노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발바닥에 주의를 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명상의 핵심은 감각에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생각에 주의가 가면 감각에 주의가 덜 가고, 감각에 주의가 면 생각에 주의가 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라고만 하면 쉽지 않지만, 몸에 대한 집중을 하면 생각을 자연스럽게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덜컹덜컹 흔들리는 소리, 휴대폰 소리, 안내방송 소리, 사람들의 냄새 등 모든 것을 열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에 주의를 적게 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챙김을 하지 않더라도 집중명상을 통해서 감각에만 주의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집중명상은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명상은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욕구와 생각은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욕구와 생각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면 됩니다.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고요하되 깨어 있는 현상을 느끼게 합니다. 일상의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일상의 욕구 및 생각과 무관한 것에 주의를 주면 됩니다. 그래야 수행이 단순히 취미활동이 아닌 진짜 수행이 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화와 불안이 나와 동일시 돼 내가 화가되고 불안이 됩니다. 하지만 떨어져 보면 불안만 남게 되고, 이 불안을 다시 떨어져 보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떨어져 보면 떨어져 보는 그 자리,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를 진아(眞我)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나를 에고(ego)라 하는데, 진아의 입장에서 보면 에고는 나를 위해 도와야 하는데 내가 에고를 위해 돕고 있습니다. 도리어 종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구에게 내가 휘둘리는 경우가 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종을 종으로 돌리기 바랍니다.

물결과 물이 있으면, 흔히 물결만을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결이 없는 물은 없습니다. 물결은 물입니다. 우리는 매트릭스같은 영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에는 자신도 나오고, 가족도 나옵니다. 그 꿈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꿈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준 것입니까. 현실이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현실처럼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꿈처럼 보고, 꿈을 현실처럼 보아야 합니다. 둘을 둘로 보지 않으면 감이 옵니다. 현실은 꿈이 아니지만 꿈같이 보면 마음챙김이 잘 됩니다.

마음챙김이 있으면 깨어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마음챙김이 있으면 깨어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마음챙김이 없으면, 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해 또 다른 차원의 나를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미얀마 관광청 승인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단 2회, 출발일 : 11월 8일, 11월 29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40,000 추가 경비 없음

★ 양곤 | 바고 | 짜익티오 5일 1,400,000 (추가경비포함)
★ 양곤 | 헤호 | 바고 | 짜익티오 6일 1,690,000 (추가경비없음)

관광청 승인 이벤트
겨울 성수기 미얀마 조기 예약 할인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 가이드+기사 팁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 지장/관음 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가이드+기사 팁



♤ 인도 골드트라이 앵글 완벽 8대성지 13일 초특급 259만원
♤ 인도 베스트 상품 완벽 8대 성지 9일 초특급 239만원
♤ 부탄 왕국 시컴 다르질링 11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천문산 5일 요금문의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풍류도를 불교적으로 통섭한 '삼국유사'

일연의 역사 감각은 냉철했다



민족성지인 백두산 천지. 옛 선조들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다.

홍익인간은 인간중심과 존엄사상
불교 전래 이전 고유한 삶의 방식
전통신, 호법신장으로 불교통합돼

1. 현묘한 도인 풍류도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독자적 세계관이 있었다. 우리 민족의 생각의 체계는 '하늘님 신앙'과 '무교(巫教)적 사유' 위에 기반을 두었다.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이들 천신신앙과 무속신앙은 점차 불교의 전래 이래 도교와 유교적 사유와도 만나게 되었다. 단군의 건국이야기는 부계적 천신인 환인(하늘)과 모계적 지모신인 웅녀(땅)가 만나 내적 초월신인 단군(사람)을 낳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단군이야기는 환인의 신성성과 웅녀의 동물성이 단군의 인간성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것은 환인의 천(天)과 웅녀의 지(地)와 단군의 인(人) 삼재(三才)가 결국 하나이며 단군의 인간성 안에서 환인의 신성성과 웅녀의 동물성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신령을 매개하는 주술사인 무당(샤먼)을 통해 무속신앙으로 이어졌다. 이 땅의 무속신앙은 신선사상과 샤머니즘이 융합해 풍류도로 토착화했다.

하늘님 신앙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弘益人間]는 인간 중심[人本]과 인간 존엄[現世]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땅의 동물인 곰과 호랑이를 보듬어 인간이 되는 길을 연 뒤 이곳에 머물며 그들을 다스리고 교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환웅은 세계의 기원이나 내세 및 하늘의 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인간과 인간 세계에 대해 얘기했을 뿐이다. 또 단군과 주몽 및 박혁거세 이야기에 담긴 하늘님 신앙은 우리나라 건국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조선의 개조인 단군이 하느님의 아들인 환인의 소생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좌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개조인 주몽도 하느님의 아들(天帝子)인 해모수(解慕漱)의 아들이며, 신라 개조인 박혁거세 역시 하느님의 아들로 불린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닌 천자(天子)의 나라임을 암시해 준다. 나아가 신과 인간 혹은 신과 동물 사이의 조화정신과 자연친화 정신 및 생명존중 의식도 보여주고 있다.

풍류도는 신라 진흥왕이 청소년 수양단체인 원화(源花)에 이어 제정한 풍월도(風月道)로 제도화됐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은 '난랑비서'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이것을 만든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갖춰 있다"고 역설했다. 고운은 또 "집안에 들어와선 부모에게 효도하고 벼슬하면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공자(孔子, 司寇)의 취지요, 함이 없는 일에 처하고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함은 주나라 노자(老子, 柱史)의 종지며, 착한 일들 하지 않고 좋은 일들 높여 함은 축건(인도)의 석존(釋尊, 太子)의 교화"라고 했다. 풍월도의 주체인 화랑(花郎)은 산천을 순례하고 심신을 단련하면서 인위를 배격하고 소요 자재한 삶을 살았다. 그들 무리[徒]는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불교적 삶과 나라(임금)와 부모를 존중하는 유교적 삶, 그리고 무위의 자연을 소요하는 도교적 삶을 함께 살았다.

때문에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도 이 땅에는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 고려의 이지백은 "다른 나라의 이법(異法)인 유불선을 행하지 말고 선왕이 행하던 연등(燃燈)·팔관(八關)·선랑(仙郎) 등을 부활하여 다시 행하는 것이 국가를 보위하고 태평하게 하는 길"이라고 성종에게 주청하고 있다. 이들 셋은 불교 이전의 이땅 고유의 세계관이며 이들을 통틀어 우리는 풍류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풍류도 세계관은 신라의 문화를 이어간 고려의 국가 의례로 거행되었다. 이들 의례 속에는 하늘을 주재하는 천신뿐만 아니라 산을 주재하는 산신 및 물을 주재하는 용신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고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섭해 왔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과 땅에서 살아온 웅녀 사이에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과도 연속된다.

2. 샤머니즘의 불교적 통섭

본디 기마민족의 후예였던 선조들은 이 땅에 정착한 이래 농경을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이들은 가뭄과 홍수를 이기기 위해 정성을 다해 하늘(의 북두칠성)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 또 성황당의 고목을 향해 가족의 무사와 무탈을 기원했다. 이들은 하느님인 환인을 숭상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큰 바위나 우주수(宇宙樹)를 숭배했다. 하늘로 우뚝 솟은 바위와 큰 나무는 신이 내려오는 길이었다. 불끈 솟은 바위 밑의 감실 앞이나 나무 밑 제단은 정성을 들이는 기도처가 됐다.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온 박달나무(神檀樹), 늘 티 없이 동구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 동아리를 틀고 타고 올라가는 등나무 등은 대표적인 당나무였다. 사람들은 이 당나무에 타르쵸(티베트 경문)와 같은 울긋불긋한 천들을 걸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람'을 일으키는 이 당나무를 향해 촛불을 밝히고 향을 사루며 음식을 올리고 정성을 들였다. 산과 나무는 기원자에게 감응해 현몽하거나 현신했다.

이렇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온 무속신앙은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祈福禳災] 공능을 확보해 갔다. 하지만 불교계는 공인 이후 천신신앙과 고목신앙을 대체해 가면서 사상계를 주도해 갔다. 그 결과 산신은 바위 밑 감실 옆에 산신각으로 자리잡았고, 칠성은 바위 꼭대기 아래에 칠성각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옆에는 나반존자를 모신 독성각이 세워졌다. 불교는 점차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독성각과 산신각을 아우르기 위해 강우(降雨)와 수명(壽命)과 재복(財福)을 주재하는 칠성을 칠성여래 혹은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로 승화시켜 산신과 독성을 삼성각(三聖閣, 三神閣) 안으로 이끌고 왔다. 이제 삼성 혹은 삼신이 삼성각 안에 함께 들어오면서 이 땅의 전통적 신앙은 불교로 통섭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신들은 점차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으로 수렴됐다. 환인이 전통적 하늘님인 도리천주인 제석(帝釋)으로 비정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불교의 우주관을 접목하여 민족사를 재구성했다. 불교는 욕계(6천)와 색계(18천)와 무색계(4천)를 아우르는 삼계를 28천으로 세분하고 있다. 불교의 백과사전인 당나라 도세(道世)의 〈법원주림〉(100권)에 의하면 욕계 제2천인 도리천은 선견성(궁)이며 이곳을 지키는 주인은 제석이다. 도리천은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으며 지거천(地居天)의 끝이자 공거천(空居天)의 시작이다. 그 중앙에 제석천이 있고 사방에 각기 8천(天)이 있어 합하면 33천이 된다. 천태가인 형계 담연(荊溪湛然) 삼계를 6도(道)· 25유(有)· 9지(地)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처럼 불교의 세계관에 의해 일연은 환인을 불법의 호법신장인 '제석'으로 비정했다. 그러면 일연은 왜 우리의 하느님인 환인을 제석으로 비정했을까? 그는 몽고의 침입에 의해 '주체'와 '구심'을 상실한 우리의 역사를 불교적 역사로 새롭게 세워내고자 했다. 우선 일연은 전통적 하느님인 환인을 불교적 하느님인 제석으로 비정했다. 이것은 일연의 거대한 문화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서 불교는 전통의 담지자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및 과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갔다. 종래 무속 신앙은 특히 부여의 제천행사인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에서처럼 집단 굿의 원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우리 조상들은 집단 굿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빌었다. 이들 집단 굿은 '푸는 의식'으로서 가무와 놀이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정서의 밑바탕에 다리잡고 있던 무속 신앙은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를 위안 받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며 정신세계를 활발발하게 드높였다. 그리고 외래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불교에 흡수된 무속신앙은 이제 전통문화의 구심인 불교의 주변부에서 전통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해 오고 있다.

3. 불교적 우주관의 건립

제석은 '석제환인'(帝釋桓因) 혹은 '석가제바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 또는 '석가제환인다라'(釋迦提桓因陀羅) 등으로도 불린다. '샤크라'(Sakra)는 번역하여 '능'(能)이라 하고, '제바'(提婆, Deva)는 '천'(天)이라 하며, '인다라'(因陀羅, Indra)는 '주'(主) 혹은 '제'(帝)라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석제환인'은 곧 '능천주'(能天主) 혹은 '능천제'(能天帝)로 옮겨진다. 이 제석은 욕계 제2천인 도리천(33천)에 있는 선견궁(城)의 제왕이다. 그는 묘고산(妙高山, 須彌山) 꼭대기에 머물며 33천의 제왕이 되었다. 그는 지거천의 끝이자 공거천의 시작인 수미산정에 머무르며 주변의 8천왕을 다스린다. 그는 큰 위덕을 가지고 32천을 다스리면서 불법을 보호하는 하늘의 임금님이다.

일연은 부계적 천신인 환인을 욕계 제2천인 도리천의 성주인 제석으로 비정했다. 그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은 지상과 천상의 관문을 지키는 제석을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으로 비정함으로써 이땅을 불교적 우주관으로 새롭게 재편한 것이었다. 일연은 당시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했던 세계관인 불교를 통해 우리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원나라의 무도함에 맞서기 위해 불법을 통해 새로운 역사 만들기에 동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중국(원)과 대등한 역사의 기획을 통해 당시 고려 지식인들에게 우리 역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왕검이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부른 해가 요(堯)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 경인년(정사년?)으로 할주(割注)를 단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군이야기에 의하면 하늘의 제왕인 하느님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지상의 웅녀를 만나 단군을 낳았다. 단군 왕검은 47대의 세계(世系)를 가진 실존 왕조의 개조이다. 그는 조선의 개국조이자 부계적 천신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모계적 지모신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것은 조선의 시원이 중국의 시원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연은 '기이'편 서문에서 중국의 성인인 공자가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의 개조 혹은 개국조들이 괴력난신을 통해서 태어났음을 기술한 중국 역사가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공자를 성인으로 떠받드는 중국 지식인들의 자가당착이요 자기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연은 "조선(삼국)의 개조 혹은 개국조들 역시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탄생했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괴이하랴"고 역설하면서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연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의 기치를 내세우는 선사(禪師)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들의 삶의 본질을 담아내는 역사서를 찬술했다. 일연은 출가자로서 국가와 제도 및 역사와 사상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우리의 그것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화를 신화로서 이해하고, 역사를 역사로 인식하는 매우 냉철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 일연은 선사이면서도 국사(國師)의 소임을 다했고 남해 분사도감의 대장경 판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한 선각자였다. 때문에 그는 삶의 본질을 담아내는 역사 기술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인식했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수트라인 〈삼국유사〉를 찬술해 낼 수 있었다. 이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대한 일연의 투철한 확신과 보살적 자비심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영섭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불자정보 857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소불65불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500만원

010-2878-3380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
- 시내 한복판 포교원
- 조용히 공부하시며 지내실 분을 찾습니다
- 보증금 200만원, 월세 18만원
- 관리비 10만원 정도
- 시설비 250만원

010-9117-5721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역 7번출구
- 평수 50평
- 가액: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21만원
- 시설비 1천만원 (조정가능)

010-4740-3001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상주
- 대지 150평
- 건평 35평
- 법당, 요사채, 방4칸
- 가액 1억 5천만원

010-9515-9559

포교원안내
- 위치: 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330-584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기장. 시장부근
- 상가건물 3층중 2층
- 31평
- 삼존불, 시설완벽
- 전세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절충가능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90평
- 산신각, 용왕당 대웅전(23평), 종각 요사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포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787-6624

서울근교사찰
- 위치 : 서울 30분거리 남양주 오남 신도시 지역
- 30만 신도시 불교 불모지
- 호수가 언덕 아늑한 곳
- 토지 500평, 법당 30평, 요사채 70평 서별당 20평(가건물)
- 종교법인등록 완비
- 비구니 스님에 한함, 무속스님 불허
- 양도 동창금 3천만원

010-6600-1377

포교원안내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 종합 터미널 10분거리
- 대지 50평
- 방3, 세놓을 수 있음
- 법당 – 아미타 삼존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11-381-1102

암 자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 대전에서 45분, 시내에서 20분이내
- 평수 73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인법당
- 문필봉과 일월양봉이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좋으며,겨울에도 따뜻한곳
-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 가액: 1억 5천만원

011-9514-77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평가량
- 법당, 거실, 방2, 주방, 화장실, 창고 등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면담 후 결정

055)277-0146
010-4135-1198

토 굴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
- 대지 205평, 건평 57평
- 2층건물, 목조 황토. 기와 기붕(라운드형)
- 뒷산 계곡 있음
- 가액: 4억
- 전세는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010-4562-1081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남구 숭의동
- 평수 : 33평, 4층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70-8910-5161

영천 토굴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읍내동
- 2층 약 50평, 방3칸, 주방 ,욕실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199-7897
053)311-9686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소재
- 대지 공동사용(도지 1년 35만원)
- 건물 약 28평. 단청집 전체사용
- 건물 등기 있음. 사용편리함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위치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가액: 4천만원

010-7295-1259

도심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60평(3층건물)
- 가액: 5억(은행대출가)
- 양도받을 분의 조건에 맞춤 양도

011-800-0005(주인)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자골산 부자골
- 대지 330평, 건물 70평
- 천신기도도량
- 마당 앞 바로 계곡 있음
- 가액: 상담 후 조절

055)573-8802
010-8904-9284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시내
- 대지 170평, 건물 40여평
- 창고 약 6평, 방4개, 법당1개, 공양간, 화장실2, 보일러실 별로(연탄, 기름겸용)
- 삼존불, 후불탱화, 108 호신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모든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010-8653-32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부산외곽)
- 법당 : 20(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급매가)
- 즉시법회가능함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목조)
- 요 사 : 70평
- 부 지 : 실평 200평
- 가 액 : 6억 8천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60평
- 가 액 : 5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 전망 최고 마산

- 총부지: 6,000평
- 목재법당(100년 역사)
- 전각 5동, 요사채방6칸, 대종각, 삼성각
- 가액 13억

울산 시내

- 총부지 : 2,600평
- 목재법당 30평(내9포 외5포) 산세 전망최고, 주차장 500평
- 아파트 5만 세대
- 총가액: 13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 010-9006-56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월전리
- 대지 1,000평, 임야 3,0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3433-343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3천만원,월100만원 시설비 보시고 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무량광불이신 아미타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도량입니다

- 3층 55평 2000만원 월130 시설비 7천만원
- 주차장 넓음
-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010-9688-162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북한산)
- 법당 20평
- 요사 50평(2동)
- 부지 약 500평
- 동쪽 수락산을 마주보고 있는 영험한 기도도량임
- 가액: 6억 5천만원

기도터(토굴)

- 위치:경기도 양평
-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청정계곡(해발 600m)
- 남향 토지 350평(사용할수 있는 국유림 700평) •합 1000평
- 현재 농가주택 한 채 있음
- 심야전기 보일러, •마당까지 차량진입
- 가액 : 2억2천

대 력 불 사
031)775-8110 / 011-531-5562

사 찰 안 내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4800만원
- 법당20평, 요사40평,총12,000평
- 1년 5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 임야 2만 3천 6백평
- 도량터, 약 1천평
- 현재 임법당 사용중
- 건물 조립식판넬(약 30평)
- 물소리 졸졸 납니다
- 현재 불사중
- 가액: 2억 4천만원

010-2055-8506

포교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에어컨 2대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2천만원중 조금만

010-4099-8458

포교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전망 좋음
- 대지 : 50평
- 사용평수 : 120평
- 법당, 요사채, 주차장 넓음
- 가액 : 2억 8천만원

010-4601-7881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 몸만 오시면 됨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현풍면
- 건물 62평
- 법당 30평
- 공양간20평, 방2,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53)611-2929
010-5040-2727

포교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대라리 시장입구
- 평수 : 97평. 4층에 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031-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포교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거실
-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 (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절만 분할판매 가능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8천만원대출)

010-3112-351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 입구
- 상가 건물 3층 중 2층. 33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법당, 방2개, 홀 겸 주방
- 전세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7307-95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0-4085-11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찰안내(암자포함)

경치가 수려하고
암자는 고찰터로경허선사 , 천태종 상월조사 공부터임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 암자 30평
- 산신각 3평
- 가액: 15억

010-2713-6664

사 찰 안 내

- 위치: 전주시내 최고중심
- 법당1, 방1, 주방, 욕실, 도시가스
- 깔끔하고 편리함 , 뒷문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모든 의식 가능
- 주차 충분히 가능
- 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063)246-8481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5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8억5천
- 위치 : 지리산중산리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외 전각3채
- 복조, 황토
- 가액 : 13억3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 평수 800평
- 대웅전 20평, 판넬조립식(도색완료)
- 요사채 20평(블럭 시멘트 제작)
- 산신각 3평(목조, 골기와)
- 주차장 100평, 조경완료
- 가액: 2억 8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경남 고성군 대가면 고성 IC 10분거리
- 평수 168평, 실평수 300평
- 조립식법당 20평, 삼존불
- 각종 탱화 시설완비
- 요사채 15평,산신당6평,용왕당4평
- 스님방 3평,수도,수세식 화장실 2개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4618-70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삼방시장옆
- 평수 45평, 3층에 2층
- 석가 삼존불, 신중, 영단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7164-713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남구봉덕동남구청4거리부근
- 5층건물중 3층(40평)
- 3층.법당 삼존불
- 엘리베이트시설,각층,화장실,에어컨시설 완비
- 교통편리, 신축건물임
- 보증금1천만원,월6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53)251-5188
010-8181-50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 약 600평
- 가옥 5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 맑고 신선한 기운터로 인정
- 선방,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 3억5천만원 (답사후 조정가능)

010-8582-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시내 20분거리
- 부지 : 2700평 (종교용지 800여평포함)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 산신각등 ,부속건물유
- 가액 : 딱 15억(중개인사절)

011-844- 300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사 찰 (터) 안 내

- 충남공주시 유구읍 추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 : 전 • 면적 : 20,03㎡(2필지)
- 가액 : 7,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함(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 위치
- 도로, 토목, 전기공사 완료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유구IC 5분거리
- 조망 최고임, 암자, 기도처 추천

010-2429-20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3천만원,월100만원 시설비 보시고 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대라리 시장입구
- 평수 : 97평. 4층에 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031-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포교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거실
-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 (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절만 분할판매 가능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8천만원대출)

010-3112-351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 입구
- 상가 건물 3층 중 2층. 33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법당, 방2개, 홀 겸 주방
- 전세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7307-9577

선 방 , 절 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 약 600평
- 가옥 5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 맑고 신선한 기운터로 인정
- 선방,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 3억5천만원 (답사후 조정가능)

010-8582-0103

도심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번지 의창빌라 상가 2층
- 평수 54평, • 방3, 및 주방 화장실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호신불100불
- 비구니스님도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8211-8590
010-8602-3990

도 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200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관계는 상담 후 결정

032)519-1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포교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에어컨 2대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2천만원중 조금만

010-4099-8458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2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 평수 25평, 2층
- 모든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시설 A급, 몸만 들어오면 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70-4078-90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사찰 전원 주택

- 위치 : 고양시 지축동 산 접 조용한 집
- 대지 300평 건물 60평, 2층 신축
- 남향, 주차장 (증축가능),
- 전철3호선 지축역 10분
- 가액: 12억(주인직접)

010-9244-13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낙민지하철역 1분거리
- 대지 68평
- 1층 요사 111.39㎡,
- 2층 법당 84㎡,
- 3층 삼성각 27.44㎡
- 각종 부속물 있음
- 가액: 4억 3천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진량읍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 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7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기차역 걸어 10분)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 70평)
-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영단
- 연등LED 300구 냉, 온풍기(천정형)
- 방2개, 공양간, 남,녀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포함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함(현재 법회중)
- 모든 주방용품(130인분) 인계함

011-212-77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3천만원

010-8585-1383

사찰터안내

- 위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 지번 287(답)– 1105평 –보전관리지역
- 절터, 기도처, 펜션, 전원주택지, 바다보이는 최상전망
- 진입로 확보해줌, 평당 30만원
- 지번 292– (대지)200평 평당 20만원
- 지번599– (답) 539평
- 지번2921 – (전) 31평 평당 13만원, 전기유, 수도유
- 지번293(전) – 330평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

052)282-4969 / 010-6373-7260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2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 평수 25평, 2층
- 모든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시설 A급, 몸만 들어오면 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70-4078-904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낙민지하철역 1분거리
- 대지 68평
- 1층 요사 111.39㎡,
- 2층 법당 84㎡,
- 3층 삼성각 27.44㎡
- 각종 부속물 있음
- 가액: 4억 3천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3천만원

010-8585-1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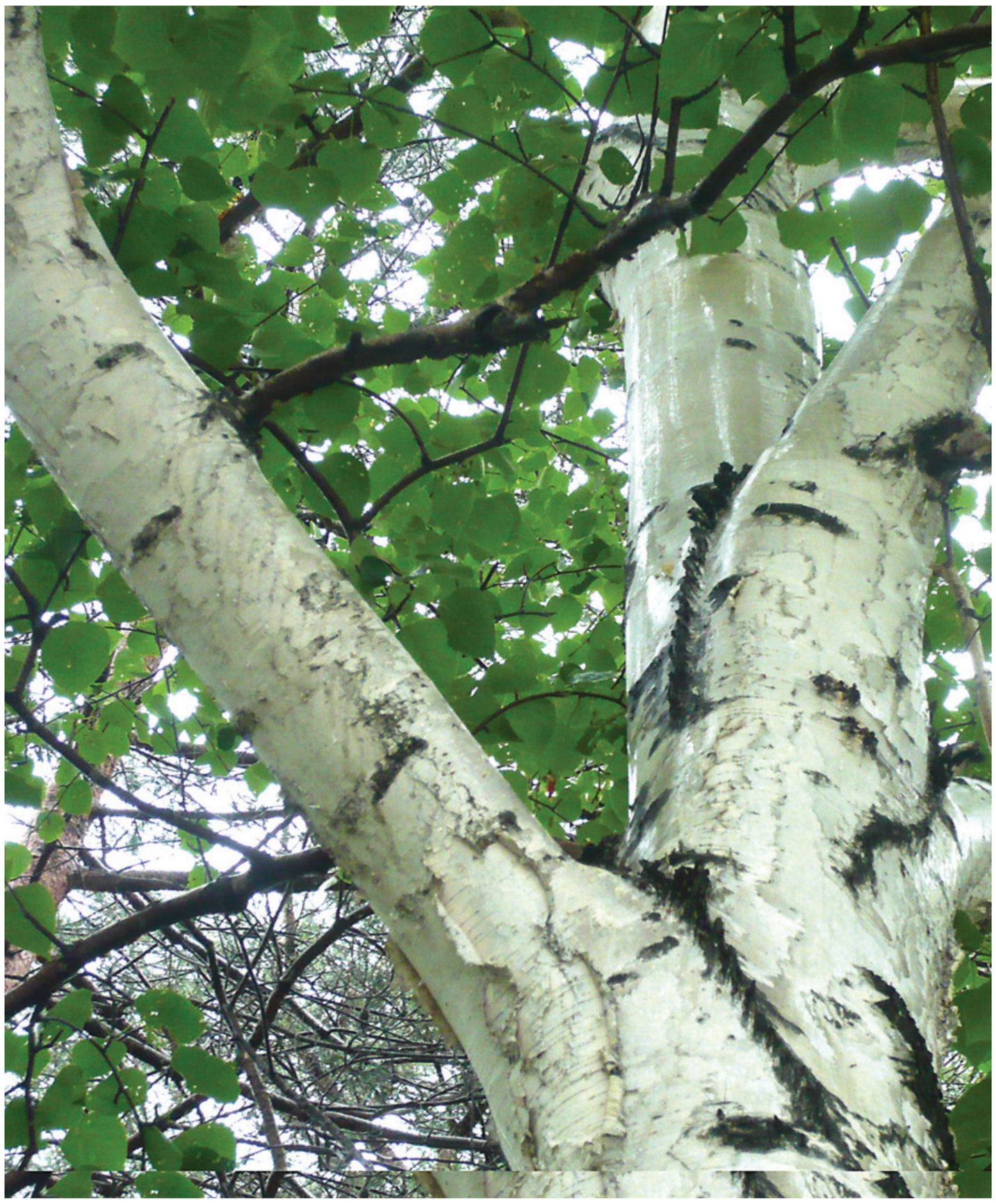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상대동
- 평수 : 34평 , •3층 중 2층
- 삼존불 모셔있고 방 1, 주방,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최고시설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7476-9002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 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난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 선가귀감 –

'화촉(華燭)'은 자작나무 껍질 태워 쓴 것에서 유래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나온 시베리아의 숲이 바로 자작나무. 사진은 백담사 입구의 자작나무이다.

자작나무 이야기

'5월 2일, 세기의 커플 장동건과 고소영이 화촉을 밝혔습니다.' 매스컴을 달궜던 제목이다. 비록 그들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주중, 주말할 것 없이 무수한 화촉들이 밝혀진다. 축의금 부담 때문에 못살겠다는 비명도 들린다.

흔히 결혼식을 '화촉을 밝힌다'라고 한다. 이 말은 촛불이 없던 시절에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붙여 촛불 대용으로 쓴 것에서 유래되었다. 자작나무는 한자로 화(華) 또는 화(樺)로 표기한다. '화촉을 밝힌다', 이는 자작나무 껍질의 불로 어둠을 밝혀 행복을 부른다는 뜻이 담겨있는, 곧 결혼식을 의미한다. 자작나무류가 많은 지방에서는 이 나무에서 기름도 얻는다. 그래서 자작나무는 밝음과 빛의 상징이다.

붉은 색 양초는 결혼을 상징한다. 華(화)는 가지에 피어 있는 예쁜 꽃의 모습이다. 그래서 '화려하다, 빛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화려(華麗), 화사(華奢), 번화(繁華), 부귀영화(富貴榮華), 호화(豪華)라는 말이 있다.

촉(燭)은 화(火)와 촉(蜀)의 결합이다. 촉(蜀)은 해바라기 벌레를 말한다. 변색(變色)에 뛰어나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물(水)을 흐리게 하는 것이 촉(蜀)이고, 기어가는 모습이 뿔(角)을 쳐들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 촉(觸:뿔로 들어 받을 촉)자가 나왔다.

또 욕심이 많아 혼자 먹는다 하여 짐승을 뜻하는 견(犬)자를 덧붙여 독(獨)자를 만들었다. 본디 승냥이같이 생긴 일종의 야생 개를 뜻한다. 촉(燭)은 촉(蜀)처럼 갉아먹듯이 하면서 불(火)을 밝힌다는 뜻으로 초나 촛불을 의미한다. 촉광(燭光), 촉대(燭臺), 촉수(燭數), 쌍촉(雙燭) 등의 단어가 있다.

따라서 화촉이라면 화려한 촛불로 붉은 색의 초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육조시대부터 결혼식 같은 경사스런 날에 화촉을 사용했다. 붉은 초에 흰 불이 타들어 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

화촉은 결혼 의식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첫날밤을 지내는 신혼방에서도 사용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화촉동방(華燭洞房)이다. 곧 동방(洞房, 신혼방)에 화촉을 밝혀 놓고 첫날밤을 보낸다는 뜻이다.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해보면, 예식 전의 식장은 어둠이다. 이 어둠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요,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한다. 양가 어머님이 신랑, 신부가 걸어 들어올 통로에 마련되어 있는 초에 불을 붙이며 입장한다. 지금은 약식으로 단상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인다. 어머니에 의해서 밝혀지는 촛불은 탯줄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어머니들의 고통과 기쁨을 의미한다.

자작나무는 참나무목 자작나무과의 식물이다. 겨울에 잎이 지는 큰키나무다. 대개 20m쯤 자라며 북부 지방의 깊은 숲에서 자란다. 잎은 어긋나게 붙고 세모에 가까운 달걀꼴로 끝이 뾰족하다. 암수 한그루이고 꽃은 4~5월에 아래로 드리워지면서 핀다. 원통 모양의 열매도 아래로 드리우면서 달리고 9~10월에 여문다.

자작나무는 무엇보다 껍질이 유명하다. 자작나무는 10~12장의 얇은 껍질이 겹겹이 붙어 있으므로 한 장씩 벗겨 내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썼다. 자작나무 껍질에는 부패를 막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좀도 슬지 않고 곰팡이도 피지 않는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땅속에 묻혔던 자작나무 둥치는 완전히 썩어 없어졌을지라도 껍질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다. 경주 천마총의 천마도도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것이다.

자작나무 목재는 박달나무와 마찬가지로 아주 단단하고 결이 고와서 가구를 만들고 조각도 한다. 게다가 벌레가 잘 먹지 않아서 오래간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 일부도 자작나무가 재료이다.

자작나무는 주로 북반구에 약 7속 10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5속 23종이 분포되어 있다. 자작나무속은 북반구 온대와 아한대에 약 40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7종이 분포되어 있다. 러시아 바이칼호 주변과 백두산의 자작나무 군락은 장관이다. 해열, 제습담, 기침, 부종 등에 해독 작용을 하는 약재로도 쓰인다.

'자작자작' 소리 내며 탄다하여 이름 붙인
자작나무… 팔만대장경 경판에 쓰이기도

자작(子爵) 작위 받은 품위있는 나무지만
해열 · 기침 · 부종 등 해독제로도 쓰여

자작나무를 태우면 껍질에 함유된 많은 유지성분 때문에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탄다. 그래서 이름을 자작나무라고 했다. 나름대로 또 다른 가설을 붙여보면 이렇다. 대부분의 나무껍질은 갈라지고 벌어지고 투둘투둘하다. 희고 미끈한 껍질을 가진 자작나무는 품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가히 자작(子爵)이란 작위를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다. 영국 귀족의 작위제도는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이라는 오등작(五等爵)으로 나눈다. 공작이니 백작이니 하는 작위를 가진 귀족은 2차 대전 이전까지 '에헴' 하고 살아갔고 일부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이 오등작은 동양에서도 쓰여진 제도이다. 고대 주(周)나라가 봉건제도를 실시하면서 제후들에게 오등작의 작위와 봉토를 나누어 주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계급을 만들면서 유럽을 본 따서 오등작을 실시했지만 2차 대전의 패전으로 몽땅 사라져버리고 왕실가족 빼고는 작위가 없다.



모두들 화촉 밝힐 때의 초심대로, 자작이란 귀족 작위를 받은 것처럼 품위 있게, 자작나무 껍질처럼, 천 년 만 년 썩지 않는 사랑을 이어가시길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격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4〉

미국 성인 8명 중 1명이 명상을 한다

미국·프랑스는 명상인구 증가 추세
선의 보편화에 한국불교 미래 달려

9월 28일 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가 '현대 명상 문화와 한국선의 과제'였다. 행사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 것 같다.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명상에 대한 보편성으로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禪)은 명상(Meditation)이라는 용어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 이면에는 북방의 간화선보다는 남방의 위빠사나가 세계적으로 저변화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평화주의자이다.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에 수행공동체인 플럼빌리지를 세웠는데, 그 곳에 참가하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한다. 이곳에서 명상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도 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이라는 자국의 불자들에게만 국한해 진리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평화와 자비를 드러내기 때문에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단, 마음을 열고 불교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종교평화선언'이 최선이지만, 굳이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종교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요,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 광대가 홀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과 같다.

〈금강경〉에서 '일체법(一切法)이 불법(佛法)'이라고 했다.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교의 진리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우주 만물의 실상을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인데, 선이라고 하는 실천체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닦는 선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세계사에 종교전쟁이 없었다. 어느 나라에 불교가 유입될지라도 그 나라 문화 풍토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었다.

진리 차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에게 참 삶의 길을 제시한다. 참 삶의 길을 실천하는 선, 즉 명상은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한다. 불교는 행(行)을 통해 깨달음으로 향해가는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요, 신의 종교가 아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것이다"라고 하였고, 분석심리학자 칼 융은 "선은 동양의 정신 가운데서도 불교의 방대한 사상체계를 훌륭하게 수용하여 핀 중국 정신의 가장 놀라운 꽃이다"라고 발언했다.

1950년대 일본의 스즈키다이세츠(領木大拙)가 서양인들에게 최초로 선(zen)을 알렸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영국의 가수 비틀즈가 인도를 수차례 방문하고 명상함으로서 당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했다. 비틀즈를 시발점으로 인도 요가와 명상이 서양에 알려지면서 선은 서양인들의 관심사가 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의 마하시, 태국의 아잔차, 베트남의 틱낫한, 한국의 숭산, 대만의 성엄 등 동양의 스승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서양에 선을 전했다. 선의 시작은 동양이지만, 20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재가자들의 명상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도 한몫 했다. 리처드 기어는 1980년대 초부터 달라이 라마를 후원하면서 티베트 독립을 위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시킨 장본인이다. 알렉 볼드윈,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맥 라이언 등 스타들도 티베트를 후원하면서 불교와 명상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종교로 발돋움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많은 서양인들이 티베트·태국·일본·미얀마·한국에 출가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출가한 1세대 서양 승려들 혹은 재가 수행자들이 아시아에서 10여년 이상을 수행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직접 명상을 지도하며 서양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됐다.

이 명상 지도자들의 독특한 점은 선을 자국의 현실과 문화에 변형시켜 지도한다는 점이다. 특히 서양의 명상 지도자들 대부분이 미얀마·태국에서 위빠사나를 한 뒤, 명상을 의학·심리학·정신분석·과학 등과 함께 접맥시켜 새로운 불교 코드를 형성시켰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사인 존 카밧진이다.

미국의 성인 인구 8명 가운데 1명이 명상을 하고 있고, 고교 교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프랑스인들은 몇 년 전부터 명상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서양인들이 불교로 개종하고, 채식하는 등 불교적 삶을 영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종교는 버리지 않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불교를 배우고 명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을 재가자들에게 보편화 하는 길이다. 간화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되 승려가 발 벗고 나서기보다는 미얀마의 마하시나 태국 아잔차 스님처럼 눈 푸른 납자들이 배출돼야 한다. 굳이 부르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의 미얀마나 태국으로 명상자들이 몰려가듯이 한국 승려들의 진정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번쯤 가고 싶은 한국, 한번쯤 수행하고픈 한국의 간화선으로 재탄생돼야 한다.



명상은 종교·국가·이념을 초월한 인류의 공동재산이요, 문화이다. 붓다의 진리가 중생들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박수경 소장의 자연주의 교육

한국 아이, 스마트(Smart)해요

"지원(Jiwon)이는 스마트해요! 예의도 바르고 사랑이 많은 아이예요!"

4년 간의 독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결정을 하였을 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에리카(Erika)가 우리 아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귀국을 위한 초등학교 송별파티에서 에리카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에리카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었다.

'한국 아이들은 모두들 그렇게 예뻐요'라고.

아이들과 한국행을 준비하던 2003년 무렵에는 세계학력 평가 대회인 PISA-Study의 결과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대단했다.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를 왜 잘 할까? 이에에 대해 교육의 선진국이라는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지대하였고 독일도 예외가 아닐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답을 '지원이에 대한 Erika'의 말을 통해서 나는 들었던 것이었다.

교육에서 최상의 목표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고 본다면 우리들은 생활을 통하여 최상의 교육을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도 전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 부모 개개인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명품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낯선 독일 생활이지만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차이는 더욱 또렷이 구분할 수 있었다. 한국 문화와 가정교육의 독특성이라고 할까?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한국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타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국의 강점을 더 면밀히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한국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전수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되는 준비과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할 도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이뤄졌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런 당연시 된 문화가 어느 시점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됐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과제는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당연시 되지 않아가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역할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이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오래된 전통과 풍부한 문화를 장점으로 꼽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좋은 가족문화와 자연환경, 정이 넘치는 인간관계 등을 열심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창시절에 뜻 모르고 외웠던 단군의 건국이념이, 지금에 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강한 의미로 다시 와 닿는 것은 무엇일까? 훌륭한 인재 배출을 위한 우리 조상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슬기로움이 엿보여 사뭇 경이롭기조차 하다.



자연주의교육연구소 소장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중국동포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어

조선족 또는 재중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조선계 중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한민족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이라고 불리운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 자료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표기된다.

중국에서의 조선족 인구는 소수 민족 가운데 13번째로 많다. 전체 약 200만명 중 50여 만 명 정도가 한국에 체류 중이다. 2011년 행안부 통계로 이주민인구 126만여 명 중에서 50만명 이상이 중국 동포로 채워지고 있다. 워낙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같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외국인으로 보기도 뭔가 아닌 것 같다. 현재 서울에만 중국이주민은 7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막강하다.

리와 얼굴. 골격. 생김새가 아주 똑같아서 식별하지 못하는 점이 실감나지 않을

조선족 200만 중 50만이 한국에
국내 이주민 수로는 절반에 달해
서울지역서만 이주민의 75% 차지

뿐이다.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중국에서의 소수민족의 한 이름이고, 여기에서는 중국동포로 불러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들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이 시대의 담론이 되고 있다. 조선족이 동포개념인지, 그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사람인지, 엄연한 외국인인지 고르고 따지고 하면서부터 우리국민의 정체성과 역사, 체제 논쟁과 맞물려서 거대 담론으로 커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사상의 벽을 뛰어넘어 말 그대로 사선을 넘어온 북한동포에 대한 지원책과 정책이 다문화이기 이전에 다른 영역으로 분류되고 확대되자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동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강제로 이주한 슬픈 역사를 통해 정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동포와 다를 게 없다는 논리이며, 북한동포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포용적인 정책을 자기네들에게는 왜 차별하듯이 차갑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통으로 넓게 바라보면, 동포냐 외국인이냐를 따지는 이런 양분적 시각의 질문은 이 시대에 의미가 없다. 즉 세계화. 다문화시대로 들어온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동포개념은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정부의 입장 역시도 과거에 조선족을 동포관점으로 봤다가 최근에는 외국인력의 한 부류로 접근하는 양상이 짙다.

현재 조선족 출입국 규모를 정하는 정부의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09년에 조선족 체류자 상한선을 30만 3000명으로 정한 바 있다.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국내체류자가 줄면 그만큼만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선족이 방문취업사증 H2비자로 국내에 머무는 규모는 올해 29만 7000명이다. 방문취업비자는 노무현 前 대통령시절인 2007년 비자문제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가족해체 등 고통을 겪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5년 기한으로 언제나 왕래할 수 있게 내준 것이다. 이것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특별대우해준 셈이다.

이런 특별대우 때문에 내국인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동포를 외국인. 외국 인력으로 보는 쪽으로 정책 철학을 바꾼 것이다. 어쨌든 2007년 입국해서 비자 시한이 끝나는 중국동포들은 내년부터 매년 6만~7만명씩 출국해야만 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로서도 굳이 남아있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게 상당수 중국동포들의 입장이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반다문화주의자들의 거센 반감이 일고 있는데 중국동포들의 노동시장 점유가 큰 이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을 쫓아내면 역시 저임금을 쫓아 공장도 해외로 나갈 것이고, 식당 종업원이나 간병인 등의 임금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로 퇴화할 것이 눈에 보이는 예측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과제 그리고 지혜로운 대안들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회통합으로서 서로 포용해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국다문화센터연구소장겸 레인보우 합창단장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을 검색해 주세요.
「붓다북」에서 총서를 구입하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붓 다 북 바로가기 QR코드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J. 칼루파하나/김종욱 옮김/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붓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작!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저/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3 밀교학 개론
종석 저/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 저 · 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법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명학, 고대화폐학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 저/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옹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 저/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청화 저/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지욱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 저/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제바달다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 저/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수증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섭과 그것이 가져오는 창발효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 저/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형곤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www.unjusa.com

금화산을 오르던 개화파의 가슴엔 무엇 담고 있었나?

개화사상의 산실 신촌 봉원사


영조의 친필로 쓰인 봉원사 현판은 6.25전쟁 때 소실됐다.


절 입구 한켠에 있는 부도밭


봉원사는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이며, 갑신정변의 주축을 이룬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파 인사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동인 스님이 5년간 주석했던 갑신정변의 요람지이기도 하다.

죽은 세손 위해 영조가 원찰 삼은 봉원사
승려 이동인과 김옥균 등 개화파 산실 이뤄
불교의 평등 바탕한 국민국가건설 꿈 꾸던 곳

요즘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문화가 유행이다. 한류라 부르는 이 분위기는 동남에서 한국 드라마로 시작됐다. 지금은 음식, 의류, 그리고 노래까지 여러 분야에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역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로 확산되는 중이다. 얼마 전까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여념이 없었던 우리의 처지가 갑자기 바뀐 것이다.

1876년 조선의 문호가 열리자 당시 젊은이들은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무기를 갖고 있던 일본과 서구열강의 힘에 놀랐다.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세상을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신지식을 이용해 구태에 머물던 조선사회를 바꿔보고 싶었다. 세계와 소통해 조선사회를 변화시킨다해 그런 생각을 개화사상이라 불렀다.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조선을 변화시키려 한 사람들을 개화파로 불렀다.

지금 경복궁 서쪽 사직단을 거쳐 사직터널을 지나면 독립문역이 나온다. 독립협회가 세운 독립문에서 비롯된 역명이다. 이 문은 1884년 갑신정변 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896년 귀국한 서재필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던 1897년 11월에 세웠다. 중국사신을 환영하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서구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염원의 표현이다. 그곳에서 금화터널을 넘어 고가 밑에서 오른쪽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봉원사가 나온다.

봉원사의 창건연원은 제법 오래되지만 사격이 커진 것은 조선 영조 때이다. 영조는 재위 26년(1750) 8월에 손자를 보았다. 세손 의소(懿昭)로 정조의 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손은 오래 살지 못하고 영조 28년(1752) 5월 죽었다. 첫손자를 잃은 안타까움에 할아버지 영조는 영인군 시절 살던 창의궁에 의소의 묘(廟)를 세웠다. 그곳이 한성부 북부 순화방으로 지금의 종로구 통의동이다. 영조는 죽은 세손을 위해 봉원사를 원찰로 삼고 용인의 땅과 해주 수안군에 있는 토지를 지급했다. 이때 황해감사가 이미 사원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수안군 땅은 본 고을에 소속시켰다.

이런 봉원사가 개화사상의 산실이 된 것은 개화에 관심이 많았던 승려 이동인과 개화파가 만나면서부터이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자신들이 궁금해 하는 서구문물에 대해 박규수에게 배웠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인 한양 북부 가회방 재동의 박규수 집은 개화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서구문물을 알 수 있는 창구였다. 1876년 박규수가 죽자 이들을 지도한 자가 유대치와 오경석이었다. 유대치는 중인 출신이었으나 학식과 인격 모두 탁월하고 교양이 심원한 경론가였다. 철저한 개화사상가여서 개화파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불교를 깊이 신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개화파를 지도할 때 불교사상도 가르쳤다. 당시 이들의 행적을 적고 있는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 갑신정변은 그들이 배운 불교의 이치를 직접 세상에 응용하려던 행동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 유대치의 영향으로 개화파에는 불교를 신앙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개화파는 동지들을 규합할 때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중인출신은 물론이고 승려들이 참여도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인이었다.

그의 출신에 대해 봉원사라는 견해와 통도사라는 견해가 있다. 전후사정을 고려해보면 봉원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개화파의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개화사상을 공부하고 불교를 토론하려면 빈번하게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봉원사가 제격이다.

남들의 눈을 피해 서대문을 나와 봉원사가 있는 금화산을 오르는 개화파의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칠흙 같이 어두운 그믐밤이나 달빛 훤한 보름밤 개화파는 봉원사에 모여 무엇을 고민하고 토론했을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냘픈 숨을 쉬며 열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선을 어떻게 부국강병으로 이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개화파를 조직한 목적은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국민국가란 내 나라, 내 민족을 발견하는 것이다.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동양적 질서체제에 안주하는 조선이 아니라, 세계 속의 자주독립국인 조선을 찾는 일이다. 그것은 조선왕조와 같은 봉건국가가 아니라 독립권이 보장된 근대국가의 성립이었다.

윤치호의 일기에 의하면 김옥균은 유대치의 지도를 받아 외국의 예를 따라 예산제도를 세우는 일, 행정기관의 책임분담을 마련하는 일 등을 고민했다. 그리고 조선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정부조직을 고치는 것을 꼽았다고 한다.

서재필은 갑신정변 37년이 지난 1941년 10월 그 사건을 회고하는 글을 썼다. 개화파는 국민들 사이에 존재했던 신분제도 철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택마련, 노비제도 폐지 등과 같은 것을 평등사상에 입각해 타파하려 했다고 적고 있다.

봉원사 승려 가운데 개화파의 일원으로 활약한 개화승은 이동인이다. 그는 새로운 문물과 해외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강해 부산에 일본불교 별원이 개설되자 그들을 통해 세계정세를 알고자 했다. 개화파의 도움으로 직접 일본에 건너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사회를 살펴보는 등 호기심이 강했다.

그의 개화 의식은 한국이 빈약해 부강하지 못한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일부 있는 제도도 바뀌지 않은 데서 생긴 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부국강병으로 보았다. 그 방법으로 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꼽았다.

먼저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풍부한 광산과 개발되지 않은 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자본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 힘을 합해 개발한다면 한국도 무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상업이 발달하려면 육의전에서 배를 구입하고 일본인 상인을 고용해서 한국의 내륙과 개항장 사이에 통신의 길을 만들어 사람들이 개항장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재정은 일본정부에서 빌어 상인들에게 빌려준다면 육의전의 상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견했다.

이런 그의 생각은 누구도 사회변화에 대해 예견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사회적인 제한이 뒤따르던 승려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진보적 성향은 불교계의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봉원사에 모여 수많은 밤을 지새워가며 토론하던 개화파는 정부차원에서 변화될 기미가 없자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실행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 대부분은 희생되고, 일부는 해외로 망명했다.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지만 국내의 모순을 극복하고 외세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이 정치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변 후 3일 동안 집권한 개화파는 자신들의 이념을 정강으로 발표 했다. 내용 가운데 불교사상과 연관된 것은 평등에 관한 부분이다. 정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당시 봉건사회가 지니고 있던 신분제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그들은 인민평등권을 주장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여건으로 본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국가의 자주독립과 인민평등권에 대한 사상은 1890년대에 들어와서 독립협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식이 확대되어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만 1880년대는 확실히 앞선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정변의 실패는 개혁에 대한 논의조차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대변화를 말하는 젊은이들은 미움을 받았다. 자연히 개화의 불길은 시들어 갔다. 이런 개화파의 퇴조는 잠시나마 조선사회에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던 분위기도 사라지게 했다. 불교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 • 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번지 금강리빙스텔 325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휴대폰 010-9217-2237

독자가 현대불교에 바랍니다

본지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 더 좋은 신문을 만들고자 前 편집국장을 비롯해 신문방송학과 교수, 스님, 재가 독자에게서 의견과 조언을 수렴했다. 다음은 본지에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은 독자들의 기고문이다.


학술 · 문화제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여 앉아 화두 든다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예고 기사와 도표로 정리한 현대불교


현대불교 55

면학열풍 불고 있다

문화강좌를 개설한 현대불교


"굴주리는 北동포 방관말자"

데생용 미록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덴생용 반가사유상 제작 보급운동 나선 현대불교

독자가 기다리는 신문이 되려면

최정희 (前 현대불교 창간편집국장)

불교방송 'BBS초대석'에서 만난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필자가 들고나간 신문의 한 면을 보고 반가워하셨다. "어느 신문예요?" "'현대불교'입니다. 전화하셔서 칭찬 좀 해주세요."

올 8월 10일자 현대불교는 종학연구소 주최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예고기사와 함께 도표로 정리했다. 해외석학 등 많은 학자들이 주제발표를 하는 그 내용을 기사로 풀어썼다면 독자들이 챙겨보기에 불편했을 것이다. 선배로서 흐뭇했다.

바른 신행의 길잡이

불교계가 신문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법교화와 더불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겠다.

신문이 대중교화를 제대로 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끌어 줘야한다. 기사 하나 하나가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길잡이가 될 때 '현대불교' 독자들은 신문을 거울삼아 자신의 신행을 점검하고 수행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또 비불자들은 '현대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불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쉽고 재미있는 교리 · 경전강좌, 큰스님 법석, 신행 현장, 수행이야기, 불교와 제(諸)과학, 해외불교, 불교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지면 구성은 필수다. '현대불교'가 이런 지면을 꾸미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잘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해행증'의 내용이 얼마나 심도 깊게 지면에 녹아 있으며, 독자의 시선을 얼마나 끌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일이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기획 연재는 거둬내야 한다. 기자들도 이 조건을 새기면서 기사를 써야 한다.

비불자와 고급독자 확보를 위해 뇌과학, 천체물리학, 환경문제 등 제과학을 불교와 접목하는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대중 속으로 세상 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 사회를 계도할 수 있는 칼럼이나 주제가 있는 법어도 필요하다.

이런 지면은 불자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 안내를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일깨우는 목탁이기도 하다.

자랑 같아서 쑥스럽지만 필자는 1990년 불교신문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국비구니회, 식생활개발연구원과 함께 '사찰음식 잔치'를 열었다. 일반방송, 신문 · 잡지 등에서 기사화 하고 그 반응은 대단했다. 20년 전에 사찰음식 대중화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현대불교'에서도 문화유산의 해를 기점으로 독자와 함께하는 사찰기행을 주제로 바꿔가며 여러 해 실시했다. 뎃생용 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제작 보급, 문화관광부 제정 혜초의 달에 국악 교성곡 '혜초'를 작곡해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일 등은 쾌거였다.

'현대불교'는 바로 이런 일도 해야 한다.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발전시키고 독자와 일반인을 그 마당에 동참케 하는 작업을 할 때 신문은 더욱 돋보인다. 그러면 독자도 늘어난다. 신문의 수입원인 광고효과는 독자수가 좌우한다.

공부하고 수행하는 기자

불교언론이 바른 신행의 길잡이가 되고 사회와 대중의 목탁이 되려면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이 신행과 수행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기자들이 정법으로 신행하고 수행할 때 신문을 통해 불교안의 비 불교적 요소를 거둬낼 수 있다. 또 역사, 문화, 뇌과학 등을 폭넓게 공부해 불교와 접목할 때 응용불교가 가능하다.

신문은 기자가 만든다. 결국 신문의 품질은 기자를 평가한다. 현대불교는 창간과 함께 교계 안팎의 시선을 끌었다.

이제 3년 후면 20주년을 맞는다. 성대한 20주년 잔치를 위해 분발하길 당부한다. 신문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구성원 모두 화합하고, 1단 기사도 공들여 작성하자. 그러면 독자가 기다리는 신문이 된다.



맑고 향기로운 보시행을 바라며

진명 스님(총무원 문화부장)

벌써 10월이다. 지난 여름 지루하리만치 하늘은 비를 쏟아 붓더니 조석으로 좀 쌀쌀한 듯 하지만 파란 가을 하늘과 벼들이 익어가며 황금물결을 이루는 들녘을 보면 언제 그랬냐 싶다. 이래서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가 보다.

전국을 긴장시켰던 지난여름 폭우처럼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고통이 때론 사람을 가을 열매처럼 튼실하게 여물어지게 하는 것 같다.

아! 하는 순간 멀어진 세월의 흔적들을 뒤돌아보며 시공간의 무상한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인다.

현대불교신문이 벌써 창간 17주년을 맞이했다니 그 또한 무상함이다. 불교계의 희노애락의 소식들을 전하며 보내온 시간을 뒤 돌아보라. 어느 소식에 웃었고, 어느 소식에 진노했는지. 또 어느 소식을 찬탄하고 격려하며 본받고 싶었는지를 말이다.

자신의 성찰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전문가의 100가지 1000가지 고견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계 언론에 바란다. 언론이 가진 큰 힘으로 세상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때론 그 힘을 무기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을 보곤 한다.

우리는 총칼의 힘보다 붓(기사)의 힘이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기사 한 건으로 승가와 수행자를 천상과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든다. 친소 인연에 따라 스타가 되기도 하고, 아주 세상에 못 쓸 사람이 되기도 한다.

보도에 대한 권리만 누리는 언론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언론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현대불교신문이 그 어느 때 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길 바라며, 불교계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 가는 대들보가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콘텐츠 기대

진말련(주부 · 현대불교 독자)

현대 불교신문 구독자가 된지도 벌써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에게 내 마음의 불씨가 되어 오늘도 현대불교 신문을 펼쳐보며 여러 대덕큰스님의 법문 글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길을 묻는 이에게' 라는 대행스님의 선문답 법문을 읽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 없이 반복해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글은 쓰고, 오려서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틈나는 대로 또 읽고 있다. 큰스님이 일러주신 관법수행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켜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를 넓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불교계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지금껏 딱딱한 사설을 다루는 것 같다.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모든 가정의 가족이 두루 접 할 수 있는 가족적인 신문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면을 하나 만들어 또래 어린이들의 생각과 고민을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를 맞춘 글이나 만화, 꽁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청소년면을 만들어 이 시기에 겪는 고민, 혼란성, 문제점들을 부처님 지혜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선문답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부면을 만들어 부부의 불화, 갈등, 가정속의 고민 등 문제점들을 부처님 지혜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준다면 더 밝은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면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외로움, 고민 등을 들어주며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

현대불교신문이 가족 신문이 되어 바른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 보다 밝은 가정과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매체가 되길

김관규(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 창간되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교신문은 전문지 가운데도 아주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지만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종교신문은 비록 특정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종교정신을 널리 알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치유하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신문 구독자의 급격한 감소는 현대불교신문과 같은 전문지의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적정한 규모의 독자층 확보가 모든 신문의 과제이며 현대불교신문 또한 예외가 아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불교 정신의 구현이 출가자 승단과 재가자만이 아니라 불교도가 아닌 일반인이 일상생활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교경전은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성경은 시대 변화 그리고 언어 장벽을 넘어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보해 왔다. 불교경전이 단기간에 성경과 같은 대중서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불교계 신문들이 원어 경전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바꾸어 불교도와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신문, 시대와 더불어 사는 신문 상을 세우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지만 인간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과학이 만들어 내는 부작용으로 인해 인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환경문제를 야기시켰고, 발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경쟁을 요구해 정신적 빈곤을 초래했다. 이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의 재건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행과 자비를 기본으로 하는 불교 정신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이 과학과 발전이 초래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극 발굴하여 전달해야 한다. 환경보호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사회 현안에 대해 불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신문이 종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미디어 환경에 선도적으로 적응해 가야한다. 지금은 신문이 종이에서 벗어나 인터넷, 휴대폰, 태블릿PC에 적합한 포맷으로 자신을 바꾸고 있다. 현대불교신문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은 존재감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젊은 층은 종이신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신문을 접하는 매체로 들어가야 한다. 이동매체에 적합한 기사포맷을 개발하고 젊은층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발굴하여 전달해야 한다.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四柱

子平眞詮 精解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자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자평진전의 위상

자평진전은 적천수와 더불어 명리학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전이다. 중화민국대의 대명학리자 서락오(徐樂吾)의 설을 인용하면, 이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보완이 되어야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평진전을 읽고 난 뒤에 적천수를 읽어야만 적천수의 기격(奇格)과 이국(異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충언하였다.

사주의 격국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른 채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엔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 격국논리는 생극제화를 요체로 삼는 자평진전으로 배워야만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전국 서점 판매중!

■ 우명 서상덕 역저 · 산음 심효첨 원저 / 신국판 744쪽 / 정가 4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Hanmaum Choir Festival

"생명가진 풀포기 하나도 나 아님 없고
내 생명 아닌 것 없고 내 모습 아닌 것 없어
수억 겁 세월을 거쳐오면서 그런 줄도 몰랐던
내 모습이 상대의 모습 속에 들어 있었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둘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 되어
그 사람도 보살되고 나도 보살되네"

선법가 '너, 나 하나라네' 중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토) 5시 - 13 (일) 3시, 7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류정필,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티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예매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6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문의 한마음선원 031-470-3100 http://www.hanmaum.org